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위험지각과 관광지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김 기 현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2023년 8월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위험지각과 관광지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관광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김 기 현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지도교수 임 화 순

김기현의 관광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심사위원장

崔 容 福



위 원

鄭 丞 勳



위 원

姜 永 淳



위 원

南 玗 燮



위 원

任 和 淳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2장 이론적 고찰	8
제1절 라이프스타일(Lifestyle)	8
1. 라이프스타일 개념	8
2. 라이프스타일 유형	13
3. 라이프스타일 측정과 분석	18
4. 라이프스타일 관련 선행연구	20
제2절 위험지각(Risk perceptions)	23
1. 위험지각 개념	23
2. 위험지각 구성요인	28
3. 위험지각 측정	34
4. 위험지각 관련 선행연구	35
제3절 관광지 선택속성(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	38
1. 관광지 선택속성 개념	38
2. 관광지 선택속성 구성요인	43
3. 관광지 선택속성 측정	48
4. 관광지 선택속성 관련 선행연구	49
제4절 만족도(Satisfaction)	52
1. 만족도 개념	52
2. 만족도 구성요인	56
3. 만족도 측정	57
4.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58

제3장 연구설계	60
제1절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60
1. 연구모형	60
2. 가설의 설정	61
제2절 조사설계	76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76
2. 설문지의 구성	79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84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84
2. 분석 방법	87
제4장 실증분석	89
제1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89
1. 인구통계적 특성	89
2. 관광 내용적 특성	90
제2절 기술통계 분석	94
제3절 측정모델 평가	99
1. 구성개념별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	99
2. 측정모델 평가 종합	106
제4절 구조모델 평가	107
1. 구조모델 평가	107
2. 구조모델 평가 종합	110
제5절 가설검증	111
1. 직접영향에 대한 가설검증	111
2. 특정간섭효과 매개효과 검증	121
3. 가설검증 결과 종합	124
제5장 결 론	132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132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35
1. 학술적 시사점	135
2. 실무적 시사점	138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140
참고문헌	141
실문지	165
ABSTRACT	171

표 목 차

〈표 2-1〉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국내 연구자의 개념	10
〈표 2-2〉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국외 연구자의 개념	11
〈표 2-3〉 라이프스타일 유형 분류	16
〈표 2-4〉 라이프스타일 유형 도출	17
〈표 2-5〉 위험지각에 대한 국내 연구자의 개념	27
〈표 2-6〉 위험지각에 대한 국외 연구자의 개념	28
〈표 2-7〉 위험지각 구성요인	32
〈표 2-8〉 위험지각 요인 도출	33
〈표 2-9〉 선택속성에 대한 국내 연구자의 개념	42
〈표 2-10〉 선택속성에 대한 국외 연구자의 개념	43
〈표 2-11〉 선택속성 구성요인	46
〈표 2-12〉 선택속성 요인 도출	47
〈표 2-13〉 만족도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의 개념	55
〈표 3-1〉 설문지의 구성	81
〈표 3-2〉 한국관광공사 제주 방문객 분포 비율	85
〈표 3-3〉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86
〈표 3-4〉 표본의 선정과 자료수집 방법	86
〈표 3-5〉 PLS-SEM과 CB-SEM 비교	87
〈표 3-6〉 분석방법과 도구	88
〈표 4-1〉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	90
〈표 4-2〉 관광 내용적 특성	92
〈표 4-3〉 라이프스타일 기술통계 분석	95
〈표 4-4〉 위험지각 기술통계 분석	96
〈표 4-5〉 관광지 선택속성 기술통계 분석	97
〈표 4-6〉 만족도 기술통계 분석	98
〈표 4-7〉 PLS-SEM 모델평가 특성	99

〈표 4-8〉 라이프스타일 신뢰도와 집중타당도	101
〈표 4-9〉 위험지각 신뢰도와 집중타당도	102
〈표 4-10〉 관광지 선택속성 신뢰도와 집중타당도	103
〈표 4-11〉 만족도 신뢰도와 집중타당도	104
〈표 4-12〉 Heterotrait-Monotrait Ratio(HTMT)	105
〈표 4-13〉 Fornell-Larcker criterion	105
〈표 4-14〉 PLS-SEM 측정모델 평가	106
〈표 4-15〉 다중공선성(Inner VIF)	107
〈표 4-16〉 결정계수(R^2)	108
〈표 4-17〉 효과크기(f^2)	108
〈표 4-18〉 예측적 적합성(Q^2)	109
〈표 4-19〉 PLS-SEM 구조모델 평가	110
〈표 4-20〉 라이프스타일과 위험지각 간 분석결과	112
〈표 4-21〉 라이프스타일과 관광지 선택속성 간 분석결과	114
〈표 4-22〉 위험지각과 관광지 선택속성 간 분석결과	116
〈표 4-23〉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 간 분석결과	118
〈표 4-24〉 위험지각과 만족도 간 분석결과	119
〈표 4-25〉 관광지 선택속성과 만족도 간 분석결과	120
〈표 4-26〉 위험지각 매개효과 분석결과	121
〈표 4-27〉 관광지 선택속성 매개효과 분석결과	123
〈표 4-28〉 직접효과 가설검증 결과 종합	128
〈표 4-29〉 특정간접효과(매개효과) 가설검증 결과 종합	129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절차	7
[그림 3-1] 연구모형	61
[그림 3-2] 가설 H1 연구모형	64
[그림 3-3] 가설 H2 연구모형	66
[그림 3-4] 가설 H3 연구모형	68
[그림 3-5] 가설 H4 연구모형	69
[그림 3-6] 가설 H5 연구모형	70
[그림 3-7] 가설 H6 연구모형	72
[그림 3-8] 가설 H7 연구모형(매개)	73
[그림 3-9] 가설 H8 연구모형(매개)	75
[그림 4-1] H1. 라이프스타일과 위험지각 간 분석모형	113
[그림 4-2] H2. 라이프스타일과 관광지 선택속성 간 분석모형	115
[그림 4-3] H3. 위험지각과 관광지 선택속성 간 분석모형	117
[그림 4-4] H4.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 간 분석모형	118
[그림 4-5] H5. 위험지각과 만족도 간 분석모형	119
[그림 4-6] H6. 관광지 선택속성과 만족도 간 분석모형	120
[그림 4-7] H7. 위험지각 매개효과 분석모형	122
[그림 4-8] H8. 관광지 선택속성 매개효과 분석모형	124
[그림 4-9] 전체 구조모형 분석결과	131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위험지각과
관광지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김 기 현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국문 요약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관광산업은 매우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되었고,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 공포와 우울감, 스트레스 이른바 ‘코로나블루’ 증상을 겪으며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행동과 라이프스타일에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코로나19와 제주 관광과 관련된 연구는 몇몇 탐색적 연구들에 불과한 상황으로 현재 정부의 코로나 위기단계 조정 등 방역 정책들도 많이 완화되어 코로나19에 대한 관광객들의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도 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시점에서 실증연구의 필요성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주를 방문한 20세 이상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위험지각과 관광지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새롭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라이프스타일과 위험지각, 관광지 선택속성 그리고 만족도에 대한 하위요인을 도출하였고, 변수 간 영향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모형과 변수 간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1은 라이프스타일과 위험지각 간 관계, 가설 2는 라이프스타일과 선택속성 간 관계, 가설 3은 위험지각과 선택속성 간 관계, 가설 4는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 간 관계, 가설 5는 위험지각과 만족도 간 관계, 가설 6은 선택속성과 만족도 간 관계에 대해 설정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각 변수에 대한 측정도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공포와 우울감, 스트레스, 건강 관심, 위생과 청결, 경제적 불안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주를 방문한 20세 이상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조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600명의

조사대상 표본을 선정하여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유효 표본 600부를 대상으로 SPSS 22.0(빈도분석)과 Smart PLS 4.0을 사용하여 1단계 측정모델 분석과 2단계 구조모델 분석 적합성을 확인하고 가설검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가설 1은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건강추구형, 활동추구형, 실용추구형만 위험지각 요인 중 경제적위험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설 2는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건강추구형이 선택속성 요인 중 문화적요인과 실용추구형이 코로나안전요인 간 관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설 3은 위험지각 요인 중 코로나위험은 선택속성 요인 코로나안전, 문화, 매력, 힐링요인에 또한, 신체적위험은 코로나안전요인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 관계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위험은 매력요인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로 나타났다. 가설 4는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건강추구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 모두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설 5는 위험지각 요인 중 경제적위험만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 관계로 나타났다. 가설 6은 관광지 선택속성 요인 코로나안전요인, 문화요인, 매력요인, 힐링요인 모두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와 제주 관광과 관련된 영향 관계를 보다 실증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데에 학술적인 의미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 대상자들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건강추구형, 활동추구형, 보수추구형, 실용추구형 모두 코로나위험과 신체적위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관계로 나타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수준이 많이 안정화되고 또한, 정부의 위기단계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의 전환 추진 등을 고려하여 이제부터 제주도와 관광 관련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활동추구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 모두 경제적위험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을 고려할 때 제주 관광에 대한 고비용 인식 해결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약 3년이 지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과 방역정책 등이 많이 완화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향후 코로나19 팬데믹 종식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의 공간적 범위 및 표본선정의 확대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연구 등 좀 더 심화된 실증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용어: 라이프스타일, 위험지각, 관광지 선택속성, 만족도, 코로나1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세계 인구의 증가추세와 함께 1인당 가처분소득의 증가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이동 영역의 확대는 관광 욕구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제관광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윤성준, 2021). 그래서 관광산업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전략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에 비해 고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월등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동력원으로 인식되고 있다(김대관, 2005; 윤성준, 2021).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총 국제 관광객 도착 수가 14억6천만 명으로 2018년 14억 명 대비 약 6천만 명이 늘어났으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관광 수입의 실질 성장률(54%)이 세계 GDP 성장률(44%)을 앞섰다고 밝혔다(UNWTO, 2021). 또한, 한국의 국제관광 수요도 매년 증가 하여 입국 관광객 수가 2010년 880만 명에서 2019년 1,750만 명으로 약 2배가 증가했고 해외로 나가는 출국 관광객 수는 2019년 2,870만 명으로 2010년 1,250만 명과 비교해 약 2.3배 증가하였다(한국관광공사, 2023).

제주도 관광 수요도 2010년 입도 관광객 수는 758만 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1,529만 명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23). 특히, 제주는 지난 몇 년 동안 대안적 삶의 상징으로 떠올라 문화·예술인들의 정착지이자, 한 달 살기, 이주 등 새로운 삶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등에 힘을 입어 관광객 1,500만 명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고선영, 2021).

하지만 지난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감염증(김우정, 2022)으로 인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전염병 경보를 알리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연합뉴스, 2020.3.12.).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언한 ‘팬데믹(Pandemic)’은 감염병 경보단계 1~6단계 중 최고 단계인 6단계로(동아사이언스, 2020.3.12.) 역대 3번째 선언이며 이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은 급격히 줄게 되었고 전 세계는 감염병으로 인한 보건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적 침체로 인하여 관광산업도 매우 심각한 타격

을 받게 되었다(노성환·이창기, 2021).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중지 및 여행금지, 자가격리, 국경 폐쇄 등의 방역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0년 국제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72.8% 감소한 약 4억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국제관광 수입은 전년 대비 63.7% 감소한 5,350억 달러로 집계되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또한, 여행업과 관련된 항공사, 여행사, 호텔 등이 급격한 매출 감소로 경영 위기에 놓였고 종사원들의 고용현황도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되었다(노성환·이창기, 2021).

2021년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지역의 내수 피해액은 약 4조 4천억 원, 외래 관광객 손실에 의한 피해액은 약 5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김민호, 2022). 또한, 제주의 경우도 내국인 입도 관광객이 2019년 12월 말 기준 1,520만 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2020년 말 기준 1,023만 명으로 약 33%가 하락하였고 해외 관광객인 경우 2019년 173만 명에서 2022년 8.6만 명으로 약 95%가 하락한 상태이다(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23).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관광객 감소와 더불어 관광 수입의 하락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관광은 외부환경의 영향에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환경에 더욱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한다(고선영, 2021; 정승훈·양성수, 2021; 김우정, 2022).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관광전문가들은 기존에 추구하던 관광 형태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고 이로 인해 관광의 미래는 많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한다(김정서·이결재, 2021). 코로나19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병적 증상도 문제이지만 감염병 전파와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만남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여러 부정적·긍정적인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이상미, 2021).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2020년 4월 20세~69세 남녀를 대상으로 '코로나19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관련한 엠블레인 조사에서 코로나19 감염 공포와 우울감 이른바 '코로나블루' 증상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고 대인관계, 여가생활 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걸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으며 코로나19 종식 후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국내 여행, 마스크 벗고 쇼핑하기 등으로 조사되었다(엠블레인, 2020). 그리고 2021년 3월 한국 갤럽의 전국 직장인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직장생활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 42%, 업무 스트레스 증가 52%, 업무 효율성 저하가 32%로 나타났다(한국 갤럽 조사연구소, 2021).

우은주·이상탁(2022) 연구의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부의 위협지각을 인지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 위협감소를 위한 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즉, 코로나19 감염 등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의 소비자 행동과 라이프스타일에 변화가 생겼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를 피하거나 위생적인 숙박시설을 찾게 된다고 하였다(Roy 외, 2021). 또한, Ocampo 외(2022) 연구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발병 기간 관광객의 여행 관심 감소와 관광산업에 악영향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유도하여 개방된 공간, 자연에 기반한 장소 또는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지 않는 장소를 선호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이후의 한국 사회동향 연구에서 김지범(2022)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경제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이전인 2016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약 36%가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021년 조사에서는 14%가 증가한 약 50%가 경제가 중요한 문제라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들의 가계 경제의 만족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이전 2018년 조사에서 만족스럽다가 47%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021년 조사에서는 약 18%가 감소한 29%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은 경제를 압도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모든 문제가 경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코로나19 발병 이후 최근 들어 관광 분야의 연구 주제로 새로운 사회문화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Chamba 외, 2021).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눈에 띄는 변화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김문순·정복미, 2021). 또한, 사람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청결 및 위생 문제에 관한 위험성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다(이상미, 2021).

반면 국내 일부 관광객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호텔을 대상으로 하는 호캉스 또는 밀집도가 낮은 숨겨진 관광지를 찾으려는 관광객 증가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21년 제주 방문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경우이다(김우정, 2022). 이는 안전하고 긍정적이며 편안한 목적지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속성이 반영되어 코로나19에 대한 인지된 위협을 줄이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전과 다른 변화된 모습 중의 하나이다(Quintal 외, 2010; Wu 외, 2020; Pappas 외, 2021).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국내·외 연구자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관광 형태에 많은 변화로 언택트(비대면)관광, 온라인 축제 등 새로운 관광 형태가 생겨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지만,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슬로관광(slow), 웰니스관광, 스마트관광 등이 주목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한다(김정서·이걸재, 2021; Wen 외, 2021). 그리고 사람들이 방문하는 관광지가 코로나19 노출 정도에 대해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할 수 있기에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 등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Ocampo 외, 2022).

Kim 외(2022)는 위생, 청결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 호텔 선택속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향후 또 다른 감염병 발병 등을 대비하여 감염병에 대한 관광객들의 태도, 인식 등이 관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 연구도 중요한 과제라 하였다(Khozae 외, 2022). 또한, Yang 외(2022)도 코로나19의 확산과 방역정책 등의 강화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극단적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한다고 했고,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불안, 위험 인식과 불안 사이의 관계에 관해 개별적인 연구들은 진행되었으나 포괄적으로 논의한 연구들은 없다고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보건, 언론, 교육 및 사회학 관점의 연구들이고 관광 관련 분야에서는 팬데믹 초기시점 제주방문 관광객 대상연구와 그 외 몇몇 탐색적 연구들에 불과한 상황으로 코로나19와 제주 관광과 관련한 실증연구의 진행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현재 정부의 코로나 위기 단계 조정 등 방역 정책들도 많이 완화된 상태로 코로나19에 대한 관광객들의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도 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시점에서 실증연구의 필요성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주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코로나19와 제주의 관광환경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 태도, 행동과 제주를 관광목적지로 선택한 속성 및 만족도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주를 방문한 20세 이상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들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위험지각과 관광지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새롭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라이프스타일과 위험지각, 관광지 선택속성 그리고 만족도 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의 다양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 도출과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지각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관광지를 전환하거나 취소 또는 아예 여행을 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 더욱 안전한 제주 관광이 될 수 있는 제주형 방역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주를 관광목적지로 방문했던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들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제주 관광에 대한 위험지각과 제주를 선택한 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 분석을 통해 학술적 시사점과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관광정책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대한 유용한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위험지각, 관광지 선택속성 그리고 만족도에 관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개념과 측정도구를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위험지각, 관광지 선택속성 및 만족도 간의 구조적인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의 위험지각과 관광지 선택속성을 매개로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위험지각과 관광지 선택속성 및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한 구조적인 검증을 통해 학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상기와 같이 연구과제의 검증을 통한 학술적 시사점과 더불어 향후 도래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제주도의 관광정책 및 서비스 제공자들의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려는데 연구 목적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증연구에 필요한 범위를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시간적 범위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2023년 2월22일부터 3월 4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둘째, 공간적 범위는 제주로 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위험과 방역 조치 등의 상황으로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 조사업체 '엔트러스트 서베이'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주를 방문한 20세 이상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총 5장으로 각 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배경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장으로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의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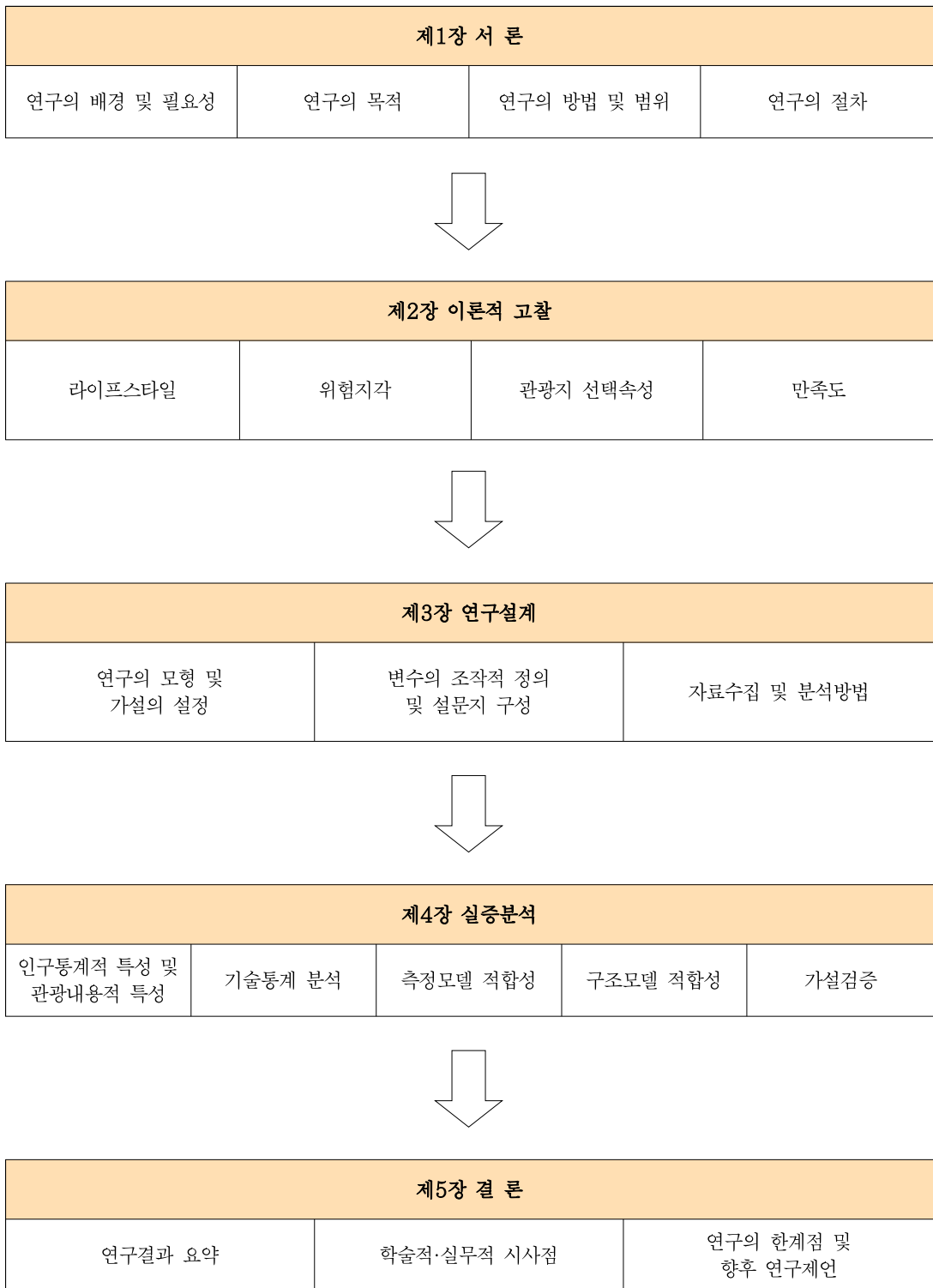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연구모형 설계를 위한 이론적 고찰로서 라이프스타일(lifestyle), 위험지각(risk perceptions), 관광지 선택속성(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 만족도(satisfaction)에 대한 개념과 구성요인, 측정, 선행연구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구설계 단계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위한 조사설계와 변수 간 영향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했다. 그리고 가설설정의 근거가 되는 선행연구 제시와 연구 목적 및 모형에 맞는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했으며 또한, 설문지의 구성 내용과 조사대상 선정방식, 자료수집 방법, 실증분석을 위한 검증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 단계로 빈도분석을 통해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광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 적합성 분석을 시행했으며 경로 분석을 통한 변수 간 가설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술적·실무적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상기와 같이 내용적 범위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절차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라이프스타일 (Lifestyle)

1. 라이프스타일(lifestyle) 개념

국립국어원에서는 라이프스타일(lifestyle)에 대한 개념을 '생활 구조, 생활 의식, 생활 행동의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생활 체계로 마케팅이나 소비자행동 연구의 주요 분석 과제로 정의하고 있다(국립국어원, 2023).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은 마케팅 분야뿐만 아니라 가정학, 심리학, 사회학, 신문 방송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1990년대부터 국내에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이호배·이호상, 1999).

2000년대 들어서 신홍철·김은영(2001)은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자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심리적 묘사 변수의 하나로서 소비자가 자금과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는지(활동), 자신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관심), 자신과 주변 환경에 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의견)의 관점에서 설명되는 양식이라고 하였다.

김진탁·김계섭·공기열(2002)의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 개념은 개인에서 사회 전체에까지 다양한 계층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데, 분석의 목적은 관심의 대상에 따라 개인, 가정, 직장 및 사회, 지역별로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집단별 라이프스타일이 구성원들의 생활 행동과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세분화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다.

이운섭(2006)은 라이프스타일은 종합된 생각과 일반적인 인간 행동의 본질을 묘사하는 중요한 사회적 지표로 사용되었고 라이프스타일이란 용어의 유래는 대단히 오래되었으며 일찍이 사회학과 심리학 등에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이후부터 소비자행동 연구를 목적으로 마케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남승규(2006)는 개인들의 개성이 풍부해지는 21세기에는 개인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게 되고 상호 간 개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가치 및 라이프스타일 등의 최고를 가려내기 위한 서로 경쟁하는 시대에서 서로 공존하

는 공생의 시대로 이동해 가고 있다고 하였다.

황규원(2008)의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은 개개인이 살아가는 방식(a mode of living)이며 이는 소비자 개인의 구매와 소비하는 행위(activities), 주위 환경에 대한 특별한 관심(interests), 자신과 주위 환경에 대한 의견(opinions)의 총체라 하였다. 허양례(2011)는 라이프스타일은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 다른 개념으로 사용됐으며 분석가들에 의해 분석단위와 내용 그리고 범주 등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해석된다고 했다.

라이프스타일 개념이 도입된 후 Lazer(1963)에 의해 마케팅 및 소비자행동 분야에서 새로운 분석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소비행동 측면에서 정균표(2011)는 라이프스타일이 재화의 구매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문화, 사회계층, 관계집단, 가족 등으로부터 학습되어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또 다른 관광행동 측면에서 김선영·김형곤(2009)은 라이프스타일은 각 개인의 행동양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 하나로 특히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객의 행동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각 개인의 행동 태도에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라이프스타일은 개개인의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 방식에 따라 각 개인의 구매와 소비하는 행위가 다를 수 있어서 마케팅과 관련한 소비자행동 분야에서의 연구와 더불어 개인이나 집단의 차별화된 생활양식으로 서로 다른 집단이나 계층 간의 전반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차이를 조망하기 위한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다(김성연, 2018).

2020년대 들어오면서 이승엽·김용일·남장현(2022)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며 건강 라이프스타일이란 개념이 생기게 되었고, 건강 라이프스타일은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가치를 평가하며 존중하고 행복함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문화로 정의하였다. 이에 대한 특징으로 일반적인 라이프스타일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선택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지만 그 중 삶에 대한 선택의 기준으로 건강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라이프스타일과 관련한 국외 선행연구의 경우 이미 1960년~70년대부터 미국의 사회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그들은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양식의 사회적, 계층적 차이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이운섭, 2006). 국외 선행연구 중 Adler(1969)는 능동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자기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지각과 사고, 행동 등 일관되게 라이프스타일을 확립하려는 기질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통해 개인행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열쇠가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였다.

〈표 2-1〉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국내 연구자의 개념

연구자	개념
이호배·이호상(1999)	라이프스타일은 마케팅 분야뿐만 아니라 가정학, 심리학, 사회학, 신문 방송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1990년대부터 국내에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짐.
신홍철·김은영(2001)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자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심리적 묘사 변수의 하나로서 소비자가 자금과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는지(활동), 자신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관심), 자신과 주변 환경에 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의견)의 관점에서 설명되는 양식임.
김진탁·김계섭·공기열(2002)	라이프스타일 개념은 개인에서 사회에까지 다양한 계층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데, 특히 집단별 라이프스타일이 구성원들의 생활 행동과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세분화가 가능함.
이윤섭(2006)	라이프스타일은 인간 행동 전반에 나타나는 상징적이며 타인과 차별적인 행동 양식으로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한 파생물임.
남승규(2006)	개인들의 개성이 풍부해지는 21세기에는 개인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보여 주게 되고 상호 간 개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가치 및 라이프스타일 등의 최고를 가려내기 위한 서로 경쟁하는 시대에서 서로 공존하는 공생의 시대로 이동해 가고 있음.
황규원(2009)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은 개개인이 살아가는 방식(a mode of living)이며, 이는 소비자 개인의 구매와 소비하는 행위(activities), 주위 환경에 대한 특정한 관심(interests), 자신과 주위 환경에 대한 의견(opinions)의 총체임.
허양례(2011)	라이프스타일은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 다른 개념으로 사용됐으며 분석가들에 의해 분석단위와 내용 그리고 범주 등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해석됨.
정균표(2011)	라이프스타일이 재화의 구매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문화, 사회계층, 관계집단, 가족 등으로부터 학습되어 온 사람마다 개성의 파생물로서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
김선영·김형곤(2009)	라이프스타일은 각 개인의 행동양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 하나로 특히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객의 행동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각 개인의 행동 태도에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김성연(2018)	라이프스타일은 개개인의 살아가는 방식으로 마케팅과 관련된 소비자행동 분야에서의 연구와 더불어 개인이나 집단의 차별화된 생활양식으로 서로 다른 집단이나 계층 간의 전반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차이를 조망하기 위한 개념임.
이승엽·김용일·남장현(2022)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며 건강 라이프스타일이란 개념이 생기기 되었고, 건강 라이프스타일은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통해 자신 스스로 가치를 평가하며 존중하고 행복함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문화임.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표 2-2〉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국외 연구자의 개념

연구자	개념
Lazer(1963)	라이프스타일을 전체 또는 사회의 한 부분에서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갖는 태인과 구별되는 특별한 생활양식임.
Adler(1969)	능동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자기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지각과 사고, 행동 등 일관되게 라이프스타일을 확립하려는 기질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통해 개인행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열쇠가 라이프스타일임.
Feldman 외(1972)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을 하나의 집단 현상이며 생활의 여러 측면 여러 영역에 침투해 있고 사람의 신조 또는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몇 개의 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남.
Wells 외(1971)	라이프스타일을 AIO(Activities, Interests, Opinions) 3가지로 분류함.
Wind 외(1974)	라이프스타일을 시간과 돈을 소비하여 살아가는 전반적인 생활 방식으로 상품과 특정상품과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의 레저와 소비행동에 관심과 태도, 활동 등으로 나타내는 가치와 인간성임.
Sobel(1981)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아주 간단한 정의로 "독특하고 따라서 인식할 수 있는 생활 방식"임.
Silverberg 외(1996)	자연과 관련된 여행에 초점을 맞추었고 여행에 특화된 라이프스타일 척도를 사용하여 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을 탐구함.
Cohen(2011)	라이프스타일은 시장세분화 변수로 일반적으로 관광업에서 분석 도구임.
Chen 외(2014)	라이프스타일은 사회생활 패턴과 고유한 개인 또는 집단행동의 통합을 포함하는 사회과학 개념임.
Težak Damijanovic(2019)	건강은 관광에서 가장 오래된 여행 동기 중 하나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이 웰니스 관광과도 관련이 있고,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건강한 식단, 여행, 피트니스, 환경보호 등이 있음.
Brahmkshatriya 외(2020)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분류는 고객의 선호도와 요구 사항, 관심사 및 반대에 따라 고객을 구분하는 사업 계획 방법이며, 이 정보는 기업이 고객의 관심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련 상품, 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Roy 외(2021)	코로나19와 관련된 위험은 소비자행동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 여행자들은 대규모 그룹 여행을 피하고, 혼자 여행하거나 소그룹 여행을 선호하며, 감염위험 때문에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를 피하고 위생적인 숙박시설을 찾게 됨.
Ocampo 외(2022)	코로나19 팬데믹과 발병 기간 관광객의 여행 관심은 공포의 만연으로 인해 감소하게 되고,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유도하여 개방된 공간이 있거나 자연에 기반한 장소 또는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지 않는 장소를 선호하게 됨.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미국의 대표적 사회학자인 Feldman 외(1972)는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을 하나의 집단 현상이며 생활의 여러 측면, 여러 영역에 침투해 있고 사람의 신조 또는 가치관을 포함하여 몇 개의 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Lazer(1963)는 라이프스타일을 전체 또는 사회의 한 부분에서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갖는 타인과 구별되는 특별한 생활양식이라 정의하였다.

Wells 외(1971)는 라이프스타일을 AIO(Activities, Interests, Opinions)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Wind 외(1974)는 라이프스타일을 시간과 돈을 소비하여 살아가는 전반적인 생활 방식으로 상품과 특정 상품과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의 레저와 소비행동에 대한 관심과 태도, 활동 등으로 나타내는 가치와 인간성이라 하였다.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아주 간단한 정의로 Sobel(1981)은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독특하고 따라서 인식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이라고도 하였다.

Silverberg 외(1996)은 자연과 관련된 여행에 초점을 맞추며 여행에 특화된 라이프스타일 척도를 사용하여 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을 탐구하였고 라이프스타일은 시장세분화 변수로 관광업에서 분석도구로 활용된다고 했다. Cohen(2011)과 Chen 외(2014)는 Lazer(1963)가 라이프스타일을 마케팅에 처음 도입했고 이후 Plummer(1974)가 라이프스타일의 세분화가 마케팅에 유용하다고 제안했으며 또한, 라이프스타일이 사회생활 패턴과 고유한 개인 또는 집단행동의 통합을 포함하는 사회과학 개념이라고 지적하였다.

Težak Damijanac(2019)은 건강은 관광에서 가장 오래된 여행 동기 중 하나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이 웰니스 관광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건강한 식단, 여행, 피트니스, 환경보호 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Senbeto 외(2020)는 2003년 SARS와 2015년 조류 독감 발생과 같은 주요 건강 위기는 금융 위기보다 관광객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Yang 외(2022)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극단적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했다고 했으며,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불안, 위험 인식과 불안 사이의 관계에 관해 개별적인 연구들은 진행되었으나 포괄적으로 논의한 연구들은 없다고 하였다.

Roy 외(2021)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위험은 소비자행동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왔고 여행자들은 대규모 그룹 여행을 피하거나 혼자 여행하거나 소그룹 여행을 선호하며, 감

염위험 때문에 사람들이 봄비는 장소를 피하고 위생적인 숙박시설을 찾게 된다고 하였다. Ocampo 외(2022)도 코로나 팬데믹 발병 기간 코로나 공포의 만연으로 관광객의 여행 관심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유도하여 개방된 공간이 있거나 자연에 기반한 장소 또는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지 않는 장소를 선호하게 된다고 하였다.

상기의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시대마다 변화하는 가치관, 관심사 등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변화가 있었지만 결국 소비자 또는 관광객의 행동 변화에 대한 세분화를 통해 개인행동들을 예측하고자 하는 마케팅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즉,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분류는 고객의 선호도와 요구 사항, 관심사 그리고 반대에 따라 고객을 구분하는 사업 계획 중의 하나이며, 기업이 고객의 관심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련 상품, 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Brahmkshatriya 외,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정의한 개념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라이프스타일을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태도, 의견, 행동으로 타인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고유한 생활양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라이프스타일(lifestyle) 유형

라이프스타일(lifestyle) 유형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 여러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연구자들은 제주관광, 실버관광, 해양관광, 웰빙관광, 식생활, 아파트 구매, 호텔 이용, 주제공원 이용, 스키 리조트 이용, 템플스테이 이용, 지역축제 참가자, 중국관광객, 유학생 등 관광목적과 장소,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들을 도출하였다.

신현호(1999)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유행추구요인, 문화예술요인, 사회적교류요인, 현대적감각요인, 보수성향요인, 쾌락성향요인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관광지 선택행동과 정보탐색, 관광활동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운섭(2006)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회지향성, 일지향성, 문화추구형, 여가지향성으로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도출하였다.

장양례(2005)는 노인 여행자 시장 라이프스타일 세분화 연구에서 건강관심형, 독립형, 현

실행, 진보형, 개방형, 보수형, 계획형, 적응형, 사교형으로 9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백승현(2007)은 해양스포츠관광에 대한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을 일상탈출, 휴식, 오락, 유행추구, 사회지향성, 가족중심, 자아탐구, 성취, 경쟁, 가치표현, 건강추구, 스포츠 등으로 다양한 유형을 도출하였다.

하정순(2007)은 실버타운 선호속성에 대한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진취지향성, 검소지향성, 물질지향성, 환경보존지향성, 합리지향성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원갑(2008)은 한국음식 중 약선음식 관련한 라이프스타일을 웰빙, 미식, 안전, 실속 4개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영기·홍영호(2011)는 특수목적지 관광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사회추구형, 전통추구형, 위락추구형, 여가추구형, 건강추구형으로 구분하였다.

Chen 외(2014)는 대만 현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웰니스 관광과 관련된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사회접촉, 건강한식단, 여행, 휴가, 전체적인 성취도, 피트니스, 환경보호 등 7개 유형을 도출하였고, 왕결·염진철(2015)은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자기관리추구형, 활동개성추구형, 가치추구형, 문화추구형, 여가추구형 등 5개 유형으로 나누고 실버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 선택속성에 관한 라이프스타일 연구를 하였다.

Lee 외(2015)는 음식관광 관련 연구에서는 슬로푸드(slow food)운동 회원과 비회원을 대상으로 여행 라이프스타일을 친근함과 편안함을 선호, 새로운 지역 문화에 관심, 활동 및 모험선호형으로 구분하였고, 문혜진(2017)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관련한 연구에서 유행추구, 건강추구, 편의추구, 시각추구, 합리성추구, 미각추구 6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김성연(2018)은 웨딩이벤트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개성도전지향형, 외모관리지향형, 여가활동지향형, 매체활용지향형, 보수전통지향형 5개 유형을 도출하여 소비가치, 선택속성, 행동의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노해득(2018)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관광 경험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을 미래적개발추구, 가정적여유추구, 외형적여가추구, 사회적교류추구, 건강추구형으로 구분하였고, 강하연(2019)는 디저트카페 이용객 대상 식생활 습관, 비만식행동 등과 관련한 라이프스타일을 건강추구형, 미각추구형, 유행추구형, 편의추구형, 경제추구형, 안전추구형 등 6개로 도출하여 연구하였으며, Težak Damijanac(2019) 연구에서는 웰빙관광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다이어트, 사회적상호작용, 문화적다양성, 피트니스, 건강인식, 개인개발 등 6개 유형으로 나누었다.

김기현·이진희(2019)는 중문관광단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선택속성 관련한 연구에서 문화

레저형, 실속형, 자아충족형, 활동형, 전통보수형, 사교형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김병직·양위주(2020)는 섬 관광 선택속성 대한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여가추구, 쾌락추구, 실용추구, 체험추구형으로 나누었고, 오동건(2022)은 와인 선택속성과 와인 관여도에 대한 라이프스타일을 유행추구형, 건강추구형, 미식추구형, 간편추구형, 절약추구형, 안전추구형 등 6개로 도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상기와 같이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김성연, 2018; 김병직 외, 2020; 유순호 외, 2020; 김정서·이결재, 2021; 오동건, 2022; Ocampo 외, 2020; Yang 외 2022 등)에서 도출된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사람들이 느꼈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두려움, 활동의 제한, 물가상승 그리고 더 안정적인 생활을 취하려고 했던 점들을 고려하여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건강추구형, 활동추구형, 보수추구형, 실용추구형 등 4개로 유형화하였다.

〈표 2-3〉 라이프스타일 유형 분류

연구자	유형
신현호(1999)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유행추구요인, 문화예술요인, 사회적교류요인, 현대적감각요인, 보수성향요인, 쾌락성향요인 등 5개 유형
장양례(2005)	노인여행자시장 라이프스타일 세분화 연구에서 건강관심형, 독립형, 현실형, 진보형, 개방형, 보수형, 계획형, 적응형, 사교형으로 9개 유형
이윤섭(2006)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회지향성, 일지향성, 문화추구형, 여가지향성 등 5개 유형
백승현(2007)	해양스포츠관광에 대한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을 일상탈출, 휴식, 오락, 유행추구, 사회지향성, 가족중심, 자아탐구, 성취, 경쟁, 가치표현, 건강추구, 스포츠 등으로 12개 유형
하정순(2007)	실버타운 선호속성에 대한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을 진취지향성, 검소지향성, 물질지향성, 환경보존지향성, 합리지향성 등 5개 유형
이원갑(2008)	한국음식 중 약선음식 관련한 라이프스타일을 웰빙, 미식, 안전, 실속 4개 유형
영기·홍영호(2011)	특수목적지 관광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사회추구형, 전통추구형, 위락추구형, 여가추구형, 건강추구형 등 5개 유형
Chen 외(2014)	대만 현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웰니스 관광과 관련된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사회 접촉, 건강한식단, 여행, 휴가, 전체적인 성취도, 피트니스, 환경보호 등 7개 유형
왕결·염진철(2015)	실버관광객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자기관리추구형, 활동개성추구형, 가치추구형, 문화추구형, 여가추구형 등 5개 유형
Lee 외(2015)	음식관광 관련 연구에서는 슬로푸드(slow food)운동 회원과 비회원을 대상으로 여행 라이프스타일을 친근함과 편안함을 선호, 새로운 지역 문화에 관심, 활동 및 모험선호형 3개 유형
문혜진(2017)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관련한 연구에서 유행추구, 건강추구, 편의추구, 시각추구, 합리성추구, 미각추구 등 6개 유형
김성연(2018)	웨딩이벤트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개성도전지향형, 외모관리지향형, 여가활동지향형, 매체활용지향형, 보수전통지향형 5개 유형
노혜득(2018)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관광경험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을 미래적개발추구, 가정적여유추구, 외형적여가추구, 사회적교류추구, 건강추구형 등 5개 유형
강하연(2019)	디지털카페 이용객 대상 식생활 습관 등과 관련한 라이프스타일을 건강추구형, 미각추구형, 유행추구형, 편의추구형, 경제추구형, 안전추구형 등 6개 유형
Težak Damijanac(2019)	웰빙관광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다이어트, 사회적상호작용, 문화적다양성, 피트니스, 건강인식, 개인개발 등 6개 유형
김기현·이진희(2019)	중문관광단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선택속성 관련한 연구에서 문화레저형, 실속형, 자아충족형, 활동형, 전통보수형, 사교형 등 6개 유형
김병직·양위주(2020)	섬관광 선택속성 대한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여가추구, 쾌락추구, 실용추구, 체험추구형 등 4개 유형
오동건(2022)	와인선택속성과 와인관여도에 대한 라이프스타일을 유행추구형, 건강추구형, 미식추구형, 간편추구형, 절약추구형, 안전추구형 등 6개 유형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표 2-4〉 라이프스타일 유형 도출

연구자	라이프스타일 유형 도출			기타 라이프스타일 유형
장양례(2005)			계획형	건강관심형, 독립형, 현실형, 진보형, 개방형, 적응형 외
이상태(2005)			보수성취/개발형	사전준비형, 문화추구형, 여가활동형, 안전추구형 외
하정순(2007)			합리지향성	진취지향성, 검소지향성, 물질지향성, 환경보조지향성 외
소상록·이현재(2009)		여가추구생활형		적극소비생활형, 자기중심생활형, 안정건설생활형
전찬수·임기태(2009)			보수주의형	가족중심형, 여가문화형, 외적활동형, 개인주의형 외
영기·홍영호(2011)			전통추구형	여가추구형, 건강추구형, 사회추구형, 위락추구형
정용주·황지윤 외(2012)			보수적리더지향	패션지향, 노력지향, 건강지향, 브랜드지향, 물질지향 외
Chen 외(2014)	건강한식단			사회적접촉, 전체적 성취도, 피트니스, 환경보호 외
Lee 외(2015)		활동및모험선호		친근함과 편안함 선호, 새로운지역문화 관심
조성규·최규환(2016)		외적활동지향		여가문화지향, 개인주의지향, 가족지향, 쾌락지향
문혜진(2017)	건강추구		합리성추구	유행추구, 편의추구, 시각추구, 미각추구
김성연(2018)		여가활동지향	보수전통지향	건강추구, 개성도전지향, 외모관리지향, 매체활용지향
김재곤(2018)		여가문화추구형		사회지향형, 자아중심형, 가족중심형
노해득(2018)		사회적교류추구		미래적개발추구, 가정적여유추구, 외형적여가추구
강하연(2019)	건강추구형			미각추구형, 유행추구형, 편의추구형, 안전추구형, 경제추구형
김도윤(2019)	건강추구형			유행추구형, 미각추구형, 경제추구형
김경환(2019)	건강추구형			미각추구형, 편의추구형, 경제추구형
김기현·이진희(2019)		활동형	전통보수형	문화레저형, 자아충족형, 실속형
진쟁·이진희(2019)				개성추구형
Težak Damijanac(2019)	건강인식/피트니스			사교활동형, 문화추구형, 유행추구형, 보수안정형
김병직·양위주(2020)		여가추구		실험추구, 쾌락추구
유순호·채선영 외(2020)		활동추구형	전통추구형	적극추구형, 안정추구형
왕결·조우제(2021)	자기관리추구형			활동개성추구형, 가치추구형, 문화추구형, 여가추구형
오동건(2022)	건강추구형			미식추구형, 간편추구형, 절약추구형, 안전추구형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3. 라이프스타일(lifestyle) 측정과 분석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을 측정하는데 라이프스타일을 하나의 항목이 아닌 잠재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이프스타일 측정을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 수 있어서 주로 상업적 시장조사기관에 의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Zins, 1993). 우리나라에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분석은 중앙일보와 동양방송에 의해 1975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으로 1977년 제일기획에서 서울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심성욱·박종민, 2004). 대부분의 분석 목적은 구매 행동 습관을 나타내는 2차원의 심리묘사적 변수에 대해 사회적 범위에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 표적 집단을 찾아내는 것이었다(이운섭, 2006).

라이프스타일 분석 방법은 크게 거시적 방법과 미시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채서일, 1992). 거시적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Yankelovich Monitor 조사와 Standard Research Institute의 사회 예측조사가 있고 미시적 방법으로는 라이프스타일의 이해를 통해 사회를 세분화해 보고자 하려는 취지로 거시적 방법과 달리 특정 제품의 소유 및 사용 여부, 욕구의 정도 또는 기대효용 등을 라이프스타일 규정 변수로 보고 소비자 집단을 세분화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채서일, 1992; 남승규, 2006). 또한, 접근 방법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분석 방법은 AIO 접근방법, Social Trend 접근방법, Value 접근방법 및 통합적 접근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김재휘, 1999).

이중 AIO 접근 방법은 Wells 외(1971)가 제창한 초기의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분석 방법이다. A(Activities)는 개인의 활동 사항으로 일과 취미 또는 휴가 등을 나타내며 I(Interests)는 개인의 관심 사항으로 가족과 일, 지역사회 또는 신앙 등에 관한 것이고 O(Opinions)는 개인의 의견 사항으로 자신과 사회적 문제 또는 정치·경제 등에 관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기에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품에 대한 소비방식을 검토하는 방법이다(채서일, 1992; 남승규,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는 데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운섭, 2006)으로 관광객의 일상 활동, 주변 사물에 관한 관심, 사회적·개인적 문제 등에 대한 의견 파악을 통해 사회적·문화적 영향과 관계집단, 가족들의 영향과 개성, 가치, 기준 등을 유추할 수 있는 AIO(Activities, Interests, Opinions) 접근방법(Wells 외, 1971; 하대용·민성기, 2003; 김훈, 2005; 이진희, 2008)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측정을 위해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기존 선행 연구를 토대로 도출한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느꼈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두려움, 활동의 제한, 물가상승 그리고 더 안정적인 생활을 취하려고 했던 점들을 고려하여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건강추구형, 활동추구형, 보수추구형, 실용추구형 등 4개로 유형화하고 총 17개의 관련 항목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건강추구형은 선행연구(백승현, 2007; 이원갑, 2008; Chen 외, 2014; 문혜진, 2017; 김도윤, 2018; 강하연, 2019; 김경환, 2019; Težak Damijani, 2019; 왕결 외, 2021; 오동진, 2022 등)를 토대로 건강한 삶에 중점을 두고 건강에 좋은 운동과 음식 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유형으로 정의하여 '건강 관련 정보에 관심', 건강 유지를 위해 규칙적 운동', 건강식품(자연, 유기농) 이용', '비만을 고려한 식생활' 등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활동추구형은 선행연구(이운섭, 2005; 권미영, 2008; 전정원, 2008; 소상록 외, 2009, 조성규 외, 2016, 김성연, 2018; 노해득, 2018; 김재곤, 2018; 김기현 외, 2019; 유순호 외, 2020; 김병직 외, 2020 등)를 토대로 각종 모임 활동과 여행 및 레저활동 등 외부활동에 적극적이며, 새로운 모험을 선호하는 유형으로 정의하여 '휴가 시 여행이나 레저활동 즐김', '친구, 동창회, 직장 모임 적극적', '새로운 모험 및 사람 만남 선호', '미술관, 전시관, 영화 감상 좋다', '스포츠 관람보다 참여'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보수추구형은 선행연구(이상태, 2005; 전찬수 외, 2009; 영기 외, 2011; 정용주 외, 2012; 김성연, 2018; 유순호 외, 2020 등)를 토대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사회적 관습에 맞추어 규칙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려는 유형으로 정의하여 '어른들 앞에서 담배 피는 것은 나쁘다', '사회적 관습에 맞춰서 생활', '새로운 변화보다 안정된 생활', '유행보다 클래식한 스타일 선호' 등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실용추구형은 선행연구(장양례, 2005; 하정순, 2007; 문혜진, 2017; 김재곤, 2018; 김기현 외, 2019; 진쟁 외, 2019; 김병직 외, 2020 등)를 토대로 여행을 하거나, 물건 등 구매 시 사전에 계획을 잘해서 비용 지출에 대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유형으로 정의하여 '여행할 때 미리 계획을 짜고', '관광지, 숙박 선택 시 실용성 우선', '여러 회사 제품 비교 구매', '이벤트(가격할인) 기간 물건을 구매' 등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이 정리한 라이프스타일 유형별로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라이프스타일 관련 선행

연구(이운섭, 2006; 전정원, 2008; 유순호 외, 2020; 조성규 외, 2016; Lee 외, 2015; 전찬수, 2009; 영기 외, 2011; 진쟁 외, 2019; 문혜진, 2017 등)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항목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으며 척도 1은 '전혀 아니다.', 척도 2는 '아니다', 척도 3은 '약간 아니다.', 척도 4는 '보통이다', 척도 5는 '약간 그렇다.', 척도 6은 '그렇다', 척도 7은 '매우 그렇다'를 기준으로 하였다.

4. 라이프스타일(lifestyle) 관련 선행연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국외 여행 제한 등의 제한적인 각종 방역 정책으로 소비행동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Wen 외, 2021). 특히 관광 분야에서도 새로운 여행 패턴으로 개별여행 또는 소그룹 여행, 자연에 기반한 여행 등 다양한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Rahman 외, 2021).

채서일(1992)은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가 단편적으로만 이뤄진 아쉬운 현실적 측면을 배경으로 해서 라이프스타일을 크게 8개의 부문으로 구분하고 다시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눈 뒤 군집으로 재분류하여 최종 인구통계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이운섭(2006)은 관광객은 관광을 통하여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게 되므로 관광객들의 목적지 선택행동이 가치 지향적이라는 판단하에 라이프스타일이 어떤 관광지 속성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 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여가지향성, 문화추구형, 일지향성 순서로 선택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충효·서원석·이순구(2008)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여행상품 선택에 대한 위험지각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을 자기완성형, 여성적성향추구형, 자기외형중시형 3개의 군집으로 나누고 이들과 위험지각의 차이분석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선영·김형곤(2009)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관광객의 행동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각 개인의 행동 태도에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로 정의하고 '헤이리 판 페스티벌' 축제 참가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3가지로 군집분석 하여 축제 경험에 따라 군집 간 만족도와 충성도가 변화하는 것을 규명하였다.

개별여행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이서요·이태희(2015)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5개 군집으로 나누고 만족도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가족주도여가문화추구형 집단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연(2018)은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웨딩이벤트 선택속성에 대한 연구에서 현대사회로 오면서 소비자의 욕구 수준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독특하고 차별화된 웨딩이벤트를 찾는다고 하였으며 분석 결과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웨딩이벤트 선택속성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유럽방문 여행객의 라이프스타일과 관광지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김현·박제운·장호성(2019)은 5개의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고 라이프스타일 군집간 선택속성 차이 분석에서 안락성과 시설 및 편의성 요인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승엽·김용일·남장현(2022)은 단백질 음료 소비자를 대상으로 건강 라이프스타일이 만족도 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하고 건강 라이프스타일 하위요인을 건강에 대한 자신과 민감형, 건강의지, 식습관 등 4가지로 설정했으며 만족도에 대한 영향 관계 분석 결과 모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관광지 선택에 대한 연구에서 정규선(2022)은 코로나19 심리적 변수 중 '순응심리'는 라이프스타일의 건강추구, 가치추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이탈심리'는 가치추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다. 김문순·정복미(2021)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기에 식생활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코로나19 시대에 특히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수진(2022)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탐색 연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위기적 상황이기도 하지만 적절한 대응으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였고 생활의 즐거움에 관한 만족도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했으며 교우관계 및 커뮤니티 등 사회와의 연결에 관한 만족도가 그 뒤를 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생활의 즐거움에 관한 만족도 회복이 더딤을 보여주었다.

Wen 외(2021)는 중국 시가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패션 라이프스타일이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관광객의 관광지 선택은 자아개념과 연결되어 있어 라이프스타일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행자는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일치하는 목적지를 방문하게 된다고 하였다. Vargas 외(2021)는 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 세분화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은 삶의 방식을 특징짓는 일련의 활동, 관심사 및 의견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로 연구자들은

라이프스타일, 문화적가치, 동기, 성격 같은 심리학적 변수를 사용하여 세분화하는 것이 관광객 간 차이를 구분하는 데 적합하다고 하였다.

Chamba 외(2021)는 에콰도르 푸양고주 관광매력 평가 연구에서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분야의 다기준 평가 연구로 새로운 사회와 문화, 라이프스타일 변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했으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라이프스타일이 사회적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특히 관광 분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상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시대마다 변화하는 가치관, 관심사 등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변화는 있지만 결국 소비자 또는 관광객들의 행동 변화의 세분화를 통해 개인행동들을 예측하고자 하는 마케팅 측면이 중요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발병 후에는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관광지 선택 등 관광 행동의 중요한 변인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절 위험지각 (Risk perceptions)

1. 위험지각(risk perceptions) 개념

국립국어원에서는 ‘위험’에 대한 개념을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또는 그런 상태이고 ‘지각’에 대해서는 알아서 깨닫거나 또는 그런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국립국어원, 2023). 박정준·박진영(1997)은 위험지각의 개념을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결과가 불확실하여 소비자들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영근(2022)은 위험(risk)이란 손해의 가능성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17세기 들어 독일어와 영어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여 본래 ‘먼바다와 새로운 대륙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모험을 위한 여행’이라는 의미라 했으며, 김영우(2004)는 위험지각을 대다수의 개인이 특별한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 구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부정적인 결과, 즉 손실, 위험 등의 가능성을 말하였다.

한영권(2006)은 위험지각에 대해 인간의 삶은 순간마다 크든 작든 위험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에 일반적으로 잠재 여행자가 여행상품 구매 선택 시 자각하게 되는 위험이라 했고, 허지현(2007)은 원래 위험의 개념은 1920년대 경제학자 Knight(1921) 연구에서 논의된 이래 재무학, 행동과학, 심리학 분야에서 의사결정이론으로 널리 연구가 되었다고 했으며, 강혜숙(2007)은 소비자의 위험지각은 전통적인 거래와 인터넷 거래 모두에 있어 항공권 선택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 선택에 관한 결정이 야기 될 수 있는 잠재적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처음으로 위험지각 개념을 제시했던 Bauer(1960)도 위험지각은 주관적으로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으로 불확실성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했다(지영근, 2022). 이러한 위험지각은 마케팅 분야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고객들은 미래 자신의 구매 결정에 대하여 완전히 확신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지각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관광 분야에서 방문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고 있다(최원실·김현노·김경량, 2017).

관광 분야에서의 위험지각은 관광목적, 대상, 목적지, 시기, 상황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먼저 일반적인 관광과 관련해서는 노성환·이창기(2021)는 위험지각을 관광객이 관광 의사

결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손실에 대한 지각하는 심리적 위험이라 했고, 임명재(2022)는 관광위험지각에 대해 관광 활동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정의했다. 이경민(2021)은 지각된 위험을 관광객이 관광상품을 구매할 때 선택의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기대 손실을 부정적으로 감지하는 것으로 했으며, 김성태·김진동(2020)은 관광 활동과 관련한 선택 또는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효용을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의료관광의 잠재적 여행자가 지각하는 위험 유형은 건강, 정치적, 범죄, 문화적 장벽, 낮은 음식,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위험 요소라 하였다(이희열, 2011). 김현정(2019)은 의료관광에 대한 지각된 위험을 성과적, 재무적, 사회적, 심리적, 시간적, 신체적 위험 등 전통적인 위험과 법적 위험을 추가로 고려해야 할 위험이라 했고 의료관광의 전반적인 위험은 이러한 7가지 위험을 종합하여 의료관광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직면하게 되는 결과의 불확실성과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하였다.

셋째, 국외 관광 관련으로 박세준(2016)은 위험지각에 대해서 태국을 방문할 잠재자가 지각하는 태국의 일반적 위험에 대한 평가로 정의했고, 김우정(2022)은 코로나19 시기 중으로 국외 관광 위험에 대해서 국외 관광 도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피해나 손실이라 했으며, 윤성필(2022)은 해외여행에 대한 위험지각을 범죄적, 질병적, 사회적, 안전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해외여행 목적지의 부정적 영향을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넷째,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각하는 위험을 왕남·이가희·유승동·윤덕인(2015)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관광목적지에 대한 주관적인 불확실성 지각으로 성과적, 재무적, 심리적 위험으로 정리하였다. 손애화(2018)는 지각된 위험은 다차원 개념으로 재무위험, 성능위험, 사회위험, 심리 및 시간 위험의 차원을 구분하였고, 진미안·김남조(2022)는 중국인 잠재관광객이 한국 관광에 대하여 지각되는 신체적, 사회심리적, 질병 위험이라고 했다.

다섯째,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한 질병, 전염병 등에 대한 위험지각을 최영진(2021)은 관광 활동과 관련하여 질병 등이 발생할 가능성과 질병이 발생하면 피해의 심각성에 대하여 관광객이 느끼는 근심과 걱정이라 했다. 김정서·이걸재(2021)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지각이라 설명했고, 김혜진(2021)은 전염병 상황 속에서 인지되는 심리적 위험, 경제적 위험, 신체적 위험, 사회적 위험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을 지각된 위험이라 했으며, 조용진·박정하(2022)는 관광목적지의 질병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관광 활동을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 외 항공과 관련하여 정혜련(2011)은 저비용 항공사의 위험지각을 저비용 항공사를 이

용하려는 고객이 구매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인지하는 위험이라 정의라 했으며, 음식관광 관련 정지연(2019)은 위험지각을 관광지에서 음식과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손실에 대한 걱정과 우려로 정의했고, 크루즈 관광 관련으로 유다중(2021)은 크루즈 관광 잠재수요자가 크루즈 관광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을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소비자행동과 관련된 오종철·이유선·김재홍(2022) 연구에서 소비자의 위험지각을 객관적 위험과 확률적 위험으로 구분하고 소비자가 브랜드, 상점, 구매방식 등 소비과정에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위험으로 정의했으며 소비자 대부분은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불확실성과 구매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인지하면서 각기 다른 구매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상기 선행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은 여러 번의 소비행동 경험과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경험과 각종 매체 등의 정보를 통해서 위험에 대해 예측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경험과 정보에 따라 지각하는 위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불확실성의 위험을 인지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행동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구매 행동으로 위험에 대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국외 선행연구에서 Slovic 외(1982)는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직감으로 위험 상황을 판단하여 지각하는 것을 위험지각이라 했고, Roehl 외(1992)는 일반적으로 실제 위험과 지각된 위험은 다를 수 있으며 관광객들은 현실보다 인식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하였다. Jarvenpaa 외(2000)는 특정한 어떤 행위를 할 때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될 위험 가능성에 대한 지각하는 정도라고 보았다. Laws 외(2005)와 Glaesser(2006)는 행동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건의 가능성으로 위험을 정의했지만, Mansfeld(2006)와 Reichel 외(2007)는 지각된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서 여행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의 전반적인 부정성을 여행자가 인식하는 것으로 말하였다.

관광상품의 경우 일반 소비재와 달리 위험지각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관광객이 지각하는 위험이 허용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광객들은 관광상품 구매, 소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Assael, 1995; Mitchell, 1999). 이러한 소비자의 행동은 실제 경험을 통해 지각한 위험보다 심리적으로 위험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향이 있는데 국내 여행보다는 정보가 부족해서 심리적 위험지각 가능성이 큰 해외여행에 있어서 위험지각은 관광 행동 의도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이 될 수 있다(Zhang 외,

2020).

특히, 전 세계적으로 테러의 발생, 정치적 불안정, 종교적 갈등, 질병 및 자연재해 등 2000년대 이후 여행 및 관광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다양해 짐에 따라 위험지각에 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Rittichainuwat 외, 2009).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보호동기 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 관련한 연구 중 Hotle 외(2020) 연구에 따르면 개인은 목적지에 대한 중간 또는 높은 위험 정도에 따라 여행을 줄일 수밖에 없다 하였고, Parady 외(2020)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을 느끼는 만큼 집에서 머물 확률이 올라가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여행을 떠날 빈도는 떨어진다고 하였다.

관광위험 인식은 일반적으로 관광 활동 결과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잠재적 손실이며(Roehl 외, 1992; Sönmez 외, 1998), 관광목적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불확실하고 통제 가능성이 낮은 경우 위험지각 정도가 높아지게 된다(Floyd 외, 2004).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관한 연구(Nazneen 외, 2020; Neuburger 외, 2020)에서도 팬데믹 기간 관광객의 건강 위험 인식이 증가하여 개인의 여행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여행 및 관광의 맥락에서 인지된 심각도가 높을수록 건강 예방 행동과 낮은 여행 의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Brewer 외, 2007; Champion 외, 2008; Das 외, 2020; Huang 외, 2020).

상기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위험지각에 관한 연구는 초기 경제학, 재무학, 행동과학, 심리학 분야에서 다뤄지다가 점차 소비행동과 관련된 마케팅 분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위험지각 또한 앞서 언급한 라이프스타일 세분화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들을 예측하고자 하는 마케팅 측면과도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다양한 위험지각 요소들을 찾아내고 연구하고 예측함으로써 지방정부와 관광업 관련 기업들 입장에서는 위험지각에 대한 인식을 낮출 수 있는 여러 대응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위험지각을 '제주 관광에 대한 위험지각으로 관광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 신체적, 경제적 위험에 노출될 두려움과 그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2-5〉 위험지각에 대한 국내 연구자의 개념

연구자	개념
김영우(2004)	위험지각은 관광동기에 의해 여행을 선택한 관광객이 여행상품 소비행동에서 나타내는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지각을 의미하며, 관광객의 관광지 선택의 전과 후에 따라 측정할 수 있음.
한영권(2006)	여행상품 구매 선택 시 잠재 여행자가 자각하게 되는 위험으로 기능적위험, 금전적위험, 신체적위험, 사회심리적위험, 시간손실위험으로 분류 가능함.
허지현(2007)	관광위험지각은 관광상품 구매 행동에서 나타나는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지각을 의미함.
강혜숙(2007)	소비자 위험지각은 전통적인 거래와 인터넷 거래 모두에 있어 항공권 선택속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 선택에 관한 결정이 야기 될 수 있는 잠재적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이희열(2011)	의료관광의 잠재적 여행자가 지각할 수 있는 위험 유형들은 건강, 정치적, 범죄, 문화적 장벽, 낮은 음식, 서비스 수준, 물리적, 법률에 대한 위험 요소로 분류할 수 있음.
손애화(2018)	지각된 위험은 다차원의 개념으로 지각된 위험의 차원을 재무위험, 성능위험, 물적 위험, 사회위험, 심리위험 및 시간위험 차원으로 구분함.
민경애(2020)	위험지각은 관광지에서 음식과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손실에 대한 걱정과 우려임.
유다중(2021)	위험지각은 크루즈관광 잠재수요자가 크루즈관광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임
김혜진(2021)	지각된 위험은 전염병 상황 속에서 인지되는 심리적 위험, 경제적 위험, 신체적 위험, 사회적 위험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임.
권해윤(2021)	위험지각은 관광지에서 어떤 위험한 사건·사고가 일어나거나 어떤 불확실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임.
김정서·이걸재(2021)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지각으로 정의함.
최영진(2021)	질병 위험지각에 대해 관광 활동과 관련하여 전염병 등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과 질병이 발생하면 피해의 심각성에 대하여 관광객이 느끼는 근심과 걱정임.
김우정(2022)	국외 관광 위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광객들이 국외 관광 도중 코로나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피해나 손실로 정의함.
지영근(2022)	특정 상황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신변 위험성 지각의 정도임.
임명재(2022)	관광위험지각은 관광활동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임.
조용진·박정하(2022)	지각된 위험지각을 관광목적지의 질병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관광활동을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함.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표 2-6〉 위험지각에 대한 국외 연구자의 개념

연구자	개념
Bauer(1960)	위험지각이란 소비자가 브랜드와 가게 선택 그리고 구매방식의 선택 등과 같은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위험의 정도임.
Slovic 외(1982)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직감으로 위험 상황을 판단한 것임.
Roehl 외(1992)	관광위험 인식은 일반적으로 관광 활동 결과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잠재적 손실임.
Jarvenpaa 외(2000)	특정 행위를 할 때 예측 못 한 결과가 도출될 위험 가능성에 대한 지각 정도임.
Floyd 외(2004)	관광목적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불확실하고 통제 가능성이 낮은 상태임.
Mansfeld(2006)	지각된 위험은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서 여행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의 전반적인 부정성을 여행자가 인식하는 것임.
Chew 외(2014)	관광지 혹은 각종 관광 서비스에서 소비자인 관광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지각임.
Parady 외(2020)	보호 동기 이론에 따르면 위험의 심각도에 대한 평가는 보호 행동을 하겠다는 결정 뒤에 있는 인지 과정 중 하나임.
Sánchez 외(2021)	위험 인식을 여행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으로 정의함.
Saidmamatov 외(2021)	관광의 위험인식은 특정 목적지 여행 서비스의 구매와 소비에 대한 우려이자 심리적 영향임.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2. 위험지각(risk perceptions) 구성요인

위험지각 요인과 관련한 연구는 국내·외 여러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연구자들은 주로 관광객의 관광목적에 맞는 항공선택, 음식관광, 의료관광, 컨벤션참가, 섬관광, 축제참가, 스쿠버다이빙관광, 농촌관광, 호텔이용 시 등 여러 관광상품을 선택하여 참가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의 위험지각과 중국 관광객이 한국 관광 시에 지각하는 위험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 코로나19 상황에서 관광환경과 관련한 관광객들이 인식

하는 질병, 전염병 등의 위험지각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내·외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위험지각에 대한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김영우(2004)는 내국인 해외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위험지각에 따른 관광 전후 행동 연구에서 위험지각을 시설 및 기능, 신체적, 환경적, 정치적, 교통안전, 금전적 위험 6개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한영권(2006)은 여행상품 선택 시 잠재 여행자들이 지각하게 되는 위험을 기능적, 금전적, 신체적, 사회심리학적, 시간손실 위험 등 5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국내 잠재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위험지각이 관광행동선호 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허지현(2007)은 기능설비적, 사회심리적, 신체적, 테러전쟁, 전염병, 자연재난, 관광 전반에 걸친 불안감 등 위험지각을 7개 요인으로 나누었고, 강혜숙(2007)은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국외 항공권 구매와 관련한 위험지각 연구에서 브랜드중시 및 정보위험과 가격비교 및 지불수단 위험지각 2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박희자(2009)는 약선음식에 대한 위험지각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위험지각을 시간적, 기능적, 신체적, 재무적, 사회적 위험 등으로 5개 요인을 도출하였고, 이희열(2011)은 잠재적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위험지각, 국가이미지, 방문의도 등에 관한 연구에서 병원에 대한, 의사에 대한, 사고에 대한 위험으로 위험지각을 분류하였다.

저비용항공사 선택속성과 위험지각에 대한 연구에서 정혜련(2011)은 심리신체적, 기능성과적, 시간적, 재무적 위험 등 4개 요인으로 위험지각을 구분했고, 박세준(2016)은 태국의 컨벤션에 참가할 잠재적 방문자들의 위험지각으로 신체적, 재정적, 시설안전, 사회심리적 위험 등 5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김은진·유현경 외(2016)는 MICE 목적지에 대한 위험지각 관련 연구에서 기능적, 시간손실, 물리적환경적, 사회심리적 위험 등 5개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조승아·김상운(2018)은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관광위험지각이 위험 감소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위험지각을 안전사고위험과 보건환경위험으로 분류했다.

손애화(2018)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각하는 한국 관광 시 위험에 대해서 안정적, 경제적, 언어적, 정치적, 문화적 위험지각 등 5개 요인을 도출하였고, 음식관광과 관련한 연구에서 정지연(2019)은 관광지 음식에 대한 위험지각을 의사소통, 사회심리적, 신체적 위험 등 3개로 구분하였으며, 남은경(2020)은 우리나라 잠재 북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북한 관광의 지각된 위험에 관한 연구에서 신체적, 시설기능적, 금전적, 심리적위험 등 4개로 분류하였다.

섬 관광에 대한 위험지각 연구에서 이진의(2020)는 위험지각 요인을 재정적, 사회심리적,

기능적, 시간적, 기술적, 신체적 위험 등 6개로 구분했고, 콰초(2020)는 중국 관광객들의 지각된 위험과 만족도 등에 관한 연구에서 심리적, 성과적, 재무적, 시간적위험 등으로 위험지각 요인을 4개로 도출하였으며, 민경애(2020)는 지역축제 위험지각에 대해 축제 음식 위험지각으로 1개 요인을 도출하여 연구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위험지각 관련 연구 중 이경민(2021)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성인 대상으로 잠재관광객의 감염병 인식이 지각된 위험 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경제적, 신체적, 사회심리학적, 시간손실 위험 등 5개로 분류하였고, 유다중(2021)은 크루즈 잠재관광객을 대상으로 위험지각을 신체적, 재정적, 시간손실, 사회적위험 5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김혜진(2021)은 관광위기와 위험지각 등과 관련 관광행동의도 연구에서 전염병 위험지각으로 전염병에 대한 심각성, 전염병 위험평가, 전염병에 대한 지각된 인지, 전염병에 대한 대응조치 부정적 반응 등 4개로 나누었고, 최영진(2021)은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행동의도와 지각된 질병위험 영향 관계에서 전염병 위험지각으로 지각된 위험가능성과 지각된 위험심각성으로 구분하였다.

김우정(2022)은 해외 잠재여행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기에서 국외 관광위험지각을 재정적, 신체적, 사회적 위험 3가지 요인을 도출했고, 지영근(2022)은 관광지 선택속성과 관련한 코로나19 위험지각을 지각된 전염성과 지각된 심각성으로 구분했다. 김지영(2022)은 감염병(코로나19)과 관광위험지각 태도 모델 관련된 연구에서 위험지각 태도를 지각된 위험과 효능감으로 나누었고, 임명재(2022)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관광위험지각을 신체적, 사회적, 성과적 위험 등 3개 요인으로 도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밖 외 국외 선행연구 중 Parady 외(2020)는 일본의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위험인식과 관련 연구에서 위험인식을 1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Ertaş 외(2022)도 코로나19 동안 관광객의 위험인식과 행동의도 연구에서 1개 요인으로 구분했다. 또한, Sánchez 외(2021)도 스페인의 잠재여행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인지된 위험이 여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위험인식 1개 요인으로 구분해서 연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관광객의 위험인식이 여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Saidmamatov 외(2021)는 위험지각을 코로나19와 관련된 건강위험, 심리적위험, 재정적위험, 여행지위험 등 5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Rahman 외(2021)는 코로나19 전염병이 관광여행 위험 및 관리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위험인식을 코로나19 팬데믹, 여행위험 및 관리인식, 위기관리 요인으로 분류했으며, Parasakul(2023)은 태국 관광위험에 대한 중

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험지각을 사회적, 만족, 성능, 물리적, 정치적·재정적 위험 등 5개 요인으로 도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상기와 같이 위험지각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김정서·이결재, 2021; 구원일, 2022; Han 외, 2022; Saidmamatov 외, 2022; Parasakul, 2023 등)에서 도출된 위험지각 요인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사람들이 느꼈던 건강에 대한 걱정, 감염에 대한 두려움, 활동의 제한, 경제적 불안 등의 문제점 들을 고려하여 위험지각 요인을 코로나위험, 신체적위험, 경제적위험 등 3개로 구분하였다.

〈표 2-7〉 위험지각 구성요인

연구자	구성요인
김영우(2004)	내국인 해외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위험지각에 따른 관광 전후 행동 연구에서 위험지각을 시설및기능, 신체적, 환경적, 정치적, 교통안전, 금전적위험 6개 요인
한영권(2006)	여행상품 선택 때 잠재 여행자들이 지각하게 되는 위험을 기능적, 금전적, 신체적, 사회심리학적, 시간손실 위험 등 5개 요인
허지현(2007)	국내 잠재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위험지각이 관광행동선호 등 관련 연구에서 기능설비적, 사회심리적, 신체적, 테러전쟁, 전염병, 자연재난, 관광전반에 걸친 불안감 등 위험지각을 7개 요인
정혜련(2011)	저비용항공사 선택속성과 위험지각 관련 연구에서 심리신체적, 기능성과적, 시간적, 재무적 위험 등 4개 요인
박세준(2016)	태국의 컨벤션에 참가할 잠재적 방문자들의 위험지각으로 신체적, 재정적, 시설안전, 사회심리적 위험 등 5개 요인
조승아·김상운(2018)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관광위험지각과 위험 감소 행동 관련 연구에서 위험지각을 안전사고위험과 보건환경위험 2개 요인
정지연(2019)	관광지 음식에 대한 위험지각을 의사소통, 사회심리적, 신체적 위험 등 3개 요인
남은경(2020)	잠재적 북한관광객을 대상으로 북한관광의 지각된 위험에 대한 연구에서 신체적, 시설기능적, 금전적, 심리적위험 등 4개 요인
이진의(2020)	섬관광에 대한 위험지각을 재정적, 사회심리적, 기능적, 시간적, 기술적, 신체적 위험 등 6개 요인
곽초(2020)	중국관광객들의 지각된 위험을 심리적, 성과적, 재무적, 시간적위험 등으로 위험지각 등 4개 요인
이경민(2021)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잠재관광객의 감염병 인식이 지각된 위험 등 관련 연구에서 경제적, 신체적, 사회심리학적, 시간손실 위험 등 5개 요인
김우정(2022)	해외 잠재여행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시기에서 국외 관광위험지각을 재정적, 신체적, 사회적 위험 3가지 요인
김지영(2022)	감염병(코로나19)과 관광위험지각 태도 모델 관련 연구에서 위험지각 태도를 지각된위험과 효능감 2개 요인
임명재(2022)	코로나19 상황에서 관광위험지각을 신체적, 사회적, 성과적 위험 등 3개 요인
Parady 외(2020), Ertaş 외(2022)	코로나19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위험인식 1개 요인
Sánchez 외(2021)	스페인의 잠재여행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인지된 위험 관련 연구에서 위험인식 1개 요인
Saidmamatov 외(2021)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관광객의 위험인식 관련 연구에서 위험지각을 건강위험, 심리적위험, 재정적위험, 여행지위험 등 5개 요인
Rahman 외(2021)	코로나19 전염병이 관광여행 위험 및 관리 인식 영향 연구에서 위험인식을 코로나19 팬데믹, 여행위험 및 관리인식, 위기관리 등 3개 요인
Parasakul(2023)	태국 관광위험에 대한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위험지각을 사회적, 만족, 성능, 물리적, 정치적·재정적 위험 등 5개 요인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표 2-8〉 위험지각 요인 도출

연구자	위험지각 요인 도출			기타 위험지각 요인
류인평·김영주(2011)		신체적위험	금전적위험	기능적위험, 심리적위험
노재현(2013)	건강상위험		경제적위험	시설적위험, 사회문화적위험, 신변상위험
오정미·윤영혜 외(2014)		물리적환경적위험(범죄)	경제적위험	기능적위험, 시간손실위험, 사회심리적위험
한지숙(2014)		치안위험(범죄)		건강위험
이민재·황운섭 외(2015)		관광위험(자연재해)		기후변화
김은진·유현경 외(2016)		물리적환경적위험(안전사고)	경제적위험	기능적위험, 시간손실위험, 사회심리적위험
노정희·전수현(2016)	건강적위험(식품안전)	자연재해위험/치안위험		문화적위험, 인위적재난위험, 경제적위험
박세준(2016)	시설안전위험	신체적위험	재정적위험	사회심리적위험
류재숙·김지은(2017)		신체적위험	경제적위험	기능적위험, 제도적위험, 시간및날씨위험
민용기·김상태 외(2017)		신체적위험	재정적위험	자연위험
최원실·김현노 외(2017)	사회적위험(전염병)	신체적위험	경제적위험	물리적위험
조승아·김상운(2018)	보건환경위험(먹거리 안전)	안전사고위험		
권해운(2021)	신체적위험(코로나)	신체적위험(범죄)	경제적위험	
김정서·이결재(2021)	코로나위험(감염)			
노성환·이창기(2021)	물리적위험(의료수준)	신체적위험	경제적위험	사회적위험
구원일(2022)	심리적위험(감염)	물리적위험(범죄, 사고)	재무적위험	사회적위험
조용진·박정하(2022)	코로나19위험	안전사고, 신체적위험		심리적위험
진미안·김남조(2022)	질병위험	신체적위험		사회심리적위험
Parady 외(2020), Ertaş 외(2022)	코로나19위험			
Han 외(2022)	코로나19위험			
Saidmamatov 외(2021)	건강위험(코로나)		재정적위험	심리적위험, 여행지위험
Rahman 외(2021)	코로나19팬데믹			여행위험 및 관리인식, 위기관리
Parasakul(2023)	성능위험(건강, 숙소수준)	물리적위험(재해, 범죄)	재정적위험	사회적, 만족, 정치적위험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3. 위험지각(risk perceptions) 측정

위험지각에 대한 측정도구는 기존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출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사람들이 느꼈던 건강에 대한 걱정, 감염에 대한 두려움, 활동의 제한, 경제적 불안 등의 문제점 들을 고려하여 위험지각 요인을 코로나위험, 신체적위험, 경제적위험 등 3개의 요인으로 구분하고 총 11개의 관련 항목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코로나위험은 선행연구(노재현, 2013; 노정희 외, 2016; 박세준, 2016; 민웅기 외, 2017; 최원실 외, 2017; 조승아 외, 2018; 권해윤, 2021; Rahman 외, 2021; 진미안 외, 2022; Ertas 외, 2022; Han 외, 2022 등)를 토대로 제주에서 이용하는 관광지 시설(숙박, 식당 등)의 안전과 방역 등 코로나19 감염 등의 위험성에 대해 지각하는 위험으로 정의하여 '관광지 시설(숙박,식당 등)이 안전', '의료시설 및 의료기술 수준', '관광지의 먹거리 안전', '여행 중 질병 및 감염병 위험'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신체적위험은 선행연구(류인평 외, 2011; 한지숙 외, 2014; 오정미 외, 2014; 이민재 외, 2015); 김은진·유현경 외, 2016; 노정희 외, 2016; 최원실 외, 2017; 민웅기 외, 2017; 류재숙 외, 2017; 권해윤, 2021; 노성환 외, 2021; 구원일, 2022; 진미안 외, 2022; 조용진 외, 2022; Parasakul, 2023 등)를 토대로 제주에서 교통사고 위험 또는 범죄유발과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자신의 신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 지각하는 위험으로 정의하며, '비행기, 선박 이용 시 사 고위험', '자연재해(지진,태풍) 발생 위험', '교통 및 안전 사고 위험', '강도, 폭행 등 범죄 위험'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경제적위험은 선행연구(류인평 외, 2011; 오정미 외, 2014; 김은진·유현경 외, 2016; 민웅기 외, 2017; 최원실 외, 2017; 권해윤, 2021; Saidmamatov 외, 2021; 노성환 외, 2021; 김정서 외, 2021; 구원일, 2022 등)를 토대로 제주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되거나 다른 지역보다 높은 물가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에 대해 지각하는 위험으로 정의하고 '다른 지역 대비 높은 물가', '계획보다 추가 비용 발생', '부당한(바가지) 요금' 등 3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이 정리한 위험지각과 하위요인의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위험지각 관련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항목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으며 척도 1은 '매우 그렇다', 척도 2는 '그렇

다', 척도 3은 '약간 그렇다', 척도 4는 '보통이다', 척도 5는 '약간 아니다', 척도 6은 '아니다', 척도 7은 '전혀 아니다'를 기준으로 하였다.

4. 위험지각(risk perceptions) 관련 선행연구

위험지각 관련 선행연구 중 Parady(2020)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을 느끼는 만큼 집에서 머물 확률이 올라가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여행을 떠날 빈도는 떨어진다고 하였다. 허지현(2007)은 '위험'의 개념은 경제학, 재무학, 행동과학, 심리학 분야에서 의사결정이론으로 연구가 시작되다가 1960년에 이르러 마케팅 분야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했고, 서울·경기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관광위험지각이 관광행동선호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관광위험지각이 관광행동선호의 4가지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항공 승객들의 위험지각이 선택속성과 만족도 관계 연구에서 유창근·이혜린(2014)은 항공사 이용 경험이 있는 승객 대상으로 위험지각을 신체/심리적, 기능적, 시간적, 재무적 위험 등 4개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항공사 선택속성인 기내서비스와 운항의 안정성 요인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으며, 신체/심리, 기능적 위험지각이 만족도와 관계에서도 유의한 부(-)의 영향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박정숙·이훈(2017)은 사람은 위험한 사건을 피하거나 대응하는 보호적 행동을 취하게 되는 방법을 모색해온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을 이용해 자연재해 위험지각이 관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자연재해 위험지각을 잘 인식 못하고 두려운 위험을 느낄수록 보호동기가 높아지며, 보호동기는 관광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장두영·이충기(2020)도 보호동기이론을 근거로 국내외 여행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험인식이 보호동기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보호동기이론을 적용하여 코로나19 위험인식으로 지각된 위험은 심각성, 취약성,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험지각이 호텔서비스 선택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김철원(2021)은 호텔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위험지각 요인 중 경제위험과 심리적위험 요인은 모든 호텔 선택속성과 상관관계가 유의하고 만족도와 관계에서는 심리위험 요인만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혜진(2021)은 전염병 위험지각이 관광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국내 잠재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염병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관광지 전 환의도와 위험감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연구 결과에 대해 잠재관광객이 인지한 위험 때문에 더 안전한 관광지를 옮기거나 여행하는 동안 전염병 노출에 신경을 쓰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김우정(2022)은 코로나19 시기 중 국외 관광위험지각이 관광선택속성과 관광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최근 여행경험이 있거나 여행계획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외 위험지각 중 신체적 위험은 매력요인과 서비스요인에 정(+)의 영향, 재정위험은 비용요인과 서비스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했다.

권나은·현성협(2022)은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항공기 기내식음료 서비스의 지각된 위험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지각된 위험을 신체적, 기능적, 사회적, 심리적, 금전적 위험 등 5개 요인을 구분하여 만족도와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금전적 위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각 위험 요인은 고객만족도 간 유의한 부(-)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오늘날 항공 여행에서 기내음식은 유·무상 상관없이 매우 중요한 고객만족 요인임을 설명하였다.

Saidmamatov 외(2021)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관광객의 위험인식이 여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코로나19 상황의 재정적 위험 측면에서 여행자들은 여행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음을 강조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 발생과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은 여행비용(식음료 가격 등)을 유발할 것을 우려한다고 하였고 연구 결과 재정 위험지각이 높아지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여행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김정서·이결재(2021)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지 물가 인상 및 환율변동이 걱정된다는 의미를 포함한 코로나19 위험지각이 스마트관광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코로나19 위험지각은 스마트 관광인식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rtaş 외(2022)는 코로나19 동안 터키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객의 위험인식과 행동의도 차이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위험인식이 더 높아 코로나19 동안 여행을 회피한다고 하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인식과 여행회피 행동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가 여행할 의향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Han 외(2022)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과 이후의 위험지각, 대처 및 회복이론 관련 연구에서 한국의 잠재관광객을 대상으로 위험인식 유형을 개인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지각으로 구분했고 그 결과 두 가지 위험 인식은 문제 중심 및 감정 중심 대처 전략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했으며 또한, 심리적 회복력을 통한

대처 전략이 팬데믹 기간 동안과 이후에 여행 의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Parasakul(2023)은 태국 관광위험에 대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험지각을 사회적, 만족, 성능, 물리적, 정치적·재정적 위험 등 5개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연구 결과 중국인 관광객들은 여행을 결정할 때 신체적 위험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해 가장 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상기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위험지각에 관한 연구는 초기 경제학, 재무학, 행동과학, 심리학 분야에서 다루어지다가 점차 소비행동과 관련된 마케팅 분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주로 관광목적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 위험요인들을 개선하여 관광객들 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자 또는 관광서비스 기업들에게 제안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위험지각 요인은 경쟁력 있는 관광지가 되기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향후 관광산업의 회복과 복원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절 관광지 선택속성(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

1. 관광지 선택속성(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 개념

국립국어원에서는 '관광지'에 대한 개념을 '경치가 뛰어나거나 사적(史跡), 온천 따위가 있어 관광할 만한 곳'이며, '선택'에 대해서는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음이라 하고, '속성'에 대해서는 속된 성질이라 정의하고 있다(국립국어원, 2023). 김원인·김수경(2009) 연구에서는 관광은 일상 생활권을 떠나 관광 욕구의 충족을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체재하며 자연 및 인문 관광자원 등 관광자원시설을 이용하는 일련의 경험으로 관광지 내에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통해 전반적인 경험의 만족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효중·김시중(2012)과 이경숙·전보람(2018)은 관광지에 대해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위락시설,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관광공간으로 관광자원과 관광 시설들이 한곳에 모여 있는 구역이라 하였다. 또한, 이경숙·전보람(2018)은 관광객들에 의하여 지각되어 지속적으로 이용될 때 비로소 관광지로서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하였다. 즉, 관광지는 매력적인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관광지가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조건을 관광지 속성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관광 매력물 또는 인공적·자연적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광지 속성이 중요한 이유는 관광지의 각 속성이 곧 관광 경험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동우, 1998).

선택속성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 중 신현호(1999)는 관광자는 소비자이기에 소비자 선택 행동이론을 관광자의 행동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기존 학자들은 관광 현상에 대해 목적지를 둘러싼 관광 활동으로 관광자의 행동, 태도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특히 관광지가 가지고 있는 개별 속성을 중심으로 그 관광지에 대한 선호도를 고려한 연구의 방법이 '관광지 속성이론'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이윤섭, 2006).

관광지는 관광자를 유인할 수 있는 매력과 관광자의 동기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속성들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하나의 관광지가 지니는 특이한 성질로 조합된 긍정적인 요소 또는 매력적인 요소를 관광지 속성이라 할 수 있다(최용훈, 2008). 이러한 속성(attributes)에 대해 박은숙·김상호·이재섭(2012)은 여러 경쟁상품에 대한 비교를 통해 선택하려는 기준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박진영·정성엽·윤세환(2012)은 선택속성에 대해 서비스 및 제품을 뜻하는 상품에 대한 고객의 선택 욕구를 유발하게 시키고 충족시키는 무형 및 유형의 특성이며, 상품선택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즉, 관광 선택속성은 흡인요인으로서 관광목적지가 지닌 관광 편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잠재관광객을 포함한 관광객들은 관광 편익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관광지의 편익 충족 능력을 판단하여 특정 관광지를 지각하게 되며 목적지로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김기현·이진희, 2019). 이와 같은 선택속성에 대해 한성호(2012)는 소비자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소비자는 여러 상황 또는 선택기준에 따라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선택속성을 파악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했다.

김기현·이진희(2019)는 잠재관광객을 포함한 관광객이 여행목적지를 선택하는 데 관광지 간 속성 비교를 통한 관광지 선택 결정을 하므로 관광지의 속성을 관광지 선택 결정인자라고 하였고, 김향자·엄서호(1997)는 관광객이 관광지 선택하기에 앞서 각 개별관광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비교 평가하다 보니 긍정적이거나, 매력적인 속성을 많이 가진 곳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관광객이 만족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관광지 선택속성은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관광지의 환경적, 사회적, 물리적 특성과 서비스 등을 포함하게 된다(김민철·김형규·부창산·문성중, 2008).

임화순·김구·김영민(2011) 연구에서도 관광지 선택속성은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로 구성된 다차원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대표적인 해양 관광목적지 중 하나인 해수욕장에 대한 선택속성도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이운섭(2006)은 관광지 선택속성을 관광객의 관광지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의미하며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속성들을 관광지가 얼마나 어떻게 가졌는지의 문제를 강조하는 관광지 포지셔닝(positioning) 개념이라고 했다.

최용훈(2008)은 하나의 관광지가 지니는 특이한 성질로 관광자가 관광지 내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으로 관광과 관련된 물리적, 사회적, 행동적 특징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와인선택속성과 고객만족도 관련 연구에서 김지윤(2008)은 와인선택속성을 소비자가 와인을 선택할 때 중요시하는 속성으로 정의하였다. 허양례(2011)는 해양관광 선택속성 연구에서 해양관광지 방문객이 해양관광지 방문을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종목적지 선택을 위한 대안의 평가 과정에서 고려하는 해양관광지의 주요한 특성을 의미한다고 했다. 항공사 선택속성에 대한 연구에서 정혜련(2011)은 소비자들이 저비용 항공사를 선택하기 전에 고려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실버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지 선택속성 연구에서 왕결·염진철(2015)은 관광지를 선택하게 하는 속성이라 했고, 김성연(2018)은 웨딩이벤트 소비자의 선택속성 연구에서 웨딩이벤트 소비자가 웨딩이벤트의 선택기준이 되는 속성으로 정의했으며,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푸드선택속성에 대한 연구에서 김경환(2019)은 한식당에서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푸드의 구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하였다.

최종남(2020)은 걷기여행 선택속성과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걷기여행길을 결정할 때 개인의 특성과 가치관에 따라 다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택의 고려 요인이 되는 조건이라고 하였고, 이암(2022)은 캠핑장 선택속성에 대한 연구에서 캠핑객이 가지고 있는 캠핑장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기대, 그리고 사후 경험하는 모든 요소이며 캠핑 경험에 따라 캠핑장을 선택하려는 속성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우정(2022)은 코로나19 시기 중심으로 국외 관광지 선택속성과 관련한 연구에서 관광객들의 동기와 욕구를 만족시켜 관광지로 유인할 수 있는 관광지의 특징, 성질로 정의했고, 코로나19와 관광과 관련된 관광지 선택속성 연구에서 지영근(2022)은 특정 제품이 가진 다양한 속성들을 고려하여 형성되는 인상이나 태도, 신념을 의미하여 관광소비자가 국내 관광지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라 하였다. 또한, 이상미(2021)도 코로나19와 고객의 행동의도와 관련된 레스토랑 선택속성 연구에서 고객의 개인적, 상황적 상황에 따라 레스토랑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정의했으며, 왕청비·설훈구(2022)도 코로나19 시기에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산관광지 선택속성에 대한 연구에서 관광객이 관광을 하고자 할 때 부산관광지의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속성으로 정의했다.

국외 연구자 중 관광지 선택속성을 처음으로 연구했던 Mayo(1975)는 국립공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경치, 기후, 혼잡도의 3가지를 선택속성으로 제시하면서 관광지 선택속성은 다차원적 요소의 총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했고, Kotler 외(1996)는 속성을 상품이 가지는 유·무형의 특징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상품은 이러한 속성들의 묶음이라 했다.

Goodrich(1997)는 관광 선택속성은 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결정에 있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보았다. Coltman(1981)도 관광지가 지녀야 할 선택속성을 크게 문화적시설과 매력물로 규정하며 관광지 선택속성을 관광객이 궁극적으로 관광목적지를 방문하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했고, Duan(2020)은 관광지 선택속성을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으로 관광에 대한 복합적인 행동적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상기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관광지 선택속성은 관광지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사회적, 물리적 특성과 서비스들로 구성된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잠재관광객들이 기대 편익에 대해 충족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관광지 간 속성 비교를 하여 목적지 결정을 하므로 관광지 선택 결정인지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선택기준에 따라 관광목적지가 바뀔 수 있으므로 선택속성을 파악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광지 선택속성을 '관광객들이 제주를 관광목적지로 선택, 유인할 수 있는 다른 관광지와 차별화된 환경적, 문화적, 사회적 요인들의 특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2-9〉 선택속성에 대한 국내 연구자의 개념

연구자	개념
이윤섭(2006)	관광객의 관광지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의미하며, 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속성들을 관광지가 얼마나 어떻게 가졌는지의 문제를 강조하는 관광지 포지셔닝(positioning) 개념임.
최용훈(2007)	하나의 관광지가 지니는 특이한 성질로 조합된 긍정적인 요소 또는 매력적인 요소를 관광지 속성임.
김지윤(2008)	와인선택속성은 소비자가 와인을 선택할 때 중요시 여기는 속성임.
허양례(2011)	해양관광 선택속성 연구에서 해양관광지 방문객이 해양관광지 방문을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종목적지 선택을 위한 대안의 평가 과정에서 고려하는 해양관광지의 주요한 특성임.
정혜련(2011)	소비자들이 저비용 항공사를 선택하기 전에 고려하는 사항에 관한 것임.
왕결·염진철(2015)	실버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지 선택속성 연구에서 관광지를 선택하게 하는 속성임.
김성연(2018)	웨딩이벤트 소비자의 선택속성 연구에서 웨딩이벤트 소비자가 웨딩이벤트의 선택기준이 되는 속성임.
김경환(2019)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푸드선택속성에 대한 연구에서 한식당에서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푸드의 구매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임.
최종남(2020)	걷기여행 선택속성과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걷기여행길을 결정할 때 개인의 특성과 가치관에 따라 다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택의 고려 요인이 되는 조건임.
이상미(2021)	코로나19와 고객의 행동의도와 관련된 레스토랑 선택속성 연구에서 고객의 개인적, 상황적 상황에 따라 레스토랑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임.
이암(2022)	캠핑장 선택속성에 대한 연구에서 캠핑객이 가지고 있는 캠핑장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기대 그리고 사후 경험하는 모든 요소이며, 캠핑 경험에 따라 캠핑장을 선택하려는 속성임.
김우정(2022)	코로나19 시기 중심으로 국외 관광지 선택속성과 관련한 연구에서 관광객들의 동기와 욕구를 만족시켜 관광지로 유인할 수 있는 관광지의 특징, 성질임.
지영근(2022)	특정 제품이 가진 다양한 속성들을 고려하여 형성되는 인상이나 태도, 신념을 의미하여, 관광소비자가 국내관광지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임.
왕청비·설훈구(2022)	코로나19 시기에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산관광지 선택속성에 대한 연구에서 관광객이 관광하고자 할 때 부산관광지의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속성임.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표 2-10〉 선택속성 대한 국외 연구자의 개념

연구자	개념
Mayo(1975)	국립공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경치, 기후, 혼잡도의 3가지를 선택속성으로 제시하면서 관광지 선택속성은 다차원적 요소의 총합임.
Coltman(1981)	관광지 선택속성은 관광객이 궁극적으로 관광목적지를 방문하도록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서, 관광지가 지녀야 할 선택속성은 크게 문화적시설과 매력몰입.
Kotler 외(1996)	속성을 상품이 가지는 유·무형의 특징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상품은 이러한 속성들의 묶음임.
Goodrich(1997)	관광 선택속성은 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결정에 있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
Duan(2020)	관광지 선택속성을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으로 관광에 대한 복합적인 행동적 특성임.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2. 관광지 선택속성(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 구성요인

관광지 선택속성과 관련한 연구는 국내·외 여러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연구자들을 주로 관광객이 여행을 가기에 앞서 목적지를 선택하려는 경우로 실버관광, 항공권, 특수목적 관광, 해양관광(섬, 스쿠버 등), 크루즈 관광, DMZ 관광, 골프장, 걷기여행, 호텔 이용, 국외 관광지 선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관광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선택속성과 관련하여 제품 구매 및 이용 등 소비행동 관련으로 식생활 한식기 선택, 웨딩이벤트 선택, 디지털 메뉴 선택, 초고층아파트 구매, 캠핑장 선택, 스키리조트 선택, 호텔레스토랑, 와인선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관광지 선택 및 농촌 관광, 힐링관광, 호텔, 레스토랑 이용 등과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질병 등의 특수성으로 안전, 청결, 위생 등 감염병 예방과 방역 등과 관련된 요인들이 강조된 연구들이며 국내·외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관광지 선택 속성에 대한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신현호(1999)는 관광라이프스타일 유형별 관광지 선택속성 관련 연구에서 여행지 주민의 환대, 자연문화적매력성, 부대시설, 쇼핑오락시설 등 4개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장양례(2005)는 노인여행자를 대상으로 노인여행시장 선택속성 연구에서 선택속성을 관광지환경, 관광자원, 관광비용 등으로 3개 요인으로 나누었다.

최용훈(2008)은 관광자 유형에 따른 관광지 선택속성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선택속성을 한국의 매력과 접근성, 숙박시설, 식음료, 쇼핑, 서비스, 교통시설 등 6개 요인으로 구분했다. 해양관광 목적지 선택속성 연구에서 허양례(2011)는 선택속성을 체류성, 자원성, 유익성, 홍보성, 방문성 등 6개 요인으로 나누고, 정균표(2011)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관광지 선택속성 연구에서 선택속성을 사회적, 문화적, 안전적, 자연적 요인 등 4개로 분류했다.

영기·홍영호(2011)는 특수목적지 관광 선택속성 연구에서 자연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관광지, 시설적 속성 등 6개 요인을 구분하였고, 해양관광지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에서 박종찬(2011)은 선택속성을 체류성, 자원성, 유익성, 홍보성, 방문성 등으로 5개로 나누었으며, 노재현(2013)은 스쿠버다이빙 관광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에서 비용성, 편의성, 연계성, 친숙성 등 5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송수익(2015)은 지역축제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에서 선택속성을 음식, 서비스, 프로그램, 청결 등 4개 요인으로 분류하고, 민양기·이윤섭(2015)은 어촌관광의 선택속성 연구에서는 매력성, 체험성, 환대성, 교육성, 기반시설 요인 5개로 도출했으며, 심우석(2015)은 힐링관광자원 중심으로 관광자원 유형과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에서 힐링관광자원 선택속성을 자연적, 시설적, 사회적, 환경적요인 4개로 구분하였다.

국내테마여행에 대한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에서 조성규·최규환(2016)은 인솔자, 여행상품, 교통, 여행사 등으로 선택속성을 4개로 구분했고, 유순호·채선영·안대회(2020)는 DMZ 관광 선택속성 연구에서 서비스쾌적성, 물리적속성, 접근성 3개로 나누었으며, 정총화(2020)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관광지 선택속성 연구에서 매력성, 접근성 2개로 선택속성을 분류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는데 고훈두(2021)는 강릉방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지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에서 서비스품질, 물리적속성, 지각된위험, 접근성, 프로그램 등 5개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김철원(2021)은 코로나19 위험지각과 관련한 호텔 선택속성으로 효율성, 전문성, 시스템, 차별성 요인 등 4개로 구분했다.

이 외에도 Kim 외(2022)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전략적 대응연구와 관련된 호텔 선택속성을 예방척도, 기능적품질, 직원속성, 외부, 사회적서비스, 브랜드가치 등 6개 요인으로 나누었고, 이암(2022)은 캠핑장 선택속성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활동성, 서비스, 접근성, 환경시설, 안전위생 등 5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지영근(2022)은 코로나19 위험지각과 관련한 관광지 선택속성 연구에서 선택속성을 자연환경, 문화사회, 접근성, 방역요소 등 4개 요인으로 구분했으며, 고윤길(2022)도 감염병 재난과 관광위기 관련한 관광지 선택속성 연구에서 선택속성 요인을 자연환경, 역사문화, 위락경제, 감염병 안전요인 등 4개 요인을 도출하고, 엄지영(2022)은 일본의 Z세대를 대상으로 관광지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에서 선택속성 요인을 안전, 문화, 사회, 자연요인 등 4개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상기와 같이 관광지 선택속성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심우석, 2015; 김철원, 2021; 이상미, 2021; 김우정, 2022; 엄지영, 2022; kim 외, 2022 등)에서 도출된 선택속성 요인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사람들이 느꼈던 건강에 대한 걱정, 감염에 대한 두려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여 선택속성 요인을 코로나안전요인, 문화요인, 매력요인, 힐링요인 등 4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표 2-11〉 선택속성 구성요인

연구자	개념
신현호(1999)	관광라이프스타일 유형별 관광지 선택속성 관련 연구에서 여행지주민의 환대, 자연문화적매력성, 부대시설, 쇼핑오락시설 등 4개 요인
장양례(2005)	노인여행자를 대상으로 노인여행시장 선택속성 연구에서 관광지환경, 관광자원, 관광비용 등으로 3개 요인
최용훈(2008)	관광자 유형에 따른 관광지 선택속성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의 매력과 접근성, 숙박시설, 식음료, 쇼핑, 서비스, 교통시설 등 6개 요인
허양례(2011)	해양관광 목적지 선택속성 연구에서 체류성, 자원성, 유익성, 홍보성, 방문성 등 6개 요인
정군표(2011)	노인들을 대상으로 관광선택속성 연구에서 사회적, 문화적, 안전적, 자연적 요인 등 4개 요인
영기·홍영호(2011)	특수목적지 관광선택속성 연구에서 자연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관광지, 시설적 속성 등 6개 요인
박종찬(2011)	해양관광지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에서 체류성, 자원성, 유익성, 홍보성, 방문성 등으로 5개 요인
노재현(2013)	스쿠버다이빙 관광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에서 비용성, 편의성, 연계성, 친숙성 등 5개 요인
심우석(2015)	힐링관광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에서 자연적, 시설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 등 4개 요인
민양기·이윤섭(2015)	이촌관광의 선택속성 연구에서는 매력성, 체험성, 환대성, 교육성, 기반시설 등 5개 요인
조성규·최규환(2016)	국내테마여행에 대한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에서 인솔자, 여행상품, 교통, 여행사 등 4개 요인
유순호·채선영·안대회(2020)	DMZ관광 선택속성 연구에서 서비스패적성, 물리적속성, 접근성 3개 요인
정충화(2020)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관광지 선택속성 연구에서 매력성, 접근성 2개 요인
김철원(2021)	코로나19 위험지각과 관련한 호텔 선택속성으로 효율성, 전문성, 시스템, 차별성 요인 등 4개 요인
Kim 외(2022)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전략적 대응연구와 관련된 호텔 선택속성을 예방적도, 기능적품질, 직원속성, 외부, 사회적서비스, 브랜드가치 등 6개 요인
이암(2022)	캠핑장 선택속성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활동성, 서비스, 접근성, 환경시설, 안전위생 등 5개 요인
지영근(2022)	코로나19 위험지각과 관련한 관광지 선택속성 연구에서 자연환경, 문화사회, 접근성, 방역요소 등 4개 요인
고윤길(2022)	감염병 재난과 관광위기 관련한 관광지 선택속성 연구에서 자연환경, 역사문화, 위락경제, 감염병 안전요인 등 4개 요인
엄지영(2022)	일본의 Z세대를 대상으로 관광지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에서 안전, 문화, 사회, 자연요인 등 4개 요인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표 2-12〉 선택속성 요인 도출

연구자	선택속성 요인 도출				그 외 선택속성 요인
장양래(2005)		관광자원	관광비용(쇼핑)		관광지환경, 관광비용
최용훈(2008)	숙박시설(청결)		매력성		식음료, 쇼핑, 서비스, 교통시설
김준호·최지은(2010)				치유프로그램, 환경	
허양래(2011)	체류성(청결)	자원성			유익성, 홍보성, 방문성
정균표(2011)	안전적요인	문화적요인	자연적요인		사회적요인
영기·홍영호(2011)		문화적속성	자연적속성		사회적속성, 관광시설속성
홍수장·이태희(2013)				치유프로그램, 치유시설	
민양기·이윤섭(2015)		교육성	매력성		체험성, 현대성, 기반시설
심우석(2015)				환경적요인(힐링체험)	자연적요인, 시설적요인, 사회적요인
김경희·안지현(2020)				분리,이완	
유순호·채선영 외(2020)			물리적속성		서비스쾌적성, 접근성
정충화(2020)			매력성		접근성
BUKHBAT(2020)				사회환경적요인(힐링비용)	자연적요인, 시설적요인
고한두(2021)	지각된위험(전염병)		물리적속성		서비스품질, 지각된위험, 접근성, 프로그램
김철원(2021)	효율성요인(청결)				전문성요인, 시스템요인, 차별성요인
이상미(2021)	위생과 청결				물리적거리, 서비스 및 품질
고윤길(2022)	감염병안전요인	역사문화요인	자연환경요인		위락환경요인
김우정(2022)		문화체험요인	매력요인		비용요인, 서비스요인
왕청비·설훈구(2022)	숙박가치(감염안전)	전통문화	자연경관,쇼핑		
엄지영(2022)	안전요인	문화요인	자연요인		사회요인
이암(2022)	안전위생				활동성, 서비스, 접근성, 환경시설
지영근(2022)	방역요소	문화사회	자연환경		접근성
Kim 외(2022)	예방적도				기능적품질, 직원속성, 외부환경, 사회적서비스 외
pappas 외(2022)			목적지속성(명소)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3. 관광지 선택속성(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 측정

선택속성에 대한 측정도구는 기존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출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사람들이 느꼈던 건강에 대한 걱정, 감염에 대한 두려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여 선택속성 요인을 코로나안전 요인, 문화요인, 매력요인, 힐링요인 등 4개 요인으로 구분하고 총 1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측정하였다.

먼저 코로나안전요인은 선행연구(최용훈, 2008; 전찬수 외, 2009; 허양례, 2011; 박종찬, 2011; 노재현, 2013; 송수익, 2015; 유순호 외, 2020; 고한두, 2021; 김철원, 2021; 이상미, 2021; 고윤길, 2022; 엄지영, 2022; 정총화, 2020; 지영근, 2022; 이암, 2022; Kim 외, 2022 등)를 토대로 제주에서 방역관리 및 의료시설 등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 선택하는 속성이라 정의하여 ‘사회적으로 안전한 곳인가?’, ‘안전시설 및 의료시설 양호한가?’, ‘관광지(숙박, 식당 등) 청결한가?’, ‘방문객 밀집도 등 방역관리가 양호한가?’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문화요인은 선행연구(장양례, 2005; 허양례, 2011; 영기 외, 2011; 정균표, 2011; 민양기 외, 2015; 왕청비 외, 2022; 엄지영, 2022; 정총화, 2020; 김우정, 2022 등)를 토대로 제주에서 역사적인 문화와 유물 등이 풍부하여 역사 교육 및 관광을 할 수 있는지 선택하는 속성이라 정의하여 ‘역사적 문화유물이 풍부한가?’, ‘역사 교육 관광이 가능한가?’, ‘다양한 전통문화 경험이 가능한가?’, ‘현지 향토 음식을 맛볼 수 있나?’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매력요인은 선행연구(신현호, 1999; 장양례, 2005; 최용훈, 2008; 전찬수 외, 2009; 영기 외(2011; 박종찬, 2011; 정균표, 2011; 민양기 외, 2015; 조성규 외, 2016; 정총화, 2020; 유순호, 2022; 소재민 외, 2022; 엄지영, 2022; Pappas 외, 2022 등)를 토대로 제주에서 경관이 아름답고, 기후의 쾌적성 등 자연적 매력물이 다양한지 선택하는 속성이라 정의하여 ‘경관이 아름답고 매력적인가?’, ‘계절과 기후 쾌적한가?’, ‘자연적 매력물이 다양한가?’, ‘살거리 등 쇼핑 장소가 있나요?’,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나?’ 등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힐링요인은 선행연구(곽행구 외, 2008; 김준호 외, 2010; 홍수장 외, 2013; 심우석, 2015; 김경희 외, 2020; BUKHBAT, 2020; 소재민 외, 2022 등)를 토대로 제주에서 코

로나19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감 등을 얼마나 힐링(치유) 받을 수 있는지 선택하는 속성이라 정의하여 '힐링관광으로 긴장 풀 수 있나?', '힐링관광 프로그램 다양한가?', '힐링관광 자원이 풍부한가?', '힐링관광 전문인력이 있는가?'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이 정리한 관광지 선택속성과 하위요인의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선택속성과 관련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항목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으며 척도 1은 '전혀 아니다', 척도 2는 '아니다', 척도 3은 '약간 아니다', 척도 4는 '보통이다', 척도 5는 '약간 그렇다', 척도 6은 '그렇다', 척도 7은 '매우 그렇다'를 기준으로 하였다.

4. 관광지 선택속성(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 관련 선행연구

관광지가 관광객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매력적인 곳이어야 하는데 이를 다른 말로 관광자원 혹은 관광매력물이 좋다는 말이며 이처럼 관광지가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요소를 관광지 속성이라고 하였다(이경숙·전보람, 2018). 신현호(1999)는 1년 이내 여행경험이 있는 대구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관광지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관광지를 선택하는 과정은 일반 소비자의 제품선택과정과 동일하다고 하였고 분석 결과 라이프스타일 유형별에 따라 관광지 선택속성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운섭(2006)은 라이프스타일이 관광지선택과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관광지의 선택속성을 관광지, 숙박시설, 교통시설, 식음료, 쇼핑, 여행서비스 등 6개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라이프스타일 요인 중 사회지향성을 제외한 여가지향성, 문화추구형, 일지향성의 순으로 관광지 선택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관광전·후의 관광지 선택속성의 차이에서 관광 후에 관광지 선택속성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관광자유형(개인,단체,SIT)과 관광국적별(일본,중국,미국)에 따른 관광지선택속성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최용훈(2008)은 관광자유형에 따라 관광지 선택속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관광 국적별에 따른 분석에서는 숙박시설과 식음료 및 쇼핑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만족도와 영향 관계에서는 관광지 선택속성 요인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지윤(2008)은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와인선택속성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라이

프스타일은 와인선택속성(내재적속성, 외부적속성)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와인 선택속성은 개인적 가치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허양례(2011)은 해양관광지 유형에 따른 동기, 라이프스타일, 개인가치가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선택속성을 체류성, 자원성, 유익성, 홍보성, 방문성으로 구분하고 동기, 개인가치는 모두 선택속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고 라이프스타일은 선택속성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관광객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특수목적관광지 선택속성 연구에서 영기·홍영호(2011)은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목적지 선택속성의 측정척도를 개발하였고 이중 전통추구형, 위락추구형, 사회추구형, 여가추구형이 목적지 선택속성(자연적속성, 문화적속성, 사회적속성, 관광시설 속성) 모두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혜련(2011)은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선택속성이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선택속성 중 서비스성을 제외한 편리성, 경제성, 추천성 및 안전성이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근표(2011)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소비자의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이 관광지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부분적으로 선택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관광지 선택속성(사회적, 문화적, 안전적, 자연적) 중 사회적, 자연적 속성만 관광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다. 유창근·이혜린(2014)는 항공사 승객들의 위험지각과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위험지각과 선택속성과 부분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기내서비스, 요금서비스 등의 선택속성이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심우석(2015)은 힐링관광자원의 유형과 선택속성, 관광만족, 상품개발 선호 연구에서 연구대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설문조사자에 대해 충분히 교육한 후에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힐링관광자원 선택속성(자연적, 환경적, 시설적, 사회적) 중 환경적, 사회적 요인만 관광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고, 상품개발 선호도에 대해서는 환경적, 사회적 요인만 상품개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다. 또한, Bukhbat(2020)도 힐링관광자원 선택속성이 관광객 만족과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힐링관광자원 선택속성(자연적, 시설적, 사회적, 환경적) 중 자연적, 시설적 요인만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기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관광객 또는 소비자들이 관광지 선택이나 와인선택, 항공사 선택 등 소비행동 측면에서 제품이나 관광지 선택에 대한 행동, 태도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선택속성을 파악하는 것은 기업으로서 고객 유치

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겠다.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선택속성 관련한 연구로는 김철원(2021)이 코로나19 위험지각이 호텔 서비스 선택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위험지각은 호텔 선택속성을 효율성(청결 외), 전문성(안전 외), 시스템(요금 외), 차별성(브랜드 외) 등 4개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4개 요인 모두 위험지각과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을 증명하였으며 만족도와 영향 관계에서는 선택속성 요인 모두가 만족도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상미(2021)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고객의 행동의도에 따른 레스토랑 선택속성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외식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하는 선택속성을 물리적 거리, 서비스 및 품질, 위생과 청결 등 3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서비스 및 품질 요인만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방문의도와 관계에서는 위생과 청결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제주 관광과 관련하여 제주를 방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지 선택속성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고운길(2022)도 코로나19 팬데믹 방역과 관련된 관광지 선택속성 요인이 중요성을 확인하여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을 자연·환경요인, 역사·문화요인, 위락·경제요인, 감염병·안전요인 등 4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검증 결과 관광지 선택속성 중 위락·경제요인과 감염병·안전요인만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재방문의도에는 선택속성 모든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다.

웰빙 관광의 발전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한 세르비아 스파 방문자의 목적지 선택 프로세스의 계층적 분석(AHP) 연구(Radin 외, 2022)에서 목적지 선택에 있어 내부요인(정신적 평화추구, 육체적 휴식추구 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으로 외부요인(개인안전, 가격, 스파 다양성 등), 제약조건(시간적, 비용적 제한 등)의 순으로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외부요인 중에는 개인안전이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이는 코로나19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스파 시설의 물과 시설 전반에 대한 위생 상태가 건강과 연결됨을 강조하였고 동시에 중요한 웰빙 휴가 속성으로 목적지 선택에 있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상기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선택속성 관련 선행연구에서 코로나 시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요한 선택속성 요인을 건강, 위생과 청결, 안전성 등으로 확인하였고 또한, 이러한 속성들은 만족도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겠다.

제4절 만족도(satisfaction)

1. 만족도(satisfaction) 개념

국립국어원에서는 만족에 대한 개념을 마음에 흡족함이고, 만족도는 만족을 느끼는 정도로 고 정의하고 있다(국립국어원, 2023). Oliver(1981)와 심우석(2015)은 만족(satisfac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satisfacere의 satis(enough)와 facere(to do or to make)에서 유래되었고 충족(fulfillment) 또는 채우기(filling)를 의미하며 불일치된 기대와 고객이 소비경험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감정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한 종합적인 상태라 하였다.

대부분의 소비자행동 이론에서는 만족이 상품 구매 이전에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갖는 기대와 이것을 구매하여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알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구매 전 기대했던 것보다 실제 가치가 큰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최용훈, 2008; 손하나, 2014; 최종남, 2020). 이는 일반적으로 만족은 소비자의 구매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대치와 실제로 구매하고 난 후의 소비 경험의 결과와 일치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최용훈, 2008).

그리고 만족은 마케팅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분야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심우석, 2015), 만족은 관광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 될 뿐만 아니라 관광객 만족도 측정은 목적지 선택, 제품 및 서비스 선택, 재방문과 직결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Meng 외, 2008).

마케팅 관련 연구에서는 만족 수준이 높아지면 재구매 의사 및 긍정적인 구전 활동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광지 경우에도 그 관광지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아지면 재방문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Oliver, 1980; 임화순·남운섭, 2018). 이처럼 관광객들이 관광지에 대한 만족도는 관광지에 대한 서비스를 평가하고 재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관광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심우석, 2015).

관광은 관광객에게 일상탈출의 기회를 제공한다(Encyclopedia of Tourism, 2000). 일상탈출의 기회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욕구와 충족의 기회도 부여한다. 욕구는 만족을 추구하거나 완성을 하고자 하려는 심리적으로 불완전한 상태로 동기의 발생 원인이다(이홍규·이동

회, 2005; 임화순·고계성, 2013). 그러므로 관광지 내에서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전반적인 경험의 만족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김원인·김수경, 2009).

관광객의 만족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 중에 기대불일치 이론과 공정성 이론이 있는데(Jang 외, 2007), 이를 통해 관광객이 지각하는 관광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기대불일치 이론은 기대와 성과를 비교하는 이론으로서 관광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관광객이 기대한 것 이상의 성과를 경험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공정성 이론은 투입된 돈·시간 등 지출된 가치를 비교하는 이론으로 관광 만족이 높다는 것은 관광객이 투입한 것에 비하여 인식하는 가치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김난영, 2012; 고한두, 2021).

관광지에서 경험하는 숙박이나 편의시설, 체험, 서비스, 관광상품,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관광지 만족도로 나타날 수 있으며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이 만족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박지원, 2022). 현재 관광지별로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패턴, 트렌드, 수준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만족의 극대화 이를 통해 재방문을 유도하고 이익의 극대화 초래에 주력하고 있다(신동주·손재영, 2008; 임화순·고계성, 2013).

최용훈(2008)은 관광자유형과 국적별 관광지 선택속성이 관광자 만족에 대한 영향 연구에서 만족의 개념에 대해 관광자가 목적지에 대하여 갖는 기대와 실제 목적지에서 얻은 경험과의 상호작용(성과수준)에 의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고, 라이프스타일과 와인 선택속성과 관련한 만족도 연구에서 김지윤(2008)은 만족도를 개인적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평가로 정의하였다.

심우석(2015)은 힐링관광자원 유형과 선택속성에 관한 만족 연구에서 만족의 개념을 힐링 관광지에서 관광활동 경험에 대한 방문 전후 기대수준의 차이를 주관적 심리상태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제주 중문관광단지 방문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종사원이 방문사용에 대한 만족도 영향 연구에서 임화순·남윤섭(2018)은 만족이란 기업이 고객의 기대와 욕구에 최대한 부응한 결과에 대해 고객이 만족한 상태를 말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지속적으로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고객의 신뢰감이 지속되는 상태라고 하였다.

김도윤(2019)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구매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만족도를 편의식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하고 경험한 후의 좋고 나쁜 정도의 감정적 반응이라 했으며, 걷기여

행동기, 선택속성, 만족도 간의 영향 연구에서 최종남(2020)은 만족도를 관광객인 걷기여행자가 관광 매력물로서의 걷기 여행길을 체험하고 나서 사전에 기대했던 수준 이상으로 욕구가 충족된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민경애(2020)는 축제장 음식부스에 대한 위험지각과 관련한 만족도 영향 연구에서 만족도를 고객들이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자신들의 기대와 비교하여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하였고, 고한두(2021)는 관광지 선택속성이 관광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관광만족은 관광객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관광 활동에 대하여 정서와 인지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관광지 속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 하였다.

위험지각과 행동의도와 관련된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최영진(2021)은 만족도를 관광을 시작하기 이전의 기대와 관광이 종료된 이후에 인지하는 지각의 불일치와 관련된 소비자의 평가 및 인식이며, 최상학(2023)은 초등학생의 가족여가활동 등 관광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관광만족도를 관광객이 오감으로 체험하는 관광경험에 대하여 인지, 정서 및 태도의 측면에서 욕구가 충족되는 정도라고 하였다.

국외 연구자 중 Engel 외(1990)는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만족은 선택한 대안이 기대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결과라 정의하고, 이와 비슷하게 Oliver(1997)는 소비자에 대한 행동적 관점과 관련한 만족도 연구에서 만족을 제품 또는 서비스 이행에 대한 고객의 판단으로 설명했다.

속성(attributes)과 동기에 따른 만족도 측정에 대한 연구에서 Meng 외(2008)는 만족은 제품 또는 서비스 기능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 자체가 만족스러운 수준의 소비를 제공한다는 판단 기준으로 정의했고, Gnerre 외(2022)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위험인식과 여행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만족도를 여행자가 일상적인 여행경험을 평가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주관적인 특정 만족으로 정의하였다.

상기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만족도는 소비자들의 소비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소비 이전과 이후에 느끼게 되는 가치의 차이로 마케팅과 관련하여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구매 의사 및 긍정적인 구전 활동이 높아진다. 특히, 관광산업에서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다시 재방문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즉, 만족도 측정을 통해 불만족스러운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더욱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족

도를 '제주 관광 이전과 과정에서 느끼는 코로나19 감염위험 및 기대했던 비용과 걱정 등 전반적인 제주 관광 전·후에 대한 심리적 결과'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2-13〉 만족도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의 개념

연구자	개념
최용훈(2008)	관광자유형과 국적별 관광지 선택속성이 관광자 만족에 대한 영향 연구에서 만족의 개념에 대해 관광자가 목적지에 대하여 갖는 기대와 실제 목적지에서 얻은 경험과의 상호작용(성과수준)에 의한 결과임.
김지윤(2008)	라이프스타일과 와인 선택속성과 관련한 만족도 연구에서 만족도를 개인적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평가임.
심우석(2015)	힐링관광자원 유형과 선택속성에 관한 만족 연구에서 만족의 개념을 힐링관광지에서 관광활동 경험에 대한 방문 전후 기대수준의 차이를 주관적 심리상태임.
임화순·남윤섭(2018)	제주 중문관광단지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연구에서 만족이란 기업이 고객의 기대와 욕구에 최대한 부응한 결과에 대해 고객이 만족한 상태를 말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지속적으로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고객의 신뢰감이 지속되는 상태임.
김도윤(2019)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구매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만족도를 편의식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하고 경험한 후의 좋고 나쁜 정도의 감정적 반응임.
최종남(2020)	걷기여행동기, 선택속성과 만족도 간 연구에서 만족도를 관광객인 걷기여행자가 관광 매력물로서의 걷기여행길을 체험하고 나서 사전에 기대했던 수준 이상으로 욕구가 충족된 상태임.
민경애(2020)	축제장 음식부스에 대한 위험지각과 만족도 영향 연구에서 만족도를 고객들이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자신들의 기대와 비교하여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임.
고한두(2021)	관광지 선택속성과 관광만족에 대한 연구에서 관광만족은 관광객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관광활동에 대하여 정서와 인지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관광지 속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임.
최영진(2021)	위험지각과 행동의도와 관련된 만족도 영향 연구에서 만족도를 관광을 시작하기 이전의 기대와 관광이 종료된 이후에 인지하는 지각의 불일치와 관련된 소비자의 평가 및 인식임.
Engel 외(1990)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만족은 선택한 대안이 기대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결과임.
Oliver(1997)	소비자에 대한 행동적 관점과 관련한 만족도 연구에서 만족을 제품 또는 서비스 이행에 대한 고객의 판단으로 설명임.
Meng 외(2008)	속성(attributes)과 동기에 따른 만족도 측정에 대한 연구에서 만족은 '제품 또는 서비스 기능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 자체가 만족스러운 수준의 소비를 제공한다는 판단 기준임.
Gnerre 외(2022)	코로나19와 관련된 위험인식과 여행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만족도를 여행자가 일상적인 여행경험을 평가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주관적인 특정 만족임.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2. 만족도(satisfaction) 구성요인

만족도와 관련하여 국내·외 여러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먼저 소비자행동과 관련된 연구 외에도 관광 분야에서 관광객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관광지 선택속성 관련하여 관광동기 또는 관광이미지, 행동 그리고 재방문과의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다.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시기에 관광객이 관광목적지에서 인식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위험지각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만족도 차이 연구에서 김선영·김형곤(2009)은 만족도를 단일 요인으로 하여 나쁘다, 비호의적이다, 부정적이다, 불만족이다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하였고, 개별여행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관광만족도 연구에서 이서요·이태희(2015)도 만족도를 단일 요인으로 목적지 결정에 대한, 기대에 대한, 추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등 4개로 나누었다.

김기현·이진희(2019)와 진쟁·이진희(2019)는 제주를 방문한 국내 및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선택속성에 대한 만족도 연구에서 만족도를 '전반적인 만족도' 단일 항목으로 구분했고, 유학생 라이프스타일과 관광지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정충화(2020)는 만족도를 단일 요인으로 관광지 둘러보는 것, 방문한 것,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 방문한 관광지가 적합한 것 등 4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곽초(2020)는 중국 관광객 대상 관광만족도 연구에서 단일 요인으로 둘러보는 즐거움, 방문의 적합, 방문의 자랑스러움, 시간을 보내고 싶음, 가족, 지인들에게 자랑, 한국에 정착 등 6개 항목으로, 고한두(2021)는 강릉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강릉 선택에 대한, 전반에 대한, 적절한 비용에 대한 등 11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만족도 연구로 윤해진·안희정(2021)은 항공사 코로나19의 지각된 위험과 만족도 간 영향 관계에서 만족도를 서비스, 방역관리, 서비스 기대, 항공사 선택, 서비스 태도 등 6개 항목으로 나누었고, 코로나19 위험지각이 호텔서비스 선택과 만족에 대한 연구에서 김철원(2021)은 '호텔서비스 만족' 단일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고윤길(2022)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 만족도 연구에서 코로나 시기 제주의 안전성에 대한 만족 등 6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Liu 외(2023)는 웰니스 관광 체험이 관광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만족도를 단일

요인으로 웰니스 관광지 방문에 대한, 선택에 대한, 참여(활동)에 대한, 경험에 대한, 욕구 충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 6개 항목으로 또한, Meng 외(2008)도 자연 기반 리조트 방문객들의 만족도 측정 연구에서 만족도를 단일 요인으로 측정항목을 시간과 노력의 가치에 대한, 가치 있는 가격에 대한, 경험에 대한 만족도 등 3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상기와 같이 만족도와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곽초, 2020; 고한두, 2021; 고윤길, 2022; Meng, 2008; Liu 외, 2023 등)들에서 도출된 여러 항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사람들이 느꼈던 감염에 두려움, 비용에 대한 걱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제주를 결정한 부분, 전반적인 만족, 적절한 비용, 시설에 대한 만족, 코로나 대한 안전성, 정보제공 적절성, 가족·지인에게 전달(자랑)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3. 만족도(satisfaction) 측정

만족도에 대한 측정도구는 단일항목 척도와 복수항목 척도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데, 단일항목 척도는 간단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외생변수에 기인한 영향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항목으로 이루어진 복수항목 척도를 사용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Baker 외, 2000; 최용훈, 2008).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국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출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사람들이 느꼈던 감염에 대한 두려움, 비용에 대한 걱정 등을 고려하여 만족도 단일 요인으로 복수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리조트 방문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측정 연구(Meng 외, 2008),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만족도에 관한 연구(곽초, 2020), 강릉시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만족도에 관한 연구(고한두, 2021),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만족도에 관한 연구(고윤길, 2022), 웰니스 관광 만족도에 대한 연구(Liu 외, 2023) 등을 토대로 '제주를 선택한 나의 결정에 대한 만족', '제주방문에 대한 전반적 만족', '기대했던 비용 대비 적절성', '제주 관광시설이 타 관광지에 비해 좋은 부분', '코로나19에 대한 안전성', '관광지에 대한 정보제공이 적절성', '제주 관광의 좋은 점 가족·지인들에게 전달' 등 총 7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이 정리한 만족도 측정 도구는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항목은 7점 리 커트 척도를 사용했으며 척도 1은 '전혀 아니다.', 척도 2는 '아니다', 척도 3은 '약간 아니다.', 척도 4는 '보통이다', 척도 5는 '약간 그렇다.', 척도 6은 '그렇다', 척도 7은 '매우 그렇다'를 기준으로 하였다.

4. 만족도(satisfaction) 관련 선행연구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로는 주로 관광형태, 관광지 대상, 소비형태, 서비스 경험, 라이프스타일, 위험지각, 선택속성 등 다양한 원인변수에 대한 결과변수로 만족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다. 선행연구 중 최용훈(2008)과 심우석(2015)은 만족은 소비자의 구매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대치와 실제로 구매하고 난 후의 소비 경험의 결과와 일치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마케팅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분야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이초혜(2002)는 수도권 지역의 여행상품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관광자의 여행상품 지각위험과 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지각위험이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일식체인 전문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선택속성과 만족도와 관계 연구에서 윤태환(2006)은 선택속성은 만족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을 검증했다.

축제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만족도 차이 연구(김선영·김형곤, 2009)에서 만족도를 단일 요인 4개 항목으로 분석한 결과 라이프스타일 군집별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증명하였고, 임화순·남윤섭(2018)은 제주 중문관광단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종사원의 제주 방언 사용이 관광이미지 형성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방언사용은 관광이미지 형성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으며, 형성된 관광이미지는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정오·이지민·정남호·구철모(2018)는 관광목적지에 대한 지각된 가치가 관광경험 만족과 재방문의도 관련 연구에서 목적지에 대한 지각된 가치는 부분적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만족도는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항공사 코로나19 환경의 지각된 위험이 서비스 선택속성,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윤해진·안희정(2021)은 서비스 선택속성은 만족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그중 방역 서비스 요인이 만족도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또한, 만족도는 재방문의도에 유

의한 정(+)¹⁾의 영향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강릉시 방문관광객들의 관광지 선택속성이 관광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고한두, 2021)에서 관광지 선택속성을 서비스품질, 물리적속성, 지각된위험, 접근성, 프로그램 등 5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관광만족도와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선택속성 모두 관광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광만족도와 행동의도 관계에서는 관광만족이 높아질수록 행동의도가 증가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코로나19 위험지각이 호텔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김철원, 2021)에서 신체위험, 경제위험, 심리위험 중 심리적위험 요인만 만족도에 부(-)의 영향 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제주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고윤길(2022)은 감염병·안전요인 등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선택속성 요인이 관광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다.

2004년과 2019년에 몽골을 여행한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 이미지, 관광객 만족도 및 재방문의도에 관한 종단적 연구(Luvsandavaajav 외, 2022)에서 목적지에 대한 인지적(자연 및 문화적 속성)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인프라 및 환경적 속성) 모두 관광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관광만족도는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구조모델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자연 기반 리조트 방문객들의 선택속성에 따른 만족도 연구(Meng 외, 2008)에서 리조트의 직원들의 친절함, 레스토랑의 청결도, 좋은 숙박시설 속성들이 방문객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상기와 같이 만족도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만족도는 소비자 또는 관광객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거나 경험하고 난 이후 나타난 심리적 결과이기 때문에 만족도 분석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다시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으며, 아울러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더욱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겠다.

제3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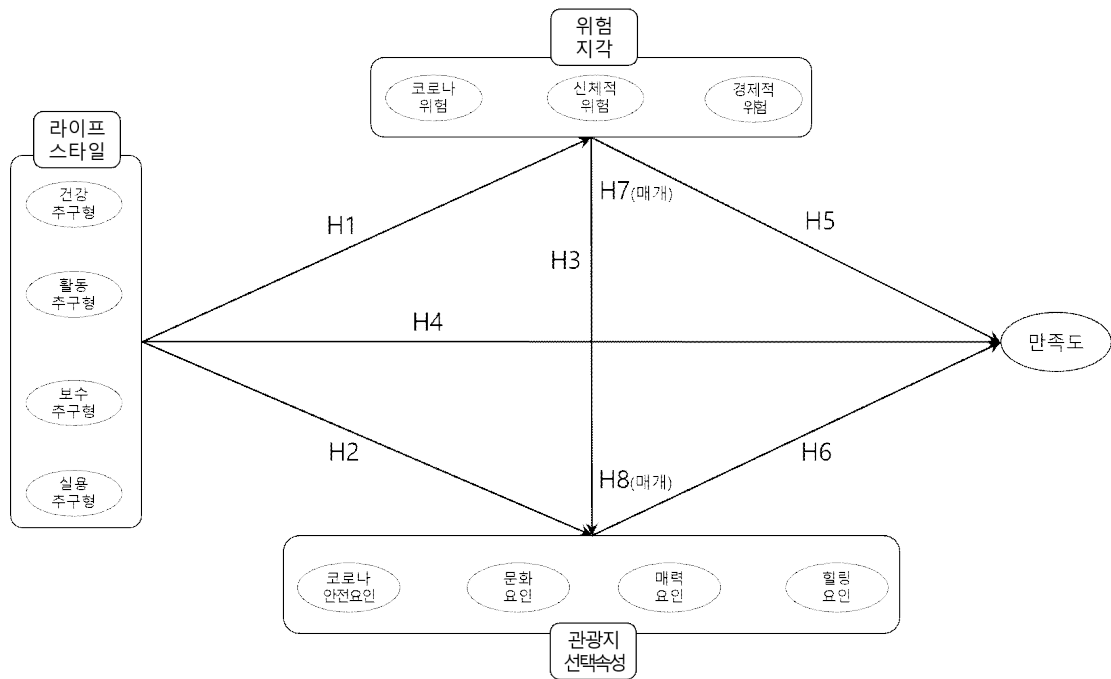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주를 방문한 20세 이상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위험지각과 관광지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라이프스타일과 위험지각과 관련한 선행연구(전달영·정혜연, 1999; 김정희, 2005; 김충효, 2007; 김충효·서원석·이순구, 2008; 김연희, 2013; 진징, 2013; 홍관식, 2013; 정재훈, 2015; 이해련·김윤민, 2018)를 토대로 라이프스타일과 위험지각 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고, 라이프스타일과 선택속성과 관련한 선행연구(김기현·이진희, 2019; 이동욱, 2019; 김경환, 2019; 유순호·채선영·안대희, 2020; 김병직·양위주, 2020)를 바탕으로 라이프스타일과 관광지 선택속성 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라이프스타일과 위험지각, 선택속성이 만족도와 관련한 선행연구(김기현·이진희, 2019; 정총화, 2020; 정용복, 2020; 김철원, 2021; 유창근·이혜린, 2014; 고한두, 2021; 윤해진·안희정, 2021; 김영민, 2021)를 바탕으로 라이프스타일과 위험지각, 관광지 선택속성 각각이 만족도 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가정했으며, 위험지각과 선택속성과 관련한 선행연구(유창근·이혜린, 2014; 이인희, 2016; 윤해진·안희정, 2021; 김철원, 2021; 김우정, 2022)를 토대로 위험지각과 관광지 선택속성 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위험지각과 선택속성이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앞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도출한 라이프스타일 유형 그리고 위험지각과 관광지 선택속성의 각 하위요인 간 영향 관계와 이들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 파악을 위해 다음 [그림 3-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2. 가설의 설정

Adler(1969)는 능동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자기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지각, 사고, 행동 등 일관되게 라이프스타일을 확립하는 기질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러한 개인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통해 개인행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열쇠가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였고, 김선영·김형곤(2009)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은 각 개인의 행동양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 하나로 특히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객의 행동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각 개인의 행동 태도에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관광 분야에서 지각된 위험은 관광상품을 구매, 선택 혹은 체험할 때 관광객들이 지각하는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각된 위험은 관광객이 관광지이미지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관광목적지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Um 외, 1990).

실제로 2015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와 2019년 5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강에서의 유람선 침몰 사건 등으로 유럽 여행객들이 감소하였고(김우정, 2022), 제주도 경우도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입도 관광객이 2020년 말 기준 1,0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33%가 하락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23).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관광객은 코로나19 감염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곳인지를 확인하고 선택하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관광지를 선택하려는 속성은 최종적으로 관광지 방문으로 이어지는 핵심 역할을 하므로(이경숙·전보람, 2018) 이와 관련한 연구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관광 후 관광객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관광 활동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다(임화순·남운섭, 2018).

관광객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목적지 선택에 있어 주요한 변인이 되는 위험지각과 선택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들 요인이 관광객이 관광 후 느끼는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 모색은 향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제주 관광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앞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1) 라이프스타일과 위험지각과의 관계

이혜련·김윤민(2018)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안전추구, 모험추구, 건강추구형 모두 식용 곤충 위험지각 요인 위생 및 안전위험과 제품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김충효·서원석·이순구(2008)는 라이프스타일 군집별 신체적 위험, 기능적 위험, 금전적 위험, 사회심리적 위험, 미래시간 손실 위험 등 위험지각 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달영·정혜영(1999)은 패션지향, 유명브랜드선호, 캐주얼선호형 등 3개의 라이프스타일 군집 간 사회·심리적 위험, 상품구색 위험, 품질기능 위험에서 위험지각 수준이 높고 낮음의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진정(2013)은 관광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신체적위험, 관광서비스위험, 심리적위험, 금전적위험 등 위험지각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정재훈(2015)은 라이프스타일 군집별 심리적위험, 제품에 대한 위험, 경제적 위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김연희(2013)도 인터넷 라이프스타일 군집별 쇼핑 위험지각과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였고, 김정희(2005)는 라이프스타일이 여행상품 구매시 위험지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 관계를 확인하였다.

Yang 외(2022)는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위험지각에 통계적으로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Sjöberg 외(2005)는 라이프스타일이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라이프스타일과 위험지각 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을 것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H1과 가설 H1에 대한 연구모형을 [그림 3-2]와 같이 설정하였다.

H1. 라이프스타일은 위험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건강추구형은 코로나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건강추구형은 신체적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건강추구형은 경제적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활동추구형은 코로나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활동추구형은 신체적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6 활동추구형은 경제적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7 보수추구형은 코로나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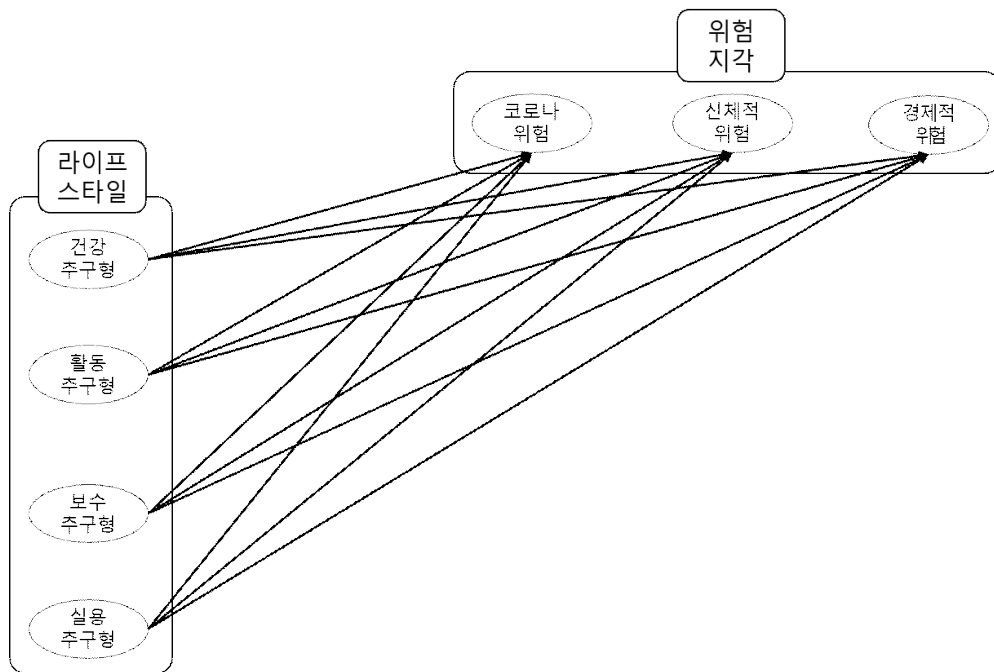
H1-8 보수추구형은 신체적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9 보수추구형은 경제적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0 실용추구형은 코로나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1 실용추구형은 신체적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2 실용추구형은 경제적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3-2〉 가설 H1 연구모형

2) 라이프스타일과 선택속성과의 관계

영기·홍영호(2011)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선택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총화(2020)는 감각추구형을 제외한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관광지 선택속성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했으며, 유순호·채선영·안선영(2020)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이 선택속성에 부분적으로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이진희(2019)은 라이프스타일 유형 군집별 좋은경치, 관광종사원들이 친절함 등 관광지 선택속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고, 김현·박제은·장호성(2019)은 유럽관광지의 안락성과 시설 및 편의성 등 선택속성 요인들이 라이프스타일 군집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김병직·양위주(2020)는 라이프스타일이 섬 관광 선택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상태(2005)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은 호텔 선택속성에 있어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현중(2020)은 라이프스타일 세분 집단 간 리조트 선택속성 모두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검증했으며, 이동욱(2019)은 스쿠버다이빙 라이프스타일이 선택속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재곤(2018) 연구에서 여행상품 선택속성은 관광소비자의 주관적인 성향인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고, 김경환(2019)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군집별 선택속성에 부분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검증했으며, 김성연(2018) 연구에서도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웨딩이벤트 선택속성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Danielle 외(2022)는 인도네시아 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이 국내 관광지 선호도에 상당한 영향이 미치는 것을 확인했고, Duman 외(2020)는 오스트리아 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이 국내관광을 위한 휴가 유형 선택에 연관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라이프스타일과 선택속성 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을 것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H2와 가설 H2에 대한 연구모형을 [그림 3-3]과 같이 설정하였다.

H2. 라이프스타일은 관광지 선택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건강추구형은 코로나안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건강추구형은 문화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건강추구형은 매력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건강추구형은 힐링인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5 활동추구형은 코로나안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6 활동추구형은 문화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7 활동추구형은 매력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8 활동추구형은 힐링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9 보수추구형은 코로나안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0 보수추구형은 문화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1 보수추구형은 매력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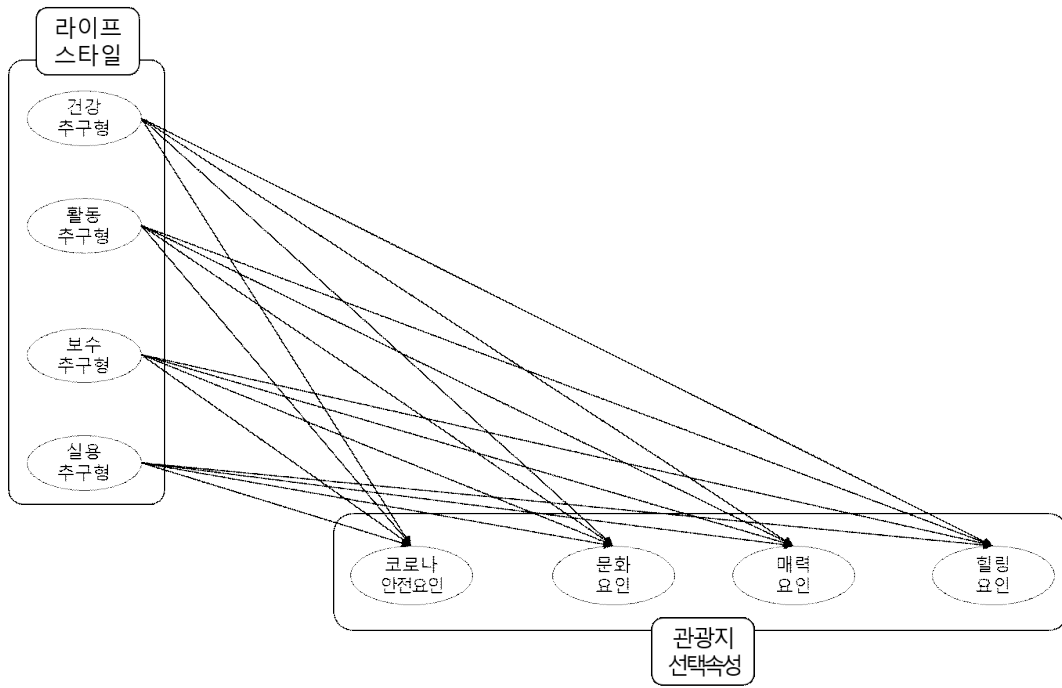
H2-12 보수추구형은 힐링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3 실용추구형은 코로나안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4 실용추구형은 문화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5 실용추구형은 매력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6 실용추구형은 힐링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3-3〉 가설 H2 연구모형

3) 위험지각과 선택속성과의 관계

김우정(2022)은 코로나19 시기에 국외 관광위험지각이 관광지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체적 위험이 매력요인에, 재정위험은 비용요인에, 신체적위험과 재정위험은 서비스요인에 각각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윤혜진·안희정(2021)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위험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기내서비스를 제외한 방역서비스, 예약발권서비스, 운항서비스, 경제성이 중요한 선택요인임이 나타났으며, 김철원(2021)은 코로나19 위험지각 중 '심리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호텔 마케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허지현(2007)은 관광위험지각이 관광행동선호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사회·심리적 위험, 테러·전쟁 위험, 전염병 위험이 관광행동선호 요인 중 이문화 접촉추구형과 대중성추구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고, 김영우(2004) 연구에서 관광유형 군집을 종속변수로

관광동기를 독립변수로 관광전 위험지각 군집을 조절변수로 분석한 결과 관광전 위험지각 군집은 관광유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노성환·이창기(2021)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의 위험지각 중 사회적위험을 제외한 나머지 물리적위험과 신체적위험, 경제적위험지각 모두 관광지 숙박시설 선택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검증하였으며, 김문경(2020)은 소비성향과 제품 선택속성과의 영향 관계에서 위험지각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Fuchs 외(2006)는 이스라엘 방문관광객을 대상으로 신체적, 재정적, 사회심리적, 성과 및 시간위험 등 위험인식 개념을 도출하여 목적지 선택속성과의 영향 관계 연구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Chahal 외(2015)는 위험인식이 목적지 속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목적지 이미지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조절역할을 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위험지각과 선택속성 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을 것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H3과 가설 H3에 대한 연구모형을 [그림 3-4]와 같이 설정하였다.

H3. 위험지각은 관광지 선택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코로나위험은 코로나안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코로나위험은 문화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코로나위험은 매력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4 코로나위험은 힐링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5 신체적위험은 코로나안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6 신체적위험은 문화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7 신체적위험은 매력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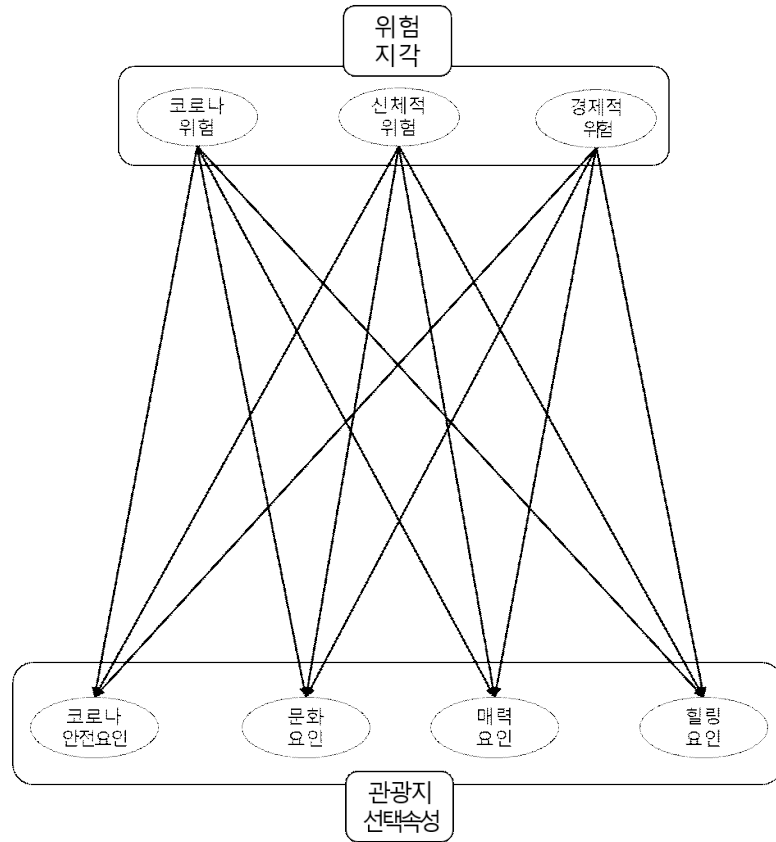
H3-8 신체적위험은 힐링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9 경제적위험은 코로나안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0 경제적위험은 문화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1 경제적위험은 매력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2 경제적위험은 힐링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3-4〉 가설 H3 연구모형

4)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와의 관계

김기현·이진희(2019)는 중문관광단지 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군집과 만족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선영·김형곤(2009) 연구에서 축제 참여자의 라이프스타일 군집유형에 따른 만족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정충화(2020)는 유학생 라이프스타일 합리적계획성, 감각추구형, 가족중심성 유형 모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진쟁·이진희(2019)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의 사교활동형, 문화추구형, 개성추구형, 유행추구형, 보수안정형 유형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병관·안완준·장병주(2019)는 라이프스타일의 가족중심, 목표추구, 여가문화 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상미·이정원(2021) 연구에서도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다양한 만남 선호와 건강음식 선호형만 음식관광 만족도에 유의적 영향이 있는 것을 살펴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 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을 것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H4와 가설 H4에 대한 연구모형을 [그림 3-5]와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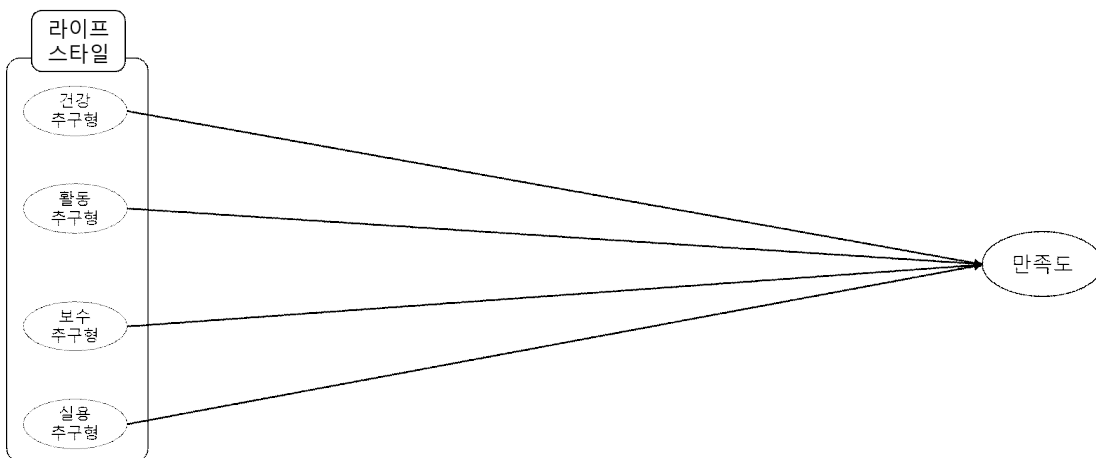
H4. 라이프스타일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1 건강추구형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활동추구형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3 보수추구형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4 실용추구형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3-5〉 가설 H4 연구모형

5) 위험지각과 만족도와의 관계

고한두(2021) 연구에서는 강릉시 방문관광객들의 지각된 위험은 관광 만족을 평가하는데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김철원(2021)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위험지각 요인 중 심리적 위험요인만이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고, 김은진·유

현경·윤유식·오정미(2016)는 방문위험지각 세분화에 따른 만족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검증했다.

유창근·이혜린(2014) 연구에서 항공사 위험지각 요인 중 신체/심리적 위험과 기능적 위험이 각각 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이초혜(2002)는 관광자의 여행상품 위험지각 중 기능적, 사회심리적, 금전적위험이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김현우·김영리·윤지환(2022)은 게스트하우스 방문객의 지각된 위험이 만족도에 부(-)의 영향이 있음을 규명하였으며, Davidson(2010)은 지각된 위험이 고객 만족과 재방문 의도 등의 선행변수로도 매우 중요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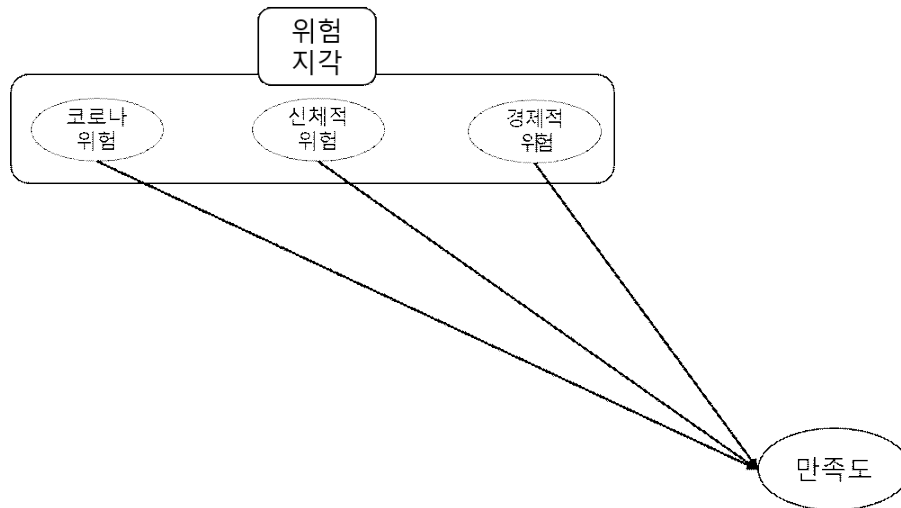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위험지각과 만족도 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을 것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H5와 가설 H5에 대한 연구모형을 [그림 3-6]과 같이 설정하였다.

H5. 위험지각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1 코로나위험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2 신체적위험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3 경제적위험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3-6〉 가설 H5 연구모형

6) 선택속성과 만족도와의 관계

김영민(2021)은 우도 해양도립공원 선택속성 중 경관매력과 교통서비스 요인이 전반적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최동희(2022)는 선택속성 요인 매력성, 정보성, 편의성 모두가 관광 만족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음을 검증했으며, 진쟁·이진희(2019)는 면세점 선택속성 모두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정용복(2020)은 중문관광단지 선택속성 중 문화체험과 자연경관은 관광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임을 보여주었고, 윤해진·안희정(2021) 연구에서는 항공사 서비스 선택속성 중 방역서비스, 예약발권서비스, 기내서비스 요인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택속성과 만족도 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을 것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H6과 가설 H6에 대한 연구모형을 [그림 3-7]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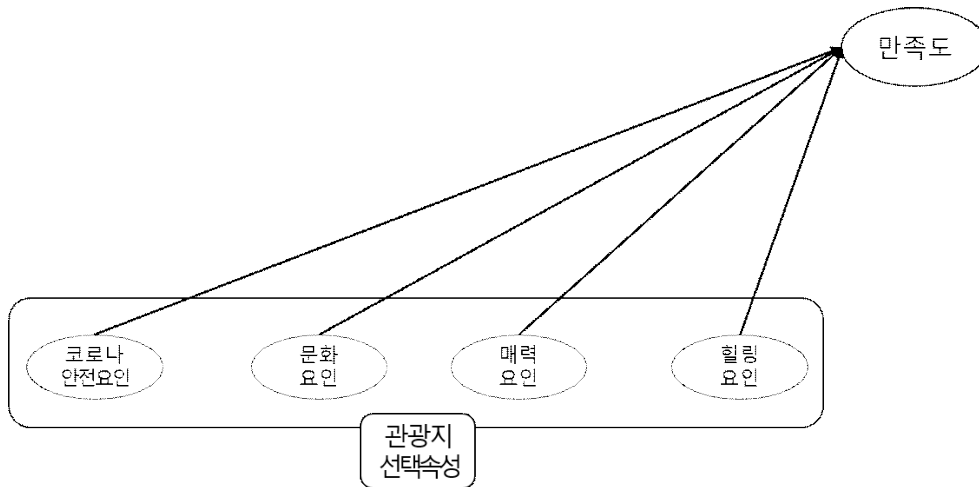
H6. 관광지 선택속성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1 코로나안전요인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2 문화요인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3 매력요인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4 힐링요인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3-7〉 가설 H6 연구모형

7) 위험지각의 매개역할

PLS-SEM에서 특정 경로에 대한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특정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s) 경로계수와 유의성을 통해 매개효과 검증이 가능하다(신건권, 2018). 따라서 라이프스타일이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4에 위험지각이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H7과 가설 H7에 대한 연구모형을 [그림 3-8]과 같이 설정하였다.

H7. 위험지각은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7-1 코로나위험은 건강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7-2 신체적위험은 건강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7-3 경제적위험은 건강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7-4 코로나위험은 활동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7-5 신체적위험은 활동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7-6 경제적위험은 활동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7-7 코로나위험은 보수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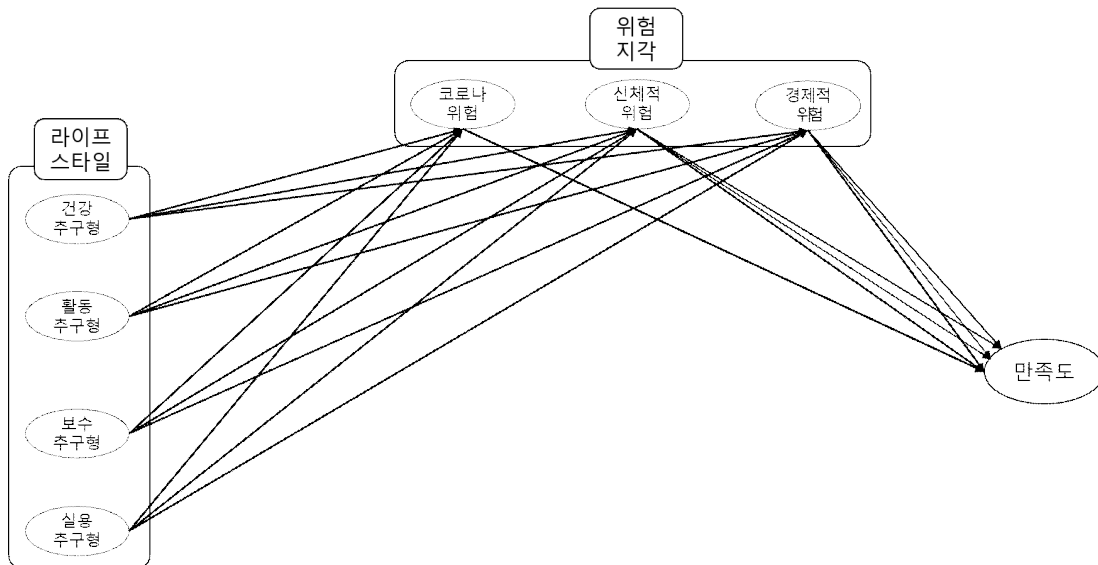
H7-8 신체적위험은 보수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7-9 경제적위험은 보수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7-10 코로나위험은 실용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7-11 신체적위험은 실용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7-12 경제적위험은 실용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그림 3-8〉 가설 H7 연구모형(매개)

8) 선택속성의 매개역할

PLS-SEM에서 특정 경로에 대한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특정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s) 경로계수와 유의성을 통해 매개효과 검증이 가능하다(신건권, 2018). 따라서 라이프스타일이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4에 관광지 선택속성이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H8과 가설 H8에 대한 연구모형을 [그림 3-9]과 같이 설정하였다.

H8. 관광지 선택속성은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8-1 코로나안전요인은 건강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8-2 문화요인은 건강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8-3 매력요인은 건강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8-4 힐링요인은 건강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8-5 코로나안전요인은 활동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8-6 문화요인은 활동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8-7 매력요인은 활동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8-8 힐링요인은 활동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8-9 코로나안전요인은 보수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8-10 문화요인은 보수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8-11 매력요인은 보수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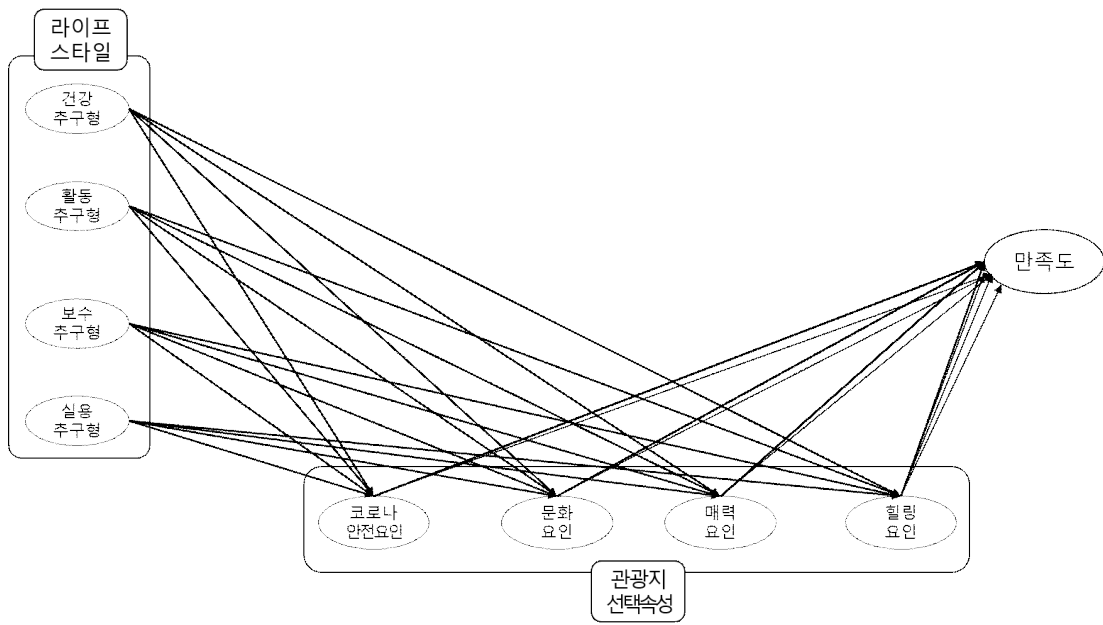
H8-12 힐링요인은 보수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8-13 코로나안전요인은 실용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8-14 문화요인은 실용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8-15 매력요인은 실용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8-16 힐링요인은 실용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그림 3-9〉 가설 H8 연구모형(매개)

제2절 조사설계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주를 방문한 20세 이상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위험지각과 관광지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개념과 도출된 요인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가설설정에 맞도록 주요 변수들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1)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개념은 각 선행연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주로 개인이나 집단의 차별화된 생활양식(김성연, 2018),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열쇠(Adler, 1969), 또는 마케팅 측면에서 재화의 구매 및 소매 등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정균표, 2011), 또한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객의 행동,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할 수 있겠다(김선영·김형곤,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을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태도, 의견, 행동으로 타인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고유한 생활양식’이라 하겠다. 또한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도출된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활동의 제한, 건강에 대한 관심과 두려움, 물가상승 그리고 더 안정적인 생활을 취하려는 상황을 고려하여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건강추구형, 활동추구형, 보수추구형, 실용추구형 등 4개로 유형화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의 각 유형별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건강추구형’은 건강한 삶에 중점을 두고 건강에 좋은 운동과 음식 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유형이라 하겠다.

‘활동추구형’은 각 종 모임 활동과 여행 및 레저활동 등 외부활동에 적극적이며, 새로운 모험을 선호하는 유형이라 하겠다.

‘보수추구형’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사회적 관습에 맞추어 규칙적인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려는 유형이라 하겠다.

‘실용추구형’은 여행을 하거나, 물건 등 구매 시 사전에 계획을 잘해서 비용 지출에 대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유형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정리한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라이프스타일 관련 선행연구(이윤섭, 2006; 전정원, 2008; 유순호 외, 2020; 조성규 외, 2016, Lee 외, 2015; 전찬수 외, 2009; 영기 외, 2011; 진쟁 외, 2019; 문혜진, 2017 등)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2) 위험지각

일반적으로 위험지각은 특정 상황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신변 위험성 지각의 정도라 할 수 있겠다(지영근, 2022). 관광 분야에서의 위험지각은 특정 목적지 여행 서비스의 구매와 소비에 대한 우려이자 심리적 영향(Huang, 2008)이라고 할 수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시기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지각(김정서, 이결재, 2021)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험지각을 ‘제주 관광에 대한 위험지각으로 관광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 신체적, 경제적 위험에 노출될 두려움과 그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하겠다. 또한 위험지각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도출된 위험지각의 요인들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코로나 위험, 신체적 위험, 경제적위험 등 3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코로나위험’은 제주에서 관광지 시설(숙박, 식당 등)의 안전과 방역 등 코로나19 감염 등의 위험성에 대한 위험지각이라 하겠다.

‘신체적위험’은 제주에서 교통사고 위험 또는 범죄유발과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자신의 신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한 위험지각이라 하겠다.

‘경제적위험’은 제주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되거나 다른 지역보다 높은 물가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에 대한 위험지각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정리한 위험지각과 하위요인의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위험지각 관련 선행연구(Parasakul, 2023; 박세준, 2016; 권해운, 2021, 한지숙 외, 2014; 구원일, 2022; 이민재 외, 2015 등)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3) 선택속성

일반적으로 선택속성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매하는 데 있어 그 상품이 갖고 있는 특성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으로(정지영·장태선, 2020) 실제 선택을 유인할 수 있는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긍정적 요소 내지는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즉 관광지 선택속성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고유한 매력과 관광객의 욕구와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속성의 집합체로, 관광지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판단 기준이라고 하였다(염수길·이재섭, 2016). 그래서 관광객들의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윤성필,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지 선택속성을 ‘관광객들이 제주를 관광목적지로 선택, 유인할 수 있는 다른 관광지와 차별화된 환경적, 문화적, 사회적 요인들의 특성’이라 하겠다. 또한 선택속성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도출된 선택속성의 요인들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코로나안전요인, 문화요인, 매력요인, 힐링요인 등 4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관광지 선택속성의 각 요인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안전요인’은 제주에서 방역관리 및 의료시설 등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 선택하는 속성이라 하겠다.

‘문화요인’은 제주에서 역사적인 문화와 유물 등이 풍부하여 역사 교육 및 관광을 할 수 있는지 선택하는 속성이라 하겠다.

‘매력요인’은 제주에서 경관이 아름답고, 기후의 쾌적성 등 자연적 매력물이 다양한지 선택하는 속성이라 하겠다.

‘힐링요인’은 제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감 등을 얼마나 힐링(치유) 받을 수 있는지 선택하는 속성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정리한 선택속성과 하위요인의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선택속성 관련 선행연구(엄지영, 2022; 지영근, 2022; 김철원, 2021; 고한두, 2021; 정군표, 2011 등)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4) 만족도

만족은 소비자가 물건의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후의 충족한 상태에 대한 반응이다(Oliver, 1997). 관광에서의 만족은 관광객이 방문 전에 기대했던 정도와 방문 성과와의 일

치 여부 과정에서 형성되는 소비자 심리적 태도라 할 수 있다(임화순·남윤섭,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를 '제주 관광 이전과 과정에서 느끼는 코로나19 감염위험 및 기대했던 비용과 걱정 등 전반적인 제주 관광 전·후에 대한 심리적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정리한 만족도의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곽초, 2020; 고한두, 2021; 고윤길, 2022; Meng 외, 2008; Liu 외, 2023 등)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2.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라이프스타일, 위험지각, 관광지 선택속성과 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도출된 측정항목을 연구모형과 가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수와 하위요인의 조작적 정의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주요 변수에 대한 설문항목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으며 척도 1은 '전혀 아니다', 척도 2는 '아니다', 척도 3은 '약간 아니다', 척도 4는 '보통이다', 척도 5는 '약간 그렇다', 척도 6은 '그렇다', 척도 7은 '매우 그렇다'를 기준으로 하였고, 위험지각 변수의 설문항목의 척도 1은 '매우 그렇다', 척도 2는 '그렇다', 척도 3은 '약간 그렇다', 척도 4는 '보통이다', 척도 5는 '약간 아니다', 척도 6은 '아니다', 척도 7은 '전혀 아니다'를 기준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I부터 VI까지 총 6장으로 구성되었고, I장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주 관광 내용으로 방문횟수, 동반형태, 체류기간, 백신접종 횟수,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총 12개 항목으로 명목척도로 구성되었다. II장에서는 라이프스타일과 관련한 내용으로 건강추구형 4개, 활동추구형 5개, 보수추구형 4개, 실용추구형 4개로 총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III장에서는 제주 관광에 대한 위험지각과 관련한 내용으로 코로나위험지각 4개, 신체적위험지각 4개, 경제적위험지각 3개로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IV장에서는 제주 관광에 대한 관광지 선택속성과 관련한 내용으로 코로나안전요인 4개, 문화요인 4개, 매력요인 5개, 힐링요인 4개로 총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V장에서는 제주관광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한 내용으로 총 7개 항목으로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인구통계적 특성 파악을 위하여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 소득, 거주지역에 대한 내

용으로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명목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연구의 모형과 가설에서 제시하는 변수와 하위요인에 맞게 라이프스타일 17개 항목, 위험지각 11개 항목, 관광지 선택속성 17개 항목, 만족도 7개 항목으로 구성된 반영적 지표이며, 설문 항목의 세부 구성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설문지의 구성

변수	하위 요인	측정문항	선행연구	척도
관광내용 (12문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 방문 횟수? 2. 누구와 방문? 3. 몇 명이 함께 방문? 4. 제주 관광 정보의 출처? 5. 제주 관광 체류기간? 6. 제주 방문 목적은? 7. 이용한 숙박시설 종류? 8. 이용한 왕복 교통수단은? 9. 제주에서 이용한 교통수단? 10. 코로나 백신 접종 횟수? 11. 제주 관광의 특성? 12. 1인당 1일 평균 지출비용? (비행기, 배 이용료 제외) 	제주관광공사(2022)	명목 척도
라이프 스타일 (17문항)	건강 추구형 (4문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 관련 정보에 관심이 많다. 2. 건강 유지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3. 건강식품(자연, 유기농 등) 이용한다. 4.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식생활을 한다. 	백승현(2007), 이원갑(2008), Chen 외(2014), Lee 외(2015) 문혜진(2017), 김도윤(2018), 강하연(2019), 김경환(2019), Težak Damijani(2019), 왕결 외(2021), 오동건(2022)	7점 척도
	활동 추구형 (5문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휴가시 여행이나 레저활동을 하는 편이다. 6. 친구, 동창회, 직장 등 모임에 적극 참여한다. 7. 새로운 모험 및 사람 만남 선호한다. 8. 미술관, 전시관, 영화 감상 좋아한다. 9. 운동경기 보는 것보다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윤섭(2006), 전정원(2008), 권미영(2008), 소장록 외(2009), 조성규 외(2016), 김성연(2018), 노해득(2018), 김재곤(2018), 김기현 외(2019), 김병직 외(2020), 유순호 외(2020)	
	보수 추구형 (4문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어른들 앞에서 담배 피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11. 사회적 관습에 맞춰서 사는 편이다. 12. 새로운 변화보다 규칙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한다. 13. 유행하는 스타일보다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호한다. 	이상태(2005), 전찬수 외(2009), 영기 외(2011), 정용주 외(2012), 김성연(2018), 유순호 외(2020)	
	실용 추구형 (4문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 여행할 때 미리 계획을 짜고 그에 따라 할려고 노력한다. 15. 관광지, 숙박 등 선택시 실용적인 부분을 제일 고려한다. 16. 여러 화사 제품을 비교 후 구매한다. 17. 이벤트(가격할인 등) 기간에 물건을 구매한다. 	장양래(2005), 하정순(2007), 문혜진(2017), 김재곤(2018), 김기현 외(2019), 진쟁 외(2019), 김병직 외(2020)	

위험지각 (11문항)	코로나 위험 (4문항)	1.제주 관광지 시설(숙박,식당 등)이 안전할 것이다. 2.제주의 의료시설 및 의료기술 수준이 높을 것이다. 3.제주 관광지의 먹거리가 안전이 좋을 것이다. 4.여행 중 질병, 감염병 위험이 괜찮을 것이다.	노재현(2013), 노정희 외(2016), 박세준(2016), 민웅기 외(2017), 최원실 외(2017), 조승아 외(2018), 권혜윤(2021), 진미안 외(2022), Rahman 외(2021), Ertaş 외(2022), Han 외(2022), Parasakul(2023)	7점 척도
	신체적 위험 (4문항)	5.제주 여행에서 비행기,선박 이용시 사고 위험 괜찮을 것이다. 6.자연재해(지진,태풍,쓰나미 등) 발생 위험이 괜찮을 것이다. 7.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이 괜찮을 것이다. 8.강도나 폭행 등의 범죄 유발 위험이 괜찮을 것이다.	류인평 외(2011), 한지숙 외(2014), 오정미 외(2014), 이민재 외(2015), 김은진 외(2016), 노정희 외(2016), 민웅기 외(2017), 류재숙 외(2017), 최원실 외(2017), 노성환 외(2021), 권혜윤(2021), 구원일(2022), 진미안 외(2022), 조용진 외(2022), Parasakul(2023)	
	경제적 위험 (3문항)	9.국내 다른 지역과 물가가 비슷할 것이다. 10.처음 계획한 것과 비용이 비슷할 것이다. 11.부담한(바가지) 요금 없을 것이다.	류인평 외(2011), 오정미 외(2014), 김은진 외(2016), 민웅기 외(2017), 최원실 외(2017), 권혜윤(2021), 노성환 외(2021), 김정서 외(2021), Saidmamatov 외(2021), 구원일(2022)	

관광지 선택속성 (17문항)	코로나 안전 요인 (4문항)	1.사회적으로 안전한 곳인가? 2.안전시설이 풍부하고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인가? 3.관광지 시설(숙박, 식당 등) 청결한가요? 4.관광지 방문객 밀집도 등 방역관리가 잘되나요?	최용훈(2008), 전찬수 외(2009), 허양례(2011), 박종찬(2011), 노재현(2013), 송수익(2015), 유순호 외(2020), 고한두(2021), 엄지영(2022), 정총화(2020) 지영근(2022), 이암(2022), Kim 외(2022), 고윤길(2022), Pappas 외(2022)	7점 척도
	문화 요인 (4문항)	5.역사적인 문화와 유물이 풍부한 곳인가? 6.역사 교육과 관광이 가능한 곳인가? 7.다양한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인가? 8.현지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인가?	장양례(2005), 허양례(2011), 영기 외(2011), 정군표(2011) 민양기 외(2015), 엄지영(2022), 정총화(2020), 김우정(2022) 왕청비 외(2022),	
	매력 요인 (5문항)	9.경관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곳인가? 10.계절과 기후 쾌적성을 느낄 수 있나요? 11.자연적 매력물이 다양한 곳인가? 12.다양한 살거리 등 쇼핑장소가 있나요? 13.내가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인가?	신현호(1999), 장양례(2005), 최용훈(2008), 전찬수 외(2009), 박종찬(2011), 영기 외(2011), 정군표(2011), 민양기 외(2015), 정총화(2020), 유순호 외(2020), 조성규 외(2016), 김기현 외(2019) 소재민 외(2022), 엄지영(2022), Pappas 외(2022)	
	힐링 요인 (4문항)	14.치유(힐링)관광을 통해 쌓였던 긴장을 풀수 있나요? 15.치유(힐링)관광 프로그램이 다양한가요? 16.치유(힐링)관광 자원이 풍부한가요? 17.치유(힐링)관광을 위한 신뢰감 있는 전문인력이 있나요?	김준호 외(2010), 광행구 외(2008), 홍수장 외(2013), 심우석(2015), 김경희 외(2020), 소재민 외(2022), BUKHBAT(2020)	
만족도 (7문항)	1.제주를 선택한 나의 결정에 만족 2.제주 방문에 대한 전반적 만족 3.내가 기대했던 수준 대비 비용 적절 4.제주는 다른 관광지에 비해 시설 만족 5.코로나 시기 제주 관광에 대한 안전성에 만족 6.제주 관광지 홍보 및 정보제공이 적절 7.제주 관광의 좋은점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달	Meng 외(2008), 광초(2020), 고한두(2021), 고윤길(2022), Liu 외(2023)	7점 척도	
인구통계적 특성 (5문항)	1. 귀하의 성별은 2. 귀하의 연령은 3. 귀하의 학력은 4. 가족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5. 귀하의 거주지는	연구자	명목 척도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위험지각과 관광지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확인할 목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주를 방문한 20세 이상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의 모집단을 살펴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이 1,023만 명(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23)이며, 이들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으로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표본선정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조사대상 표본의 선정을 위해 비확률적 표본추출 방법 중에서 가장 정교한 추출 방법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이군희, 2018) 할당표본추출방법(quota sampling)을 적용하였다(김동일·윤유식, 2012; 송운강·류시영·박용민, 2016; 민창기, 2017; 윤혜진, 2018; 정희정·구철모·정남호, 2020; 남은경·이승곤, 2021; 이의수, 2021).

다만, 할당표본추출방법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할당된 표본을 선정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조사기간, 조사자의 특성 등에 따라 편향 또는 제한된 표본이 추출될 확률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을 잘 이용하면 모집단의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표본추출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강태순·오형민·김종규·정광영·황순미·김수민, 2017; 이의수, 2021).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주를 방문한 20세 이상 내국인 관광객 중 한국관광공사의 제주 방문객 지역별, 성별, 연령별 분포 비율(한국관광공사, 2023)을 적용하여 총 600명의 조사대상 표본을 선정하였다.(〈표 3-2〉 참조).

〈표 3-2〉 한국관광공사 제주 방문객 분포 비율

(단위:%)

시도명	지역별 비율	여	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서울시	〈23.8〉 (19.8)	〈48.8〉 (50.3)	〈51.2〉 (49.7)	〈23.1〉 (18.0)	〈19.9〉 (18.5)	〈18.7〉 (19.2)	〈20.3〉 (17.7)	〈13.5〉 (16.0)	〈4.6〉 (10.7)
경기·인천	〈31.4〉 (31.8)								
충청권	〈10.7〉 (10.8)								
경상권	〈21.0〉 (25.5)								
전라권	〈10.2〉 (9.2)								
강원도	〈2.9〉 (2.8)								
총계	100.0								

주:1) '〈〉'는 한국관광공사 제주방문객 분포 비율

주:2) '()'는 본 연구 설문조사 비율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앞서 관광학 박사 5명, 석사 1명 그리고 국어과 교수 1명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측정도구의 문항 및 구성요인이 본 연구의 주제와 연구모형, 변수의 개념들과 잘 연계되는지에 대해 1차 의견 청취 후 일부 문항에 대해 수정·보완하였다. 수정·보완된 설문 내용에 대해 재차 2차 의견을 청취하였고 전문가들 조언에 따라 일부 문항에 대해 최종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위험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문조사는 1차 2023년 2월 22일 온라인 설문 조사업체 '엔트러스트 서베이'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주를 방문한 20세 이상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차 설문조사 결과 측정도구의 문항에 대한 이해나 답변 과정에서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1차에 이어 2023년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업체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2차 조사를 시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 현황은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단위:명,%)

구분	1차(2023년 2월 22일)		2차(2023년 2월27일부터 3월4일)		소 계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완료 응답자	50	37.6	553	16.7	603
중도 포기 응답자	2	1.5	48	1.4	50
조사 조건 탈락 응답자	54	40.6	1,422	42.9	1,476
할당량 초과 응답자	27	20.3	1,295	39.0	1,317
불량응답자 수	0	0.0	3	0.1	3
전체응답자 수	133	100.0	3,318	100.0	3,451
유효응답자 수	50	37.6	550	16.6	600

자료:설문조사 전문업체 '엔트러스트 서베이' 제공 연구자 재정리

자료수집 방법은 〈표 3-4〉와 같으며, 설문지는 설문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조사 조건에 안맞거나 불량 응답자 등의 설문지를 거르고 최종 600부를 받아 이를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3-4〉 표본의 선정과 자료수집 방법

구분	내용	비고
모집단	제주방문 20세 이상 내국인 관광객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설문방법	온라인 조사	코로나19 감염위험 등 상황 고려 전문업체 '엔트러스트 서베이'
표본선정	할당표본추출방법(지역별, 성별, 연령별)	한국관광공사 제주방문객 분포비율
조사기간	1차:2023년 2월 22일 2차:2023년 2월 27일부터 3월 4일	
측정방법	자기기입식	
표본 수	총 600부	

2. 분석방법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유효 표본 600부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6단계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링(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은 통계학의 발전에 따라 회귀분석, 요인분석, 및 경로분석이 결합 되어 발전된 다변량통계기법의 하나로 잠재변수, 측정변수, 및 측정오차 간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교육학, 심리학, 행정학, 사회학 등의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의학, 보건학, 자연과학 등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로도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신건권, 2018).

구조방정식모델링(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은 어떤 모델 추정 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분산 기반 구조방정식(Covariance-Based SEM:CB-SEM)과 부분최소제곱 기반 구조방정식(Partial Least Squares SEM:PLS-SEM)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표 3-5〉 참조).

〈표 3-5〉 PLS-SEM과 CB-SEM 비교

구분	PLS-SEM	CB-SEM
운영형태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경로분석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	확인적 요인분석(CFA)과 경로분석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
연구모형 성격	연구모형이 탐색적 성격이 강하며 모형이 크고 복잡한 경우	연구모형이 확인적 성격이 강하며 모형이 크기가 작은 경우
이용목적	외생잠재변수에 의한 내생잠재변수들의 예측목적	가설검증을 통해 이론검증을 하는 목적
모델 복잡성	매우 큰 모델 복잡성이 있어도 적용가능	중간 이하의 모델 복잡성이 있을 때 적용가능
모델평가	측정모델과 구조모델 동시 평가	측정모델 평가 후 구조모델 평가

자료:신건권(2018), 강용석(2021), 장모나(2021) 참조 연구자 재정리

따라서 본 연구에서 PLS-SEM을 사용한 선행연구(오민정, 2020; 강용석, 2021; 장모나, 2021; 권해운, 2021; 이정표·고민환, 2021; 김미영, 2021; 윤효진, 2022 등)을 참조하여 SPSS 22.0(빈도분석 등)과 PLS-SEM 프로그램인 Smart PLS 4.0을 사용하여 1단계 측정모델 분석, 2단계 구조모델 분석 적합성과 마지막으로 가설검증을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 절차는 다음과 같다(〈표 3-6〉 참조).

첫째,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과 관광 내용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SPSS 22.0을 통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성개념 내 측정항목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mart PLS 4.0을 통해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둘째, Smart PLS 4.0을 통해 각 측정항목의 내적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를 검증하기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와 Dijkstra-Henseler's Rho_A(ρ_A) 그리고 개념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 값을 확인하였고,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는 표준화적재치(outer loadings)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확인하였다.

셋째, Smart PLS 4.0을 통해 구성개념 간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평가를 위한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HTMT(heterotrait-monotrait ratio)와 Fornell-Larcker criterion 값을 적용하여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Smart PLS 4.0을 통하여 구조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결정계수(R^2 :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와 예측적 적합성(Q^2 : predictive relevance) 그리고 다중공선성(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어 측정모델 적합성이 문제가 없으며 또한, 구조모델 적합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 구성개념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여섯째, Smart PLS 4.0을 통해 위험지각(risk perceptions)과 관광지 선택속성(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이 라이프스타일(lifestyle)과 만족도(satisfaction) 간의 영향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표 3-6〉 분석방법과 도구

구분	분석방법	분석도구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제주 관광내용	빈도분석	SPSS 22.0
측정모델 적합성 - 측정항목 내적일관성 신뢰도 - 집중타당도	PLS 구조모델 분석 (PSL-SEM)	Smart PLS 4.0
구조모델 적합성 - 결정계수 R^2 외		
가설검증 (구조모델 분석)		
매개효과 검증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1. 인구통계적 특성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실시하기 전 수집된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주를 방문한 20세 이상 내국인 관광객 중 유효 표본으로 선정된 600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했으며 분석 결과는 <표 4-1>과 같다.

먼저, 응답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50.3%로 남성 49.7%보다 약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 분포는 40대가 1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뒤를 이어 30대(18.5%), 20대(18.0%), 50대(17.7%), 60대(16.0%), 70대 이상이 10.7%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최종학력은 대학교 재학/졸업이 47.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이어 전문대 재학/졸업(11.5%), 고졸 이하(11.0%) 마지막으로 대학원 재학/졸업이 8.8%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은 600만 원 이상이 36.7%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뒤를 이어 500~600만 원 미만(17.0%), 400~500만 원 미만(16.2%), 300~400만 원 미만(15.3%), 마지막으로 300만 원 미만이 14.8%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거주지별로는 경기·인천권이 31.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경상권(25.5%), 서울시(19.8%), 충청권(10.8%) 다음으로 전라권(9.2%), 강원권(2.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소계(명)	빈도(명)	비율(%)
성별	여성	600	302	50.3
	남성		298	49.7
연령	20대	600	108	18.0
	30대		111	18.5
	40대		115	19.2
	50대		106	17.7
	60대		96	16.0
	70대 이상		64	10.7
	학력		고졸 이하	600
전문대 재학/졸업		69	11.5	
대학교 재학/졸업		412	68.7	
대학원 재학/졸업		53	8.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600	89	14.8
	300~400만 원 미만		92	15.3
	400~500만 원 미만		97	16.2
	500~600만 원 미만		102	17.0
	600만 원 이상		220	36.7
거주지	서울시	600	119	19.8
	경기·인천권		191	31.8
	충청권		65	10.8
	경상권		153	25.5
	전라권		55	9.2
	강원권		17	2.8

2. 관광 내용적 특성

본 연구 응답자들의 제주 관광 내용적 특성은 〈표 4-2〉에 보는 바와 같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조사 시점인 2023년 2월까지 제주를 방문한 횟수가 1회인 경우가 43.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2회(34.7%), 3회(15.2%), 4회 이상이 7.0% 순으로 나타났다. 같이 방문한 동반자는 가족/친지와 함께가 6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이어 친구(15.8%), 연인(10.0%), 직장동료(4.3%), 혼자(4.0%) 순서이고, 기타(1.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반한 인원수는 2~3명이 57.7%로 가장 많았으며 4~5명(30.3%), 6~9명(5.2%), 혼자 4.0% 순이고 10명 이상과 함께 방문이 2.8%로 나타났다. 제주 관광에 대한 정보의 원천으로는 인터넷/앱이 73.2% 단연코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본인 지식과 경험(8.8%), 지인의 소개(7.3%), TV, 라디오, 신문 매체 등(6.5%) 순서이며 여행사 및 기타가 4.2%로 나타났다.

다음 제주 관광의 체류기간은 2박 3일이 41.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3박 4일(36.5%), 4박 5일 이상이 14.7%로 순이며 1박 2일 이하가 7.7%이다. 제주 관광의 방문목적으로는 휴양 및 관광이 86.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올레길 체험 등 도보여행이 4.3%, 친구/친지 방문(3.5%), 회의 및 업무(2.8%), 레저스포츠(1.5%) 순이고 한 달 살기 등 기타가 1.3%로 나타났다.

다음 숙박시설 이용은 호텔이 45.0%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펜션(22.5%), 콘도/리조트(18.8%), 게스트하우스/호스텔(7.5%), 기타(6.2%) 순으로 나타났다. 왕복 시 이용 교통으로는 비행기가 95.0%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배(3.0%), 비행기(올 때)/배(갈 때), 배(올 때)/비행기(갈 때)가 각각 1.3%, 0.7%이다. 제주도 내 이용 교통편으로는 렌터카 이용이 77.3%로 가장 많았으며 대중교통 버스, 택시가 각각 5.8% 친구/지인 차량(3.5%), 전세버스(2.2%) 오토바이 등 기타가 4.0%로 나타났다.

다음 코로나19 백신접종 횟수는 3회가 50.3%로 가장 많았고 2회(31.5%), 4회 이상(11.5%), 0회(4.3%) 마지막으로 1회가 2.3%이다. 제주 관광특징으로는 생태관광(자연)이 5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힐링(웰니스, 치유, 스파 등)이 14.8%, 다음으로 음식관광(12.8%), 도시관광(5.8%), 해양관광(5.0%)이고 쇼핑 및 역사문화관광이 각각 1.5%, 1.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주 관광에서 비행기, 배편 이용료를 제외한 1인당 1일 평균 지출한 비용은 20만 원 미만이 26.8%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30만 원 미만(22.8%), 10만 원 미만(14.5%), 50만 원 이상이 13.2%로 나타났으며 40만 원 미만(11.8%), 50만 원 미만이 10.3% 순이다.

〈표 4-2〉 관광 내용적 특성

구분		소계(명)	빈도(명)	비율(%)
방문횟수	1회	600	259	43.2
	2회		208	34.7
	3회		91	15.2
	4회 이상		42	7.0
누구와 방문	혼자	600	24	4.0
	친구		95	15.8
	연인		60	10.0
	가족/친지		384	64.0
	직장동료		26	4.3
	모임		8	1.3
	기타		3	.5
몇 명이 방문	혼자	600	24	4.0
	2~3명		346	57.7
	4~5명		182	30.3
	6~9명		31	5.2
	10명 이상		17	2.8
정보원천	인터넷/앱	600	439	73.2
	언론매체(TV, 라디오, 신문 등)		39	6.5
	본인 지식과 경험		53	8.8
	지인의 소개		44	7.3
	여행사		21	3.5
	항공사/호텔		1	.2
	기타		3	.5
체류기간	1박 2일 이하	600	46	7.7
	2박 3일		247	41.2
	3박 4일		219	36.5
	4박 5일 이상		88	14.7
방문목적	휴양 및 관람	600	520	86.6
	회의 및 업무		17	2.8
	레저스포츠		9	1.5
	올레길 체험(한라산, 오름 등)		26	4.3
	친구/친지방문		21	3.5
	기타		7	1.3
숙박시설	호텔	600	270	45.0
	콘도/리조트		113	18.8
	펜션		135	22.5
	게스트하우스/호스텔		45	7.5
	기타		37	6.2
왕복교통	비행기	600	570	95.0
	배		18	3.0
	비행기(올 때)/배(갈 때)		8	1.3
	배(올 때)/비행기(갈 때)		4	.7

구분		소계(명)	빈도(명)	비율(%)
도내교통	렌터카	600	464	77.3
	전세버스		13	2.2
	대중교통(버스)		35	5.8
	대중교통(택시)		35	5.8
	자전거		1	.2
	오토바이		2	.3
	본인 자가용		21	3.5
	친구/지인 차량		29	4.9
백신횟수	0회	600	26	4.3
	1회		14	2.3
	2회		189	31.5
	3회		302	50.3
	4회 이상		69	11.5
관광특징	도시관광	600	35	5.8
	생태관광(자연)		331	55.2
	쇼핑관광		9	1.5
	역사문화관광		7	1.2
	음식관광		77	12.8
	모험/레포츠		7	1.2
	해양관광		30	5.0
	힐링(웰니스, 치유, 스파 등)		89	14.8
	관람시설(테마파크 등) 외		15	2.5
지출비용 (1일/인 평균)	10만 원 미만	600	87	14.5
	20만 원 미만		161	26.8
	30만 원 미만		137	22.8
	40만 원 미만		71	11.8
	50만 원 미만		65	10.8
	50만 원 이상		79	13.2

제2절 기술통계 분석

측정도구(구성개념) 내 측정항목의 특성과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Smart PLS 4.0에서 산출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았다. 기술통계량에는 평균, 최소값, 최대값, 첨도(kurtosis)와 왜도(skewness)가 포함된다.

Smart PLS에서는 정규분포 가정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비정규분포 데이터의 경우에도 통계분석이 수행되지만, 데이터가 심각하게 정규성을 위반할 때는 분석 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Smart PLS를 활용하면서도 정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신건권, 2018). 따라서 Smart PLS에서 산출된 기술통계량 값 중 왜도와 첨도를 통하여 정규분포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의 경우에 측정 데이터는 정규분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Kline, 2011).

본 연구에서 측정된 왜도의 값은 .027~-1.258로 절대값이 3 미만으로 나타났고, 첨도의 값도 1.565~-1.812로 절대값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정규분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구성타당도는 확보되었다 할 수 있다.

측정도구(구성개념)의 평균값(7점 척도 기준)을 살펴보면 라이프스타일(lifestyle)과 관련한 총 17개 측정항목의 평균값은 5.712~3.943으로 대체로 중간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험지각(risk perceptions)과 관련한 11개 측정항목의 평균값은 5.587~3.013로 경제적위험만 중간값을 상회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중간값을 하회하고 있다.

관광지 선택속성(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과 관련한 17개 측정항목의 평균값 또한 6.105~4.790으로 중간값을 상회하고 있으며 만족도(satisfaction)와 관련한 7개 측정항목의 평균값은 5.633~4.525로 마찬가지로 중간값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변수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의 측정항목 중 가장 높은 평균값(5.712)을 보인 항목은 보수추구형 항목의 10번(어르신들 앞에서 담배 피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이고 가장 낮은 평균값(3.943)을 보인 항목은 활동추구형 항목 중 9번(운동경기를 보는 것보다는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이다.

〈표 4-3〉 라이프스타일(lifestyle) 기술통계 분석

측정항목		평균	최소 값	최대 값	표준 편차	침도	왜도	
라 이 프 스 타 일	건강 추구형	1.건강 관련 정보에 관심이 많다.	5.458	2	7	1.09	-.275	-.388
		2.건강 유지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5.008	1	7	1.373	.126	-.736
		3.건강식품, 자연식품, 유기농식품 등을 이용한다.	4.908	1	7	1.317	-.177	-.406
		4.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식생활을 한다.	4.687	1	7	1.374	-.186	-.412
	활동 추구형	5.휴가 시 여행이나 레저활동을 하는 편이다.	4.972	1	7	1.294	.055	-.628
		6.친구, 동창회, 직장 등 모임에 적극 참여한다.	4.408	1	7	1.439	-.41	-.261
		7.새로운 모험을 하거나 사람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	4.207	1	7	1.495	-.584	-.236
		8.미술관, 전시관, 영화 감상을 좋아한다.	5.252	1	7	1.259	.036	-.588
		9.운동경기를 보는 것보다는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3.943	1	7	1.625	-.812	-.07
	보수 추구형	10.어르신들 앞에서 담배 피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5.712	1	7	1.252	.601	-.973
		11.사회적 관습에 맞추어 사는 편이다.	5.233	2	7	1.062	.447	-.702
		12.새로운 변화보다 규칙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한다.	5.247	1	7	1.149	.200	-.572
		13.유행하는 스타일보다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호한다.	5.060	2	7	1.155	-.410	-.280
	실용 추구형	14.여행할 때 미리 계획을 짜고 그에 따라 여행하려고 노력한다.	5.318	1	7	1.199	.368	-.719
		15.여행할 때 관광지, 숙박 등 선택 시 실용적인 부분을 제일 고려한다.	5.492	1	7	1.085	.445	-.67
		16.여러 회사의 제품을 비교한 후에 구매한다.	5.455	1	7	1.13	1.354	-.87
		17.주로 이벤트(가격 할인 등) 기간에 물건을 구매한다.	5.120	1	7	1.209	.187	-.543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험지각(risk perceptions)의 코로나위험과 신체적위험 항목의 평균값은 모두 4.0 이하로 위험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왔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위험 항목은 모두 5.0 이상으로 위험을 더 지각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경제적위험 항목의 11번(부당한(바가지) 요금)이 없을 것이다)이 5.587로 가장 높은 위험지각을 보이고 있다.

〈표 4-4〉 위험지각(risk perceptions) 기술통계 분석

측정항목		평균	최소 값	최대 값	표준 편차	첨도	왜도
코로나 위험	1.제주 관광지 시설(숙박, 식당 등)이 안전할 것이다.	3.013	1	7	1.279	.369	-.780
	2.제주의 의료시설 및 의료기술 수준이 높을 것이다.	3.347	1	7	1.392	-.603	-.235
	3.제주 관광지의 먹거리 안전이 좋을 것이다.	3.130	1	7	1.456	-.250	-.588
	4.여행 중 질병, 감염병 위험이 괜찮을 것이다	3.485	1	7	1.436	-.744	-.186
위험 지각 신체적 위험	5.제주 여행에서 비행기, 선박 이용시 사고 위험이 괜찮을 것이다	3.568	1	7	1.456	-.718	-.121
	6.자연재해(지진, 태풍, 쓰나미 등) 발생 위험이 괜찮을 것이다..	3.785	1	7	1.501	-.766	.027
	7.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이 괜찮을 것이다.	3.825	1	7	1.468	-.624	-.026
	8.강도나 폭행 등의 범죄 유발 위험이 괜찮을 것이다.	3.365	1	7	1.467	-.495	-.321
경제적 위험	9.국내 다른 지역과 물가가 비슷할 것이다.	5.518	1	7	1.216	.391	-.759
	10.처음 계획한 것과 비용이 비슷할 것이다.	5.358	1	7	1.208	.985	-.868
	11.부당한(바가지) 요금이 없을 것이다.	5.587	1	7	1.238	.492	-.836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광지 선택속성(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의 측정항목 중 가장 높은 평균값(6.105)을 보인 항목은 매력요인 중 9번(경관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곳인가요?)이고 가장 낮은 평균값(4.790)을 보인 항목은 힐링요인 중 17번(치유(힐링)관광을 위한 신뢰감 있는 전문인력이 있나요?)이다.

〈표 4-5〉 관광지 선택속성(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 기술통계 분석

측정항목		평균	최소 값	최대 값	표준 편차	첨도	왜도	
관광지 선택 속성	코로나 안전 요인	1.사회적으로 안전한 곳인가요?	5.378	1	7	.946	.387	-.606
		2.안전시설이 풍부하고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인가요?	4.898	1	7	1.081	-.196	-.178
		3.관광지 시설(숙박, 식당 등) 청결한가요?	5.217	1	7	1.013	.123	-.396
		4.관광지 방문객 밀집도 등 방역관리가 잘되나요?	4.913	2	7	1.063	-.292	-.152
	문화 요인	5.역사적인 문화와 유물이 풍부한 곳인가요?	5.063	1	7	1.095	.045	-.271
		6.역사 교육과 관광이 가능한 곳인가요?	5.037	1	7	1.102	.129	-.402
		7.다양한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인가요?	5.015	1	7	1.158	.030	-.358
		8.현지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인가요?	5.518	1	7	1.077	.495	-.718
	매력 요인	9.경관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곳인가요?	6.105	2	7	1.002	1.565	-1.258
		10.계절과 기후의 쾌적성을 느낄 수 있나요?	5.797	1	7	.983	1.181	-.894
		11.자연적 매력물이 다양한 곳인가요?	5.983	2	7	.941	1.233	-1.000
		12.다양한 살거리 등 쇼핑 장소가 있나요?	5.587	1	7	1.019	.818	-.704
		13.내가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인가요?	5.667	1	7	.925	1.186	-.736
	힐링 요인	14.치유(힐링)관광을 통해 쌓였던 긴장을 풀 수 있나요?	5.748	2	7	.974	.587	-.749
		15.치유(힐링)관광 프로그램이 다양한가요?	5.115	1	7	1.092	.308	-.453
		16.치유(힐링)관광 자원이 풍부한가요?	5.635	2	7	.998	.140	-.593
		17.치유(힐링)관광을 위한 신뢰감 있는 전문인력이 있나요?	4.790	2	7	1.146	-.244	-.089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족도(satisfaction)의 측정항목 중 가장 높은 평균값(5.633)을 보인 항목은 1번(제주를 관광지로 선택한 나의 결정에 만족한다)이고 가장 낮은 평균값(4.525)을 보인 항목은 3번(제주 관광은 내가 기대했던 수준과 비교할 때 비용이 적절했다)이다.

〈표 4-6〉 만족도(satisfaction) 기술통계 분석

측정항목		평균	최소 값	최대 값	표준 편차	첨도	왜도
만족도	1.제주를 관광지로 선택한 나의 결정에 만족한다.	5.633	1	7	.953	.917	-.703
	2.제주 방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5.597	1	7	1.012	1.533	-1.015
	3.제주 관광은 내가 기대했던 수준과 비교할 때 비용이 적절했다.	4.525	1	7	1.383	-.397	-.319
	4.제주 관광은 다른 관광지에 비해 시설이 좋다.	4.872	1	7	1.113	.281	-.167
	5.코로나19 시기 제주 관광에 대한 안전성에 만족한다.	5.185	1	7	1.09	.549	-.488
	6.제주 관광지의 홍보 및 정보제공이 잘 이루어졌다.	5.103	1	7	1.128	.362	-.511
	7.제주 관광에 대한 좋은 점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얘기할 것이다.	5.362	1	7	1.068	.726	-.620

제3절 측정모델 평가

PLS-SEM에서 측정(measurement)과 구조모형에 대한 평가는 비모수적인 평가기준(nonparametric evaluation criteria)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2단계 과정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김장현·심경환·이철성, 2014; Sarstedt 외, 2019).

1단계는 측정모형을 평가하는 것으로 반영적 측정모델(reflective measurement model)은 모델의 내적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와 집중타당도(covergent validity), 판별타당성을 평가한다(Sarstedt 외, 2017). 2단계는 구조모형을 평가하는 것으로 잠재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VIF, 결정계수 R^2 , 효과크기 f^2 , 예측적합성 Q^2 , 경로계수의 크기와 유의성 등을 평가한다(Sarstedt 외, 2019). PLS-SEM의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은 없으며, 현재 개발 중에 있다(신건권, 2018).

본 연구의 PLS-SEM의 모형 평가의 단계별 특성 내용은 다음 (표 4-7)과 같다.

〈표 4-7〉 PLS-SEM 모델평가 특성

구분		모델평가 특성	비고
1단계	측정모델 평가	반영적 측정모델 - 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 , Rho_a, CR) - 집중타당도(outer loadings, AVE) - 판별타당도(HTMT)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은 없음 (현재 개발중임)
2단계	구조모델 평가	- 잠재변수간 다중공선성(Inner VIF) - 결정계수(R^2) - 효과크기(f^2) - 예측적 적합성(Q^2) - 경로계수(path coefficients)의 크기와 유의성	

자료 : Hair 외(2017); 신건권(2018), 강용석(2021)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1. 구성개념별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

신뢰도(reliability)란 동일 개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측정할 경우 일관적인 측정값을 나타내는지 평가하는 기준이다(이충기, 2016). 본 연구에서는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검증하

기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와 $Rho_a(p)$ 그리고 개념신뢰도(CR) 값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PLS-SEM에서 신뢰도의 평가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Rho_a(p)$ 이며 가장 적합한 신뢰도 평가 기준은 개념신뢰도(CR)를 이용하는 것이다(신건권, 2018).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신뢰도는 .6 또는 .7 이상이면 바람직하며(신건권, 2018), 개념신뢰도(CR)는 .7 이상이 되어야 신뢰도를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이충기, 2016).

타당성(validity)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이충기, 2016). 집중타당성이란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정항목들이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집중타당성의 평가 기준으로 표준화적재치(outer loadings)와 평균분산추출(AVE) 값을 사용하며(이충기, 2016), 하나의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측정항목 간에 상관관계가 높아야 집중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신건권, 2018).

표준화적재치(outer loadings)는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며 .7 이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잠재변수가 다항목으로 구성되므로 .5 이상 .7 이하 항목이 허용되기도 한다(이충기, 2016). 그리고 평균분산추출(AVE) 값은 표준화적재치를 제곱한 값들의 평균으로 측정변수들에 대한 설명력의 합으로 기준치 .5 이상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이충기, 2016).

일반적으로 SPSS 등을 통해 요인분석을 하는 것은 대부분이 탐색적 요인분석(EFA)에 해당되며, PLS-SEM은 요인회전방식을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과 공통요인분석으로 하는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내생잠재변수의 설명되지 않는 분산인 잔차(residual variance, error term)와 잠재변수 간의 예측오차(prediction error)를 최소화하여 계수들을 추정하는 비모수적 방법(nonparametric method)이다(신건권, 2018).

1) 라이프스타일(lifestyle) 신뢰도와 집중타당도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화적재치는 .602~.828(기준 > .6), 평균분산추출(AVE) 값은 .535~.631(기준 > .5)로 모두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는 .704~.810(기준 > .6), Rho_a 는 .722~.815(기준 > .7), CR 값은 .817~.874(기준 > .7)로 모두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잠재변수들에 대한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8〉 라이프스타일(lifestyle) 신뢰도와 집중타당도

잠재변수	측정항목	표준화 적재치	신뢰 계수(α)	Rho_a	CR	AVE	
라 이 프 스 타 일	건강 추구형	1.건강 관련 정보에 관심이 많다.	.792	.810	.815	.874	.635
		2.건강 유지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807				
		3.건강식품, 자연식품, 유기농식품 등을 이용한다.	.813				
		4.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식생활을 한다.	.775				
	활동 추구형	5.휴가 시 여행이나 레저활동을 하는 편이다.	.769	.788	.796	.853	.538
		6.친구, 동창회, 직장 등 모임에 적극 참여한다.	.762				
		7.새로운 모험을 하거나 사람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	.804				
		8.미술관, 전시관, 영화 감상을 좋아한다.	.663				
		9.운동경기를 보는 것보다는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660				
	보수 추구형	10.어르신들 앞에서 담배 피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699	.704	.733	.817	.531
		11.사회적 관습에 맞추어 사는 편이다.	.828				
		12.새로운 변화보다 규칙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한다.	.767				
		13.유행하는 스타일보다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호한다.	.602				
실용 추구형	14.여행할 때 미리 계획을 짜고 그에 따라 여행하려고 노력한다.	.746	.715	.722	.823	.538	
	15.여행할 때 관광지, 숙박 등 선택 시 실용적인 부분을 제일 고려한다.	.768					
	16.여러 회사의 제품을 비교한 후에 구매한다.	.733					
	17.주로 이벤트(가격 할인 등) 기간에 물건을 구매한다.	.684					

주: 표준화적재치 > .6, Cronbach α > .6, Rho_a > .7, CR > .7, AVE > .5

2) 위험지각(risk perceptions) 신뢰도와 집중타당도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화적재치는 .653~.905(기준 > .6), 평균분산추출(AVE) 값은 .652~.765(기준 > .5)로 모두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는 .824~.886(기준 > .6), Rho_a는 .860~.890(기준 > .7), CR 값은 .881~.907(기준 > .7)로 모두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잠재변수들에 대한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9〉 위험지각(risk perceptions) 신뢰도와 집중타당도

잠재변수	측정항목	표준화 적재치	신뢰 계수 (α)	Rho_a	CR	AVE	
위험지각	코로나 위험	1.제주 관광지 시설(숙박, 식당 등)이 안전할 것이다.	.837	.824	.860	.881	.652
		2.제주의 의료시설 및 의료기술 수준이 높을 것이다.	.834				
		3.제주 관광지의 먹거리 안전이 좋을 것이다.	.855				
		4.여행 중 질병, 감염병 위험이 괜찮을 것이다.	.653				
	신체적 위험	5.제주 여행에서 비행기, 선박 이용시 사고 위험이 괜찮을 것이다	.858	.886	.896	.921	.743
		6.자연재해(지진, 태풍, 쓰나미 등) 발생 위험이 괜찮을 것이다..	.850				
		7.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이 괜찮을 것이다.	.868				
		8.강도나 폭행 등의 범죄 유발 위험이 괜찮을 것이다.	.873				
	경제적 위험	9.국내 다른 지역과 물가가 비슷할 것이다.	.888	.847	.870	.907	.765
		10.처음 계획한 것과 비용이 비슷할 것이다.	.905				
		11.부당한(바가지) 요금이 없을 것이다.	.829				

주: 표준화적재치 > .6, Cronbach α > .6, Rho_a > .7, CR > .7, AVE > .5

3) 관광지 선택속성(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 신뢰도와 집중타당도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화적재치는 .718~.844(기준 > .6), 평균분산추출(AVE) 값은 .601~.671(기준 > .5)로 모두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는 .778~.850(기준 > .6), Rho_a는 .780~.851(기준 > .7), CR 값은 .858~.893(기준 > .7)으로 모두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잠재변수들에 대한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10〉 관광지 선택속성(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 신뢰도와 집중타당도

잠재변수	측정항목	표준화 적재치	신뢰 계수(α)	Rho_a	CR	AVE	
관광지 선택속성	코로나 안전 요인	1.사회적으로 안전한 곳인가요?	.744	.813	.818	.877	.641
		2.안전시설이 풍부하고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인가요?	.812				
		3.관광지 시설(숙박, 식당 등) 청결한가요?	.845				
		4.관광지 방문객 밀집도 등 방역관리가 잘되나요?	.798				
	문화 요인	5.역사적인 문화와 유물이 풍부한 곳인가요?	.828	.836	.835	.891	.671
		6.역사 교육과 관광이 가능한 곳인가요?	.836				
		7.다양한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인가요?	.844				
		8.현지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인가요?	.766				
	매력 요인	9.경관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곳인가요?	.816	.850	.851	.893	.626
		10.계절과 기후의 쾌적성을 느낄 수 있나요?	.803				
		11.자연적 매력물이 다양한 곳인가요?	.805				
		12.다양한 살거리 등 쇼핑 장소가 있나요?	.743				
		13.내가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인가요?	.787				
	힐링 요인	14.치유(힐링)관광을 통해 쌓였던 긴장을 풀 수 있나요?	.754	.778	.780	.858	.601
		15.치유(힐링)관광 프로그램이 다양한가요?	.830				
		16.치유(힐링)관광 자원이 풍부한가요?	.795				
		17.치유(힐링)관광을 위한 신뢰감 있는 전문인력이 있나요?	.718				

주: 표준화적재치 > .6, Cronbach α > .6, Rho_a > .7, CR > .7, AVE > .5

4) 만족도(satisfaction) 신뢰도와 집중타당도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화적재치는 .649~.814(기준 > .6), 평균분산추출(AVE) 값은 .591(기준 > .5)로 모두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는 .884(기준 > .6), Rho_a는 .891(기준 > .7), CR 값은 .910(기준 > .7)으로 모두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잠재변수들에 대한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11〉 만족도(satisfaction) 신뢰도와 집중타당도

잠재변수	측정항목	표준화 적재치	신뢰 계수 (α)	Rho_a	CR	AVE
만족도	1. 제주를 관광지로 선택한 나의 결정에 만족한다.	.771	.884	.891	.910	.591
	2. 제주 방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784				
	3. 제주 관광은 내가 기대했던 수준과 비교할 때 비용이 적절했다.	.649				
	4. 제주 관광은 다른 관광지에 비해 시설이 좋다.	.758				
	5. 코로나19 시기 제주 관광에 대한 안전성에 만족한다.	.793				
	6. 제주 관광지의 홍보 및 정보제공이 잘 이루어졌다.	.800				
	7. 제주 관광에 대한 좋은 점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얘기 할 것이다.	.814				

주: 표준화적재치 > .6, Cronbach α > .6, Rho_a > .7, CR > .7, AVE > .5

5) 판별타당도 분석

판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잠재변수가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충기, 2016). 여기에서 판별타당도가 있다는 말은 연구모델에 포함된 잠재변수들이 독립적이고 완벽하게 다른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신권권, 2018).

판별타당도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교차적재치(cross loadings)와 Fornell-Larcker criterion 그리고 HTMT(heterotrait-monotrait ratio) 사용이 가능하다(신권권, 2018). 본 연구에서는 PLS-SEM에서 판별타당도의 우수한 평가 기준으로 알려져 있는 HTMT(heterotrait-monotrait ratio)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HTMT는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 임계치 .85 미만이면 판별타당도가 있으며, 임계치 .85 이상이면 판별타당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Kline, 2011). 따라서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HTMT 기준값이 임계치 0.85 미만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표 4-12〉 Heterotrait-Monotrait Ratio(HTMT)

구분	건강 추구형	경제적 위험	만족도	매력 요인	문화 요인	보수 추구형	신체적 위험	실용 추구형	코로나 안전요인	코로나 위험	활동 추구형	힐링 요인
(1)	1											
(2)	.144	1										
(3)	.366	.113	1									
(4)	.412	.256	.728	1								
(5)	.380	.091	.656	.675	1							
(6)	.319	.172	.468	.483	.380	1						
(7)	.062	.182	.207	.251	.113	.115	1					
(8)	.413	.403	.413	.491	.369	.646	.072	1				
(9)	.444	.079	.700	.699	.597	.464	.289	.385	1			
(10)	.090	.167	.330	.419	.217	.133	.826	.134	.362	1		
(11)	.748	.071	.398	.324	.417	.179	.065	.242	.363	.147	1	
(12)	.490	.120	.801	.845	.740	.426	.137	.404	.767	.247	.490	1

주: HTMT > .85

추가로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Fornell-Larcker criterion을 적용하여 확인한 결과 〈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분산추출(AVE) 값의 제곱근 값이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 계수보다 크게 나타나(이충기, 2016), 본 연구모형의 판별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13〉 Fornell-Larcker critertion

구분	건강 추구형	경제적 위험	만족도	매력 요인	문화 요인	보수 추구형	신체적 위험	실용 추구형	코로나 안전요인	코로나 위험	활동 추구형	힐링 요인
(1)	.797											
(2)	.125	.875										
(3)	.317	-.052	.769									
(4)	.353	.217	.651	.791								
(5)	.318	.079	.569	.573	.819							
(6)	.262	.136	.376	.382	.291	.729						
(7)	.046	-.151	.190	.224	.099	-.037	.862					
(8)	.330	.320	.336	.389	.288	.463	.031	.733				
(9)	.363	.066	.599	.590	.492	.360	.249	.300	.801			
(10)	.042	-.124	.307	.362	.193	.075	.676	.081	.303	.808		
(11)	.598	-.017	.343	.284	.351	.099	-.006	.190	.296	-.010	.734	
(12)	.392	.073	.671	.695	.598	.326	.118	.308	.611	.200	.393	.776

주: 굵게 표시된 숫자가 AVE 제곱근 값임

2. 측정모델 평가 종합

본 연구의 측정모델 적합성 평가 결과는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화적재치는 .602~.905(기준 > .6), 평균분산추출(AVE) 값은 .535~.765(기준 > .5)로 모두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는 .704~.886(기준 > .6), Rho_a는 .722~.891(기준 > .7), CR 값은 .817~.910(기준 > .7)으로 모두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잠재변수들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HTMT 값은 .062~.845로 임계치 .85 미만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델 평가 적합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PSL-SEM 측정모델 평가

구분	집중타당도		내적일관성 신뢰도			판별타당도
	표준화 적재치	AVE	신뢰도(α)	Rho_a	CR	HTMT
라이프스타일 (lifestyle)	.602~ .828	.535~ .631	.704~ .810	.722~ .815	.817~ .874	.062~ .845
위험지각 (risk perceptions)	.653~ .905	.625~ .765	.824~ .886	.860~ .890	.881~ .907	
관광지 선택속성 (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	.718~ .844	.601~ .671	.778~ .850	.780~ .851	.858~ .893	
만족도 (satisfaction)	.649~ .814	.591	.884	.891	.910	

주: 표준화적재치 > .6, AVE > .5, 신뢰도(α) > .6, Rho_a > .7, CR > .7, HTMT < .85

제4절 구조모델 평가

1. 구조모델 평가

PLS-SEM에서는 구조모델의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대안적인 평가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신건권, 2018). PLS-SEM을 사용하여 구조모델 평가는 다중공선성 VIF, 결정계수 R^2 , 효과크기 f^2 , 예측적 적합성 Q^2 값으로 판단할 수 있다(신건권, 2018). 결정계수 R^2 값은 .25이면 약한값, .50이면 중간값, .70이면 큰 값을 나타낸다(Hair 외, 2011). 예측적 적합성 Q^2 값은 0보다 크면 적합성을 가지고 있으며(Hair 외, 2017), 0보다 작더라도 예측적 적합성이 부족함을 나타내지만, 예측의 품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Hossan 외, 2020). 그리고 다중공선성 VIF 값은 5 이하이면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Hair 외, 2017).

1) 다중공선성(Inner VIF)

측정 변수들 간에도 높은 상관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VIF 값이 5 미만이면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판단한다(신건권, 2018). 본 연구에서 구조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VIF 값을 확인한 결과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74~2.702(기준 <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다중공선성(Inner VIF)

구분	건강 추구형	경제적 위험	만족도	매력 요인	문화 요인	보수 추구형	신체적 위험	실용 추구형	코로나 안전인	코로나 위험	활동 추구형	힐링 요인
(1)		1.724	1.792	1.750	1.750		1.724		1.750	1.724		1.750
(2)			1.243	1.174	1.174				1.174			1.174
(3)												
(4)			2.702									
(5)			1.765									
(6)		1.303	1.460	1.330	1.330		1.303		1.330	1.303		1.330
(7)			1.926	1.790	1.790				1.790			1.790
(8)		1.355	1.520	1.490	1.490		1.355		1.490	1.355		1.490
(9)			1.929									
(10)			2.089	1.887	1.887				1.887			1.887
(11)		1.567	1.746	1.597	1.597		1.567		1.597	1.567		1.597
(12)			2.539									

주: VIF < 5

2) 결정계수(R²)

결정계수 R² 값은 외생잠재변수들에 의한 내생잠재변수의 설명력으로 R² 값이 .25는 약한 설명력, .50은 중간 정도 설명력, .75는 큰 설명력이다(신건권, 2018). <표 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로나위험과 신체적위험에서 각 .010, .009로 나타나 다소 약한 값을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값들은 .116~.605로 약한 값에서 중간값을 상회하는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표 4-16> 결정계수(R²)

구분	R-square	R-square adjusted
경제적위험	.116	.110
만족도	.605	.597
매력요인	.397	.385
문화요인	.237	.228
신체적위험	.009	.002
코로나안전요인	.311	.302
코로나위험	.010	.003
힐링요인	.294	.285

주: R²값 .25 약한 설명력, .5 중간 설명력, .70 큰 설명력

3) 효과크기(f²)

구조모델 평가에서 효과크기 f² 값은 외생잠재변수의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R²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효과크기 .02는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외생잠재변수의 작은 효과, .15는 중간 정도의 효과, .35는 큰 효과를 의미한다(신건권, 2018). <표 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001~.088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7> 효과크기(f²)

구분	건강 추구형	경제적 위험	만족도	매력 요인	문화 요인	보수 추구형	신체적 위험	실용 추구형	코로나 안전 요인	코로나 위험	활동 추구형	힐링 요인
(1)		.008	.004	.010	.002		.004		.020	.001		.013
(2)			.059	.045	.002				.002			.001
(3)												
(4)			.055									
(5)			.026									
(6)		.001	.012	.064	.032		.005		.072	.001		.044

(7)			.001	.000	.000				.012			.000
(8)		.088	.012	.018	.010		.002		.004	.002		.009
(9)			.036									
(10)			.007	.100	.025				.029			.023
(11)		.015	.010	.034	.066		.002		.026	.002		.069
(12)			.064									

주: t^2 값이 .02 약한값, .15 중간값, .35 큰값

4) 예측적 적합성(Q^2)

다음으로 구조모델의 예측력을 나타내는 Q^2 값은 0보다 크면 외생잠재변수가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예측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신건권, 2018). <표 4-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003~.349로 기준값 0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4-18> 예측적 적합성(Q^2)

구분	SSO	SSE	$Q^2 (=1-SSE/SSO)$
건강추구형	2400	2400	
경제적위험	1800	1653.404	.081
만족도	4200	2733.572	.349
매력요인	3000	2286.44	.238
문화요인	2400	2033.985	.153
보수추구형	2400	2400	
신체적위험	2400	2389.72	.004
실용추구형	2400	2400	
코로나안전요인	2400	1935.182	.194
코로나위험	2400	2391.619	.003
활동추구형	3000	3000	
힐링요인	2400	1989.881	.171

주: $Q^2 > 0$

2. 구조모델 평가 종합

본 연구의 구조모델 적합성 평가 결과는 <표 4-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중공선성 VIF 확인 결과 문제가 없으며 또한, R^2 값은 .009~.605로 일부 값이 다소 약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값들은 약한 설명력에서 중간값을 상회하는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f^2 값은 .001~.088로 나왔으며 예측적 적합성 Q^2 값은 .003~.349로 기준값 0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조모델 평가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PSL-SEM 구조모델 평가

구조모델 적합성 평가 항목	측정값	적합성 기준
측정 변수들간의 높은 상관성 - 다중공선성 VIF	1.174~2.702	VIF < 5
외생잠재변수의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설명력 - 결정계수 R^2	.009~.605	R^2 값 .25 약한 설명력, .5 중간 설명력, .70 큰 설명력
외생잠재변수의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R^2 에 기여하는 정도 - 효과크기 f^2	.001~.088	f^2 값 .02 약한값, .15 중간값, .35 큰값
외생잠재변수의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예측적 적합성 - 예측적 적합성 Q^2	.003~.349	Q^2 > 0

제5절 가설검증

본 연구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위험지각과 관광지 선택속성이 각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PLS 알고리즘(algorithm)과 PLS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앞서 제3절 측정모델의 평가와 제4절 구조모델 평가에서 측정 및 구조모델 모두 적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가설검증은 p 값을 이용하여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적합성을 평가하였고 가설로 설정된 경로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검증된 직접영향과 특정간접효과 매개효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접영향(path coefficients)에 대한 가설검증

1) H1. 라이프스타일은 위험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이프스타일은 위험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1을 검증한 결과 <표 4-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건강추구형과 실용추구형만 위험지각 요인 중 경제적위험에만 통계적으로 각각 $p < .05$ 와 $p < .001$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고 활동추구형은 경제적위험에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추구형과 활동추구형은 나머지 코로나위험과 신체적위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수추구형은 코로나위험과, 신체적위험, 경제적위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추구형은 경제적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1-3과 활동추구형은 경제적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1-6, 보수추구형은 경제적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H1-12 가설만 채택이 되었다(<그림 4-1> 참조).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코로나위험에 대한 평균값이 4.0 미만으로 코로나위험을 덜 지각하고 있는 반면에 경제적위험에 대한 평균값은 모두 5.0 초과로 경제적위험을 더 지각하는 것으로 건강추구형과 실용추구형에서 경제적위험을 많이 의식하고 있다. 특히 실용추구형이 경제적위험을 더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면에 활동추구형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위험을 덜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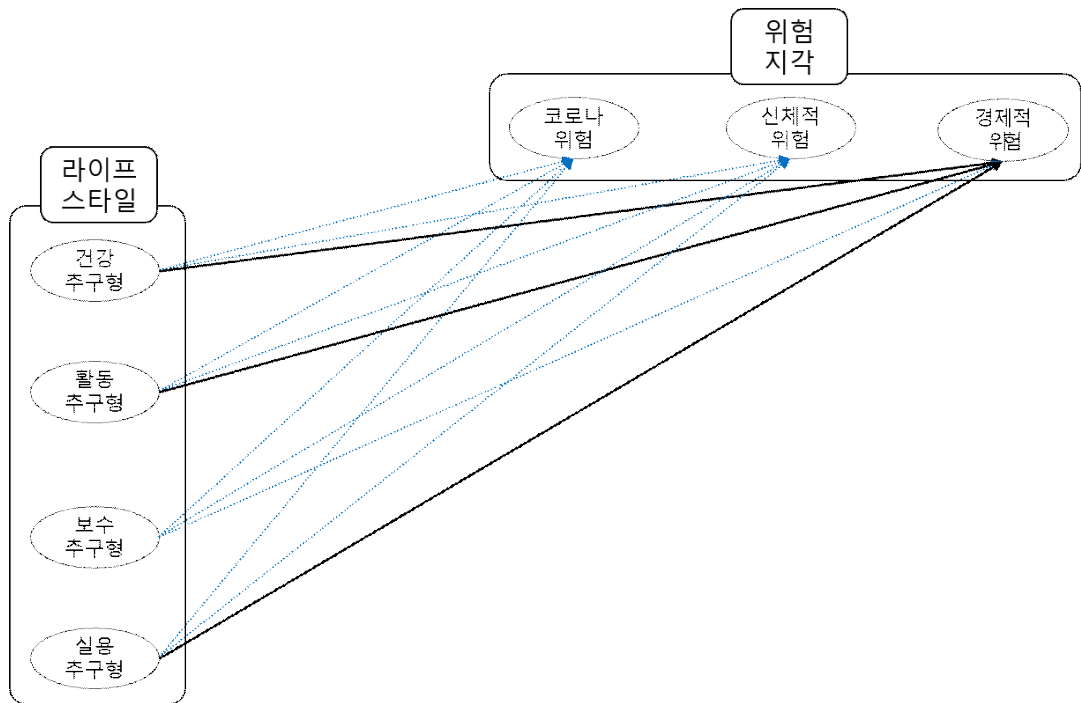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대응 수준 조치가 점차 낮아지고 있음에 따라 대다수의 국민들

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개인보건 의식이 향상되어 코로나19에 대해 두려움이 많이 낮아지고 무감각해지는 등의 상황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경제적 불안, 물가상승 등의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4-20〉 라이프스타일과 위험지각 간 분석결과

가설 및 경로		경로계수	t-values	p-values	채택여부
H1-1	건강추구형 → 코로나위험	-.041	.817	.414	
H1-2	건강추구형 → 신체적위험	-.084	1.640	.101	
H1-3	건강추구형 → 경제적위험	.110	2.184	.029*	채택
H1-4	활동추구형 → 코로나위험	.050	.890	.374	
H1-5	활동추구형 → 신체적위험	.058	1.102	.270	
H1-6	활동추구형 → 경제적위험	-.142	2.627	.009**	채택
H1-7	보수추구형 → 코로나위험	-.044	.966	.334	
H1-8	보수추구형 → 신체적위험	.077	1.600	.110	
H1-9	보수추구형 → 경제적위험	-.029	.615	.539	
H1-10	실용추구형 → 코로나위험	-.056	1.225	.221	
H1-11	실용추구형 → 신체적위험	-.050	1.060	.289	
H1-12	실용추구형 → 경제적위험	.324	7.188	.000***	채택

주: * p<.05, **p<.01, ***p<.001



〈그림 4-1〉 H1. 라이프스타일과 위험지각 간 분석모형

2) H2. 라이프스타일은 관광지 선택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이프스타일은 관광지 선택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2를 검증한 결과 〈표 4-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건강추구형이 선택속성 요인 중 문화적 요인과 실용추구형이 코로나안전요인에 대해서만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고 이를 제외한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나머지 관광지 선택속성 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p < .05 \sim p < .001$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추구형이 문화적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2-2와 실용추구형이 코로나안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2-13만 기각이 되었고 나머지 가설 H2-1~2-16은 모두 채택이 되었다(〈그림 4-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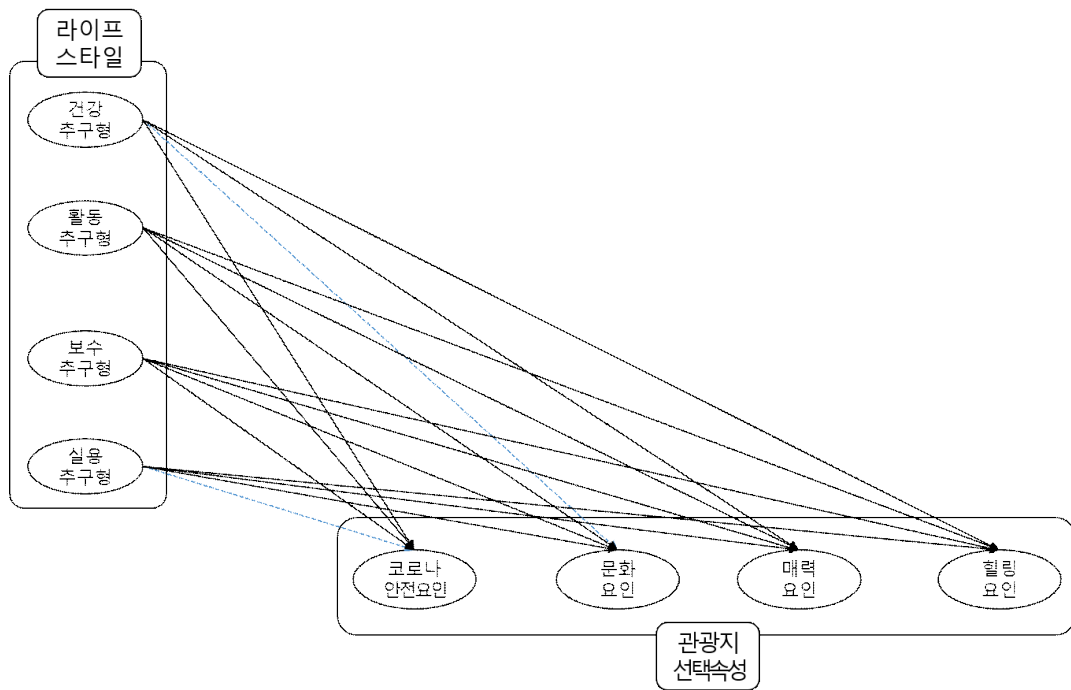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코로나안전요인에 대해 평균값이 4.913~5.378로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안전하고 또한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은 관광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특히 힐링요인 항목 중 치유(힐링)관광을 통해 쌓였던 긴장을 풀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평

균값은 5.748로 매력요인 중 제주의 경관, 기후 등이 매력적인 곳이나? 를 제외하고 다른 선택속성 요인 중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어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줄 수 있는 힐링의 섬으로 제주도가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표 4-21〉 라이프스타일과 관광지 선택속성 간 분석결과

가설 및 경로		경로계수	t-values	p-values	채택여부
H2-1	건강추구형 -> 코로나안전요인	.155	3.198	.001**	채택
H2-2	건강추구형 -> 문화요인	.055	.916	.360	
H2-3	건강추구형 -> 매력요인	.105	2.204	.028*	채택
H2-4	건강추구형 -> 힐링요인	.129	2.548	.011*	채택
H2-5	활동추구형 -> 코로나안전요인	.169	3.729	.000***	채택
H2-6	활동추구형 -> 문화요인	.283	5.371	.000***	채택
H2-7	활동추구형 -> 매력요인	.181	4.037	.000***	채택
H2-8	활동추구형 -> 힐링요인	.280	6.425	.000***	채택
H2-9	보수추구형 -> 코로나안전요인	.257	6.706	.000***	채택
H2-10	보수추구형 -> 문화요인	.179	4.171	.000***	채택
H2-11	보수추구형 -> 매력요인	.228	6.139	.000***	채택
H2-12	보수추구형 -> 힐링요인	.203	5.216	.000***	채택
H2-13	실용추구형 -> 코로나안전요인	.066	1.582	.114	
H2-14	실용추구형 -> 문화요인	.106	2.282	.023*	채택
H2-15	실용추구형 -> 매력요인	.128	3.074	.002**	채택
H2-16	실용추구형 -> 힐링요인	.095	2.285	.022*	채택

주: * p<.05, **p<.01, ***p<.001



〈그림 4-2〉 H2. 라이프스타일과 관광지 선택속성 간 분석모형

3) H3. 위험지각은 관광지 선택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험지각은 관광지 선택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3을 검증한 결과 〈표 4-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험지각 요인 중 코로나위험은 선택속성 요인 코로나안전, 문화, 매력, 힐링요인 모두에 통계적으로 $p < .01 \sim p < .001$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위험도 코로나안전요인에만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위험은 매력요인에만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위험은 코로나안전, 문화, 매력, 힐링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3-1, 3-2, 3-3, 3-4와 신체적위험은 코로나안전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3-5 그리고 경제적위험은 매력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3-11만 채택이 되었고 나머지 가설 H3-6, 3-7, 3-8, 3-9, 3-10과 3-12는 기각되었다(〈그림 4-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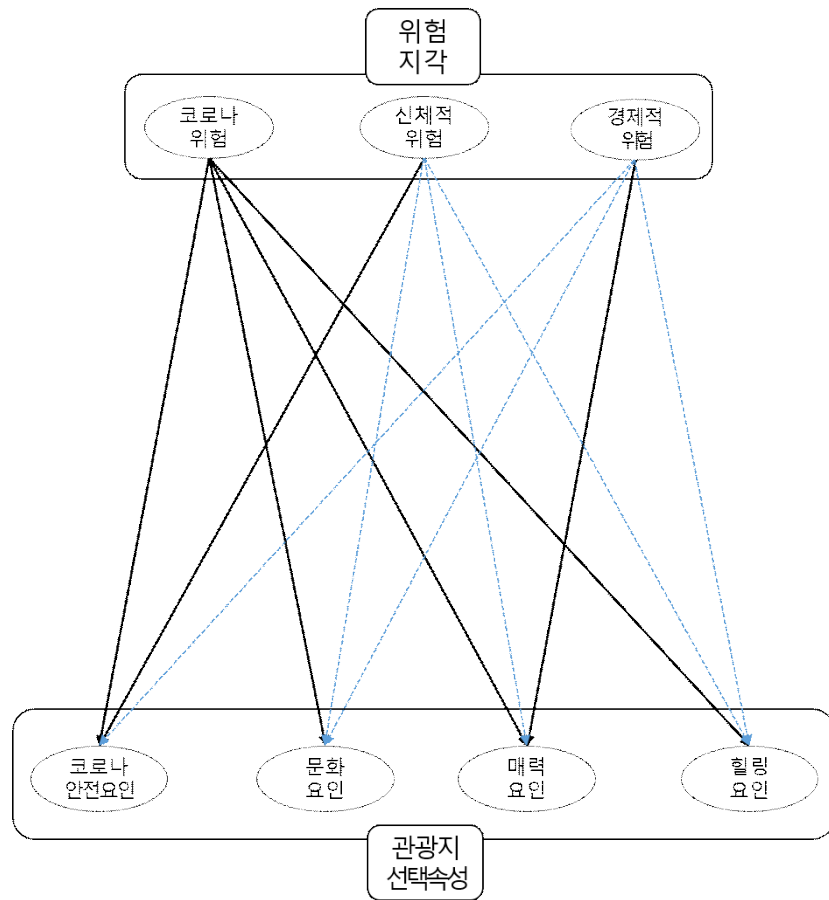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위험지각 요인 중 코로나위험이 낮을수록 코로나안전과 문화, 매력, 힐링 선택속성 요인을 모두 선택하고 또한, 신체적위험이 낮을수록 코로나안전을 선택하고,

경제적위험이 높을수록 매력요인을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코로나위험 지각이 높아 질수록 코로나안전이나 문화, 매력, 힐링 선택속성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코로나위험 지각이 낮아지면 코로나안전이나 문화, 매력, 힐링 선택속성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신체적위험이 지각이 낮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코로나안전 속성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가지 요금, 비싼 물가 등 경제적위험이 높으면 가성비를 고려하여 좀 더 매력적인 요인을 선택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4-22〉 위험지각과 관광지 선택속성 간 분석결과

가설 및 경로		경로계수	t-values	P-values	채택여부
H3-1	코로나위험 -> 코로나안전요인	-.193	3.840	.000***	채택
H3-2	코로나위험 -> 문화요인	-.191	3.511	.000***	채택
H3-3	코로나위험 -> 매력요인	-.339	7.452	.000***	채택
H3-4	코로나위험 -> 힐링요인	-.175	3.419	.001**	채택
H3-5	신체적위험 -> 코로나안전요인	-.125	2.578	.010*	채택
H3-6	신체적위험 -> 문화요인	.021	.408	.683	
H3-7	신체적위험 -> 매력요인	-.023	.546	.585	
H3-8	신체적위험 -> 힐링요인	.007	.139	.889	
H3-9	경제적위험 -> 코로나안전요인	.036	.982	.326	
H3-10	경제적위험 -> 문화요인	.039	.970	.332	
H3-11	경제적위험 -> 매력요인	.180	4.962	.000***	채택
H3-12	경제적위험 -> 힐링요인	.026	.651	.515	

주: * p<.05, **p<.01, ***p<.001



〈그림 4-3〉 H3. 위험지각과 관광지 선택속성 간 분석모형

4) H4. 라이프스타일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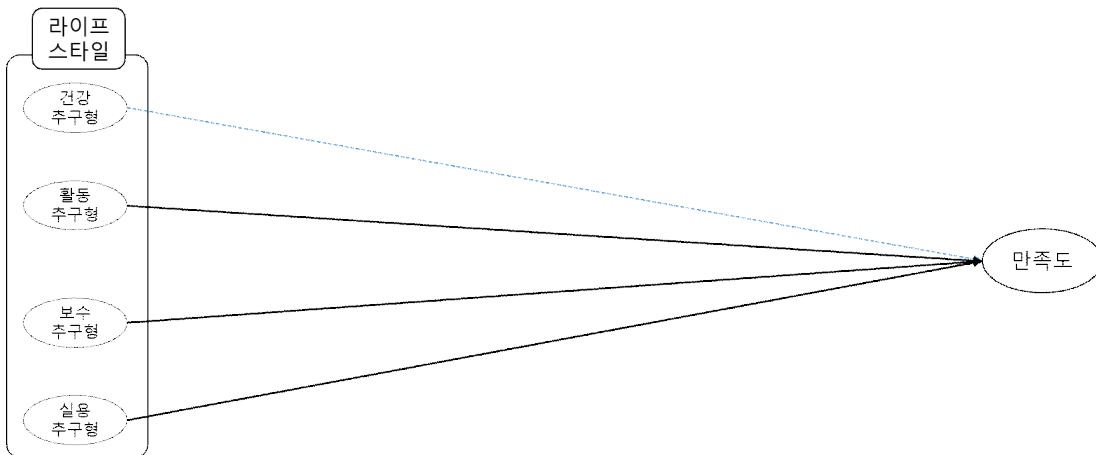
라이프스타일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4를 검증한 결과 〈표 4-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건강추구형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추구형은 통계적으로 $p < .05$, 보수추구형과 실용추구형은 $p < .01$ 수준에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추구형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4-1만 기각 되었고 활동추구형과 보수추구형, 실용추구형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4-2, 4-3, 4-4는 모두 채택되었다(〈그림 4-4〉 참조).

본 연구 응답자들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건강추구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대체적으로 제주 관광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3〉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 간 분석결과

가설 및 경로		경로계수	t-values	P-values	채택여부
H4-1	건강추구형 -> 만족도	-.052	1.356	.175	
H4-2	활동추구형 -> 만족도	.082	2.126	.034*	채택
H4-3	보수추구형 -> 만족도	.083	2.771	.006**	채택
H4-4	실용추구형 -> 만족도	.086	2.734	.006**	채택

주: * p<.05, **p<.01, ***p<.001



〈그림 4-4〉 H4.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 간 분석모형

5) H5. 위험지각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험지각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5를 검증한 결과 〈표 4-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험지각 요인 중 경제적위험은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5-3만 채택되었고 코로나위험과 신체적위험은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5-1, 5-2는 기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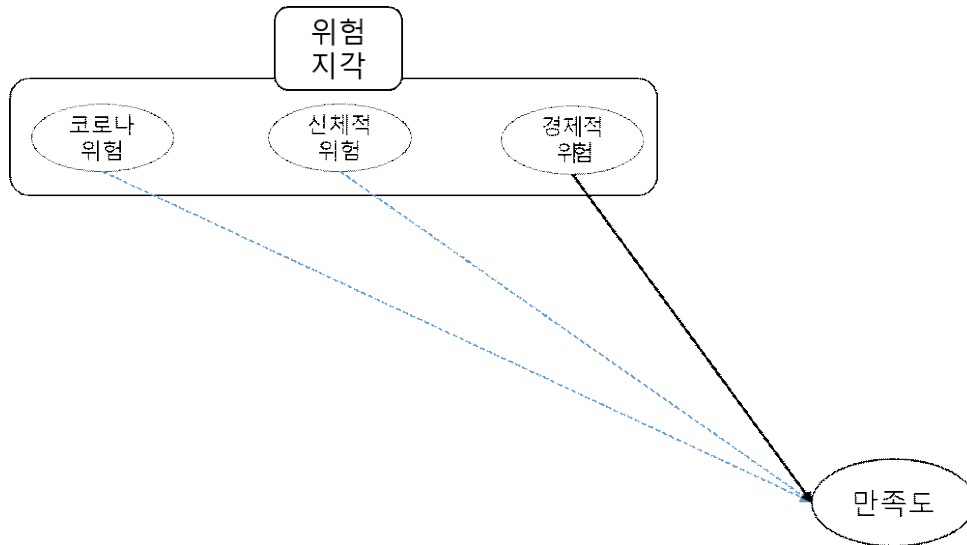
이는 경제적위험 지각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로 제주 관광에 대한 ‘고비용’ 논란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제주 대신 강원도를 선택한다(JIBS, 2022.10.25.)는 언론 기사 등과 제주 방문관광객 대상 9개년 통합 분석 실태조사 내용 중 비싼 물가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제주관광공사, 2023)이라는 조사 결과는 제주 관광에 대한

비싼 물가 등으로 불만족스럽다는 제주 관광의 사회적 인식과 같은 맥락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 판단된다.

〈표 4-24〉 위험지각과 만족도 간 분석결과

가설 및 경로		경로계수	t-values	P-values	채택여부
H5-1	코로나위험 → 만족도	-.077	1.768	.077	
H5-2	신체적위험 → 만족도	-.004	.075	.940	
H5-3	경제적위험 → 만족도	-.170	6.087	.000***	채택

주: * p<.05, **p<.01, ***p<.001



〈그림 4-5〉 H5. 위험지각과 만족도 간 분석모형

6) H6. 관광지 선택속성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광지 선택속성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6을 검증한 결과 〈표 4-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광지 선택속성 요인 중 코로나안전, 매력, 힐링요인은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요인은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안전, 문화, 매력, 힐링요인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6-1, 6-2,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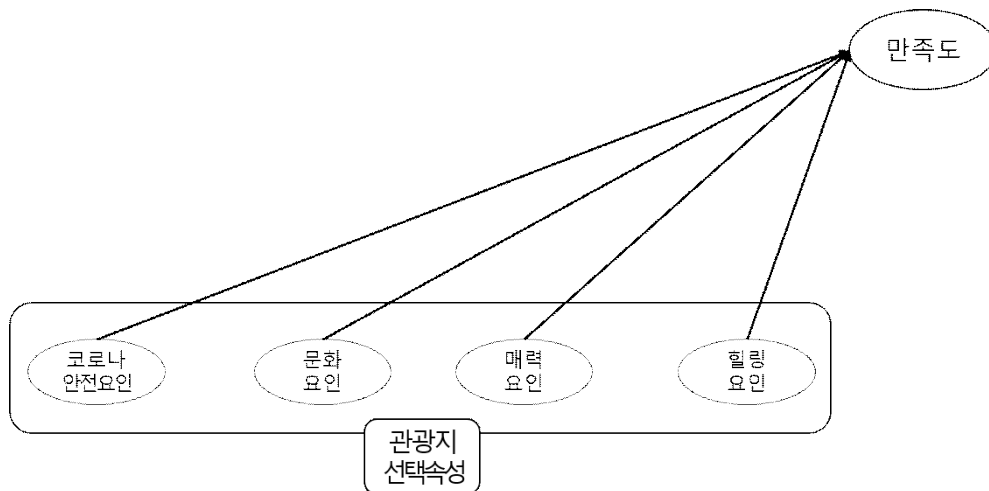
6-4는 모두 채택되었다(〈그림 4-6〉 참조).

이는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그만큼 제주도가 코로나19 감염과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매력적인 곳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힐링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선택속성 요인 중 가장 높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줄 수 있는 힐링의 섬으로 제주도가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향후 제주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표 4-25〉 관광지 선택속성과 만족도 간 분석결과

가설 및 경로		경로계수	t-values	P-values	채택여부
H6-1	코로나안전요인 → 만족도	.166	3.659	.000***	채택
H6-2	문화요인 → 만족도	.136	2.034	.042*	채택
H6-3	매력요인 → 만족도	.243	4.356	.000***	채택
H6-4	힐링요인 → 만족도	.254	4.776	.000***	채택

주: * p<.05, **p<.01, ***p<.001



〈그림 4-6〉 H6. 관광지 선택속성과 만족도 간 분석모형

2. 특정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s) 매개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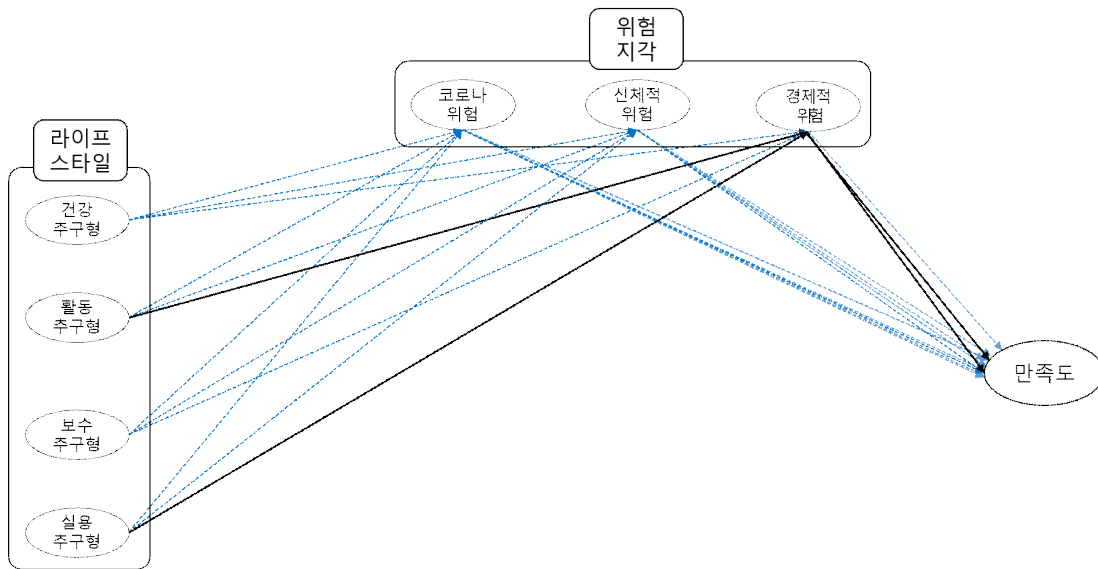
1) H7. 위험지각은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위험지각은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H7을 세우고 특정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s)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표 4-26>에 보는 바와 같이 위험지각 요인 중 코로나위험, 신체적위험 모두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 간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위험은 건강추구형 및 보수추구형과 만족도 간을 제외하고 가설 H7-6 활동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가설 H7-12 실용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7> 참조).

<표 4-26> 위험지각 매개효과 분석결과

가설 및 경로		경로계수	t-values	P-values	채택여부
H7-1	건강추구형 → 코로나위험 → 만족도	-.003	.702	.483	
H7-2	건강추구형 → 신체적위험 → 만족도	.002	.498	.619	
H7-3	건강추구형 → 경제적위험 → 만족도	'건강추구형→ 만족도 간 경로 기각'			
H7-4	활동추구형 → 코로나위험 → 만족도	.004	.772	.440	
H7-5	활동추구형 → 신체적위험 → 만족도	-.001	.429	.668	
H7-6	활동추구형 → 경제적위험 → 만족도	.024	2.443	.015*	채택
H7-7	보수추구형 → 코로나위험 → 만족도	-.003	.793	.428	
H7-8	보수추구형 → 신체적위험 → 만족도	-.002	.502	.616	
H7-9	보수추구형 → 경제적위험 → 만족도	-.005	.595	.552	
H7-10	실용추구형 → 코로나위험 → 만족도	-.004	.892	.372	
H7-11	실용추구형 → 신체적위험 → 만족도	.001	.399	.690	
H7-12	실용추구형 → 경제적위험 → 만족도	-.055	4.886	.000***	채택

주: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7〉 H7. 위험지각 매개효과 분석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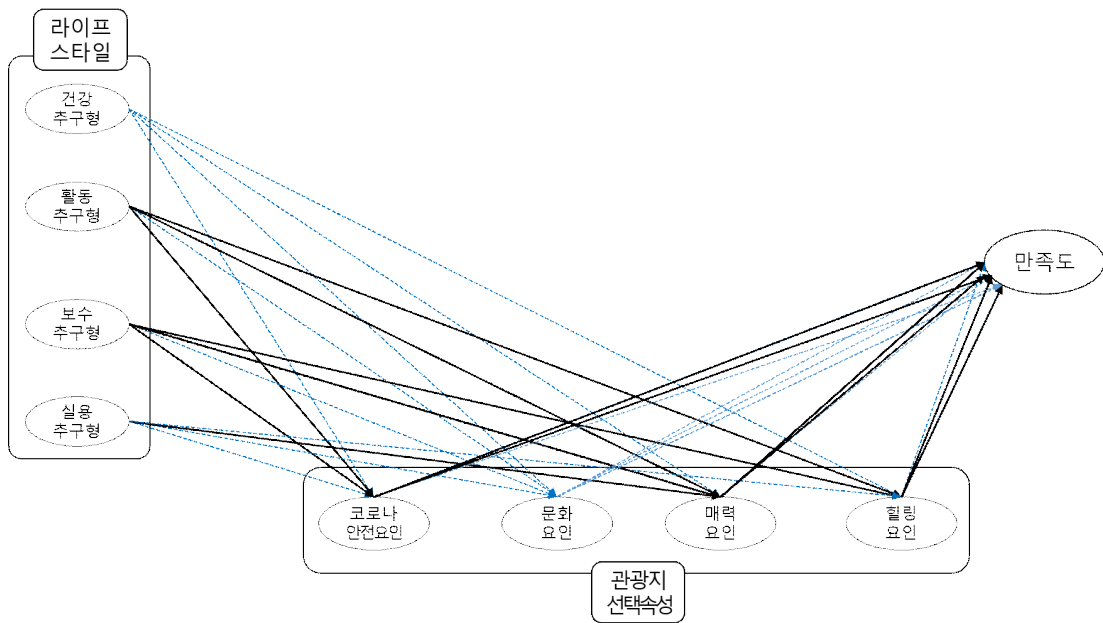
2) H8. 관광지 선택속성은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관광지 선택속성은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H8을 세우고 특정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s)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표 4-28〉에 보는 바와 같이 활동추구형과 만족도 간에서는 문화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설 H8-5, 8-7, 8-8 코로나안전, 매력, 힐링요인은 각각 통계적으로 $p < .05$, $p < .01$, $p < .001$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보수추구형과 만족도 간 영향 관계에서도 문화요인을 제외하고 가설 H8-9, 8-12 코로나안전, 힐링요인은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가설 H8-11 매력요인은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실용추구형과 만족도 간 영향 관계에서 가설 H8-15 매력요인만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8〉 참조).

〈표 4-27〉 관광지 선택속성 매개효과 분석결과

가설 및 경로		경로계수	t-values	P-values	채택여부
H8-1	건강추구형 → 코로나안전요인 → 만족도	'건강추구형→ 만족도 간 경로 기각'			
H8-2	건강추구형 → 문화요인 → 만족도	.007	.858	.391	
H8-3	건강추구형 → 매력요인 → 만족도	.025	1.956	.051	
H8-4	건강추구형 → 힐링요인 → 만족도	'건강추구형→ 만족도 간 경로 기각'			
H8-5	활동추구형 → 코로나안전요인 → 만족도	.028	2.386	.017*	채택
H8-6	활동추구형 → 문화요인 → 만족도	.038	1.742	.082	
H8-7	활동추구형 → 매력요인 → 만족도	.044	2.751	.006**	채택
H8-8	활동추구형 → 힐링요인 → 만족도	.071	3.603	.000***	채택
H8-9	보수추구형 → 코로나안전요인 → 만족도	.043	3.233	.001**	채택
H8-10	보수추구형 → 문화요인 → 만족도	.024	1.949	.051	
H8-11	보수추구형 → 매력요인 → 만족도	.055	3.708	.000***	채택
H8-12	보수추구형 → 힐링요인 → 만족도	.052	3.441	.001**	채택
H8-13	실용추구형 → 코로나안전요인 → 만족도	.011	1.333	.182	
H8-14	실용추구형 → 문화요인 → 만족도	.014	1.341	.180	
H8-15	실용추구형 → 매력요인 → 만족도	.031	2.272	.023*	채택
H8-16	실용추구형 → 힐링요인 → 만족도	.024	1.923	.055	

주: * p<.05, **p<.01, ***p<.001



〈그림 4-8〉 H8. 관광지 선택속성 매개효과 분석모형

3. 가설검증 결과 종합

상기의 직접영향과 특정간접효과 검증한 결과를 종합하면 직접영향에 대한 검증은 51개 가설 중 31개 가설이 채택되었고 특정간접효과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28개 가설 중 9개 가설이 채택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설 유형은 라이프스타일과 위험지각과의 관계로 라이프스타일과 위험지각 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선행연구(전달영·정혜영, 1999; 김정희, 2005; 김충효·서원석·이순구, 2008; 김연희, 2013; 진징, 2013; 정재훈, 2015; 이혜련·김윤민, 2018; Sjöberg 외, 2005; Yang, 2022 등)를 토대로 H1. 라이프스타일은 위험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1를 검증한 결과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건강추구형과 실용추구형만 위험지각 요인 중 경제적위험에만 통계적으로 각각 $p < .05$ 와 $p < .001$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고 활동추구형은 경제적위험에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추구형과 활동추구형은 나머지 코로나위험과 신체적위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수추구형은 코로나위험, 신체적위험, 경제적위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추구형은 경제적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1-3과 활동추구형은 경제적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1-6, 보수추구형은 경제적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H1-12 가설만 채택이 되었다.

두 번째 가설 유형은 라이프스타일과 선택속성과의 관계로 라이프스타일과 관광지 선택속성 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선행연구(이상태, 2005; 영기·홍영호, 2011; 김성연, 2018; 김재곤, 2018; 김기현·이진희, 2019; 김현·박제운·장호성, 2019; 이동욱, 2019; 정충화, 2020; 유순호·채선영·안선영, 2020; 김병직·양위주, 2020; 이현중, 2020; 김경환, 2019; Duman 외, 2020; Danielle 외, 2022 등)를 토대로 H2. 라이프스타일은 관광지 선택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2를 검증 결과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건강추구형이 선택속성 요인 중 문화적요인과 실용추구형이 코로나안전요인에 대해서만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고 이를 제외한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나머지 관광지 선택속성 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p < .05 \sim p < .001$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추구형이 문화적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2-2와 실용추구형이 코로나안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2-13만 기각이 되었고 나머지 가설 H2-1~2-16은 모두 채택이 되었다.

세 번째 가설 유형은 위험지각과 선택속성과의 관계로 위험지각과 선택속성 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선행연구(김영우, 2004; 허지현, 2007; 김문경, 2020; 윤해진·안희정, 2021; 김철원, 2021; 노성환·이창기, 2021; 김우정, 2022; Fuchs 외, 2006, Chahal 외, 2015 등)을 토대로 H3. 위험지각은 관광지 선택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3를 검증한 결과 위험지각 요인 중 코로나위험은 선택속성 요인 코로나안전, 문화, 매력, 힐링요인 모두에 통계적으로 $p < .01 \sim p < .001$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위험도 코로나안전요인에만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위험은 매력요인에만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위험은 코로나안전, 문화, 매력, 힐링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3-1, 3-2, 3-3, 3-4와 신체적위험은 코로나안전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3-5 그리고 경제적위험은 매력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3-11만 채택이 되었고 나머지 가설 H3-6, 3-7, 3-8, 3-9, 3-10과 3-12는 기각되

었다.

네 번째 가설 유형은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와의 관계로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 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선행연구(김선영·김형곤, 2009; 김기현·이진희, 2019; 진쟁·이진희, 2019; 이병관·안완준·장병주, 2019; 정충화, 2020; 이상미·이정원, 2021 등)을 토대로 H4. 라이프스타일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4를 검증한 결과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건강추구형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추구형은 통계적으로 $p < .05$, 보수추구형과 실용추구형은 $p < .01$ 수준에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추구형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4-1만 기각되었고 활동추구형과 보수추구형, 실용추구형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4-2, 4-3, 4-4는 모두 채택되었다.

다섯 번째 가설 유형은 위험지각과 만족도와의 관계로 위험지각과 만족도 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선행연구(이초혜, 2002; 유창근·이혜린, 2014; 김은진·유현경·윤유식·오정미, 2016; 고한두, 2021; 김철원, 2021; 김현우·김영리·윤지환, 2022; Davidson, 2010 등)을 토대로 H5. 위험지각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5를 검증한 결과 위험지각 요인 중 경제적위험은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5-3만 채택되었고 코로나위험과 신체적 위험은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5-1, 5-2는 기각되었다.

여섯 번째 가설 유형은 선택속성과 만족도와의 관계로 선택속성과 만족도 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선행연구(김영민, 2021; 최동희, 2022; 진쟁·이진희, 2019; 정용복, 2020; 윤해진·안희정, 2021 등)를 토대로 H6. 관광지 선택속성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6을 검증한 결과 관광지 선택속성 요인 중 코로나안전, 매력, 힐링요인은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요인은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안전, 문화, 매력, 힐링요인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6-1, 6-2, 6-3, 6-4는 모두 채택되었다.

일곱 번째 가설 유형은 위험지각이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PLS-SEM에서 특정 경로에 대한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특정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s)를 통해 매개효과 검증이 가능하다(신건권, 2018)를 토대로 H7. 위험지각은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7를 검증한 결과 위험지각 요인 중 코로나위험, 신체적위험 모두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 간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위험은 건강추구형 및 보수추구형과 만족도 간을 제외하고 가설 H7-6 활동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가설 H7-12 실용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 번째 가설 유형은 관광지 선택속성이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PLS-SEM에서 특정 경로에 대한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특정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s)를 통해 매개효과 검증이 가능하다(신건권, 2018)를 토대로 H8. 관광지 선택속성은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8를 검증한 결과 활동추구형과 만족도 간에서는 문화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설 H8-5, 8-7, 8-8 코로나안전, 매력, 힐링요인은 각각 통계적으로 $p < .05$, $p < .01$, $p < .001$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보수추구형과 만족도 간 영향 관계에서도 문화요인을 제외하고 가설 H8-9, 8-12 코로나안전, 힐링요인은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가설 H8-11 매력요인은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실용추구형과 만족도 간 영향 관계에서 가설 H8-15 매력요인만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직접효과 가설검증 결과 종합

가설 및 경로		경로계수	t-values	p-values	채택여부
H1-1	건강추구형 → 코로나위험	-.041	.817	.414	
H1-2	건강추구형 → 신체적위험	-.084	1.640	.101	
H1-3	건강추구형 → 경제적위험	.110	2.184	.029*	채택
H1-4	활동추구형 → 코로나위험	.050	.890	.374	
H1-5	활동추구형 → 신체적위험	.058	1.102	.270	
H1-6	활동추구형 → 경제적위험	-.142	2.627	.009**	채택
H1-7	보수추구형 → 코로나위험	-.044	.966	.334	
H1-8	보수추구형 → 신체적위험	.077	1.600	.110	
H1-9	보수추구형 → 경제적위험	-.029	.615	.539	
H1-10	실용추구형 → 코로나위험	-.056	1.225	.221	
H1-11	실용추구형 → 신체적위험	-.050	1.060	.289	
H1-12	실용추구형 → 경제적위험	.324	7.188	.000***	채택
H2-1	건강추구형 → 코로나안전요인	.155	3.198	.001***	채택
H2-2	건강추구형 → 문화요인	.055	.916	.360	
H2-3	건강추구형 → 매력요인	.105	2.204	.028*	채택
H2-4	건강추구형 → 힐링요인	.129	2.548	.011*	채택
H2-5	활동추구형 → 코로나안전요인	.169	3.729	.000***	채택
H2-6	활동추구형 → 문화요인	.283	5.371	.000***	채택
H2-7	활동추구형 → 매력요인	.181	4.037	.000***	채택
H2-8	활동추구형 → 힐링요인	.280	6.425	.000***	채택
H2-9	보수추구형 → 코로나안전요인	.257	6.706	.000***	채택
H2-10	보수추구형 → 문화요인	.179	4.171	.000***	채택
H2-11	보수추구형 → 매력요인	.228	6.139	.000***	채택
H2-12	보수추구형 → 힐링요인	.203	5.216	.000***	채택
H2-13	실용추구형 → 코로나안전요인	.066	1.582	.114	
H2-14	실용추구형 → 문화요인	.106	2.282	.023*	채택
H2-15	실용추구형 → 매력요인	.128	3.074	.002**	채택
H2-16	실용추구형 → 힐링요인	.095	2.285	.022*	채택
H3-1	코로나위험 → 코로나안전요인	-.193	3.840	.000***	채택
H3-2	코로나위험 → 문화요인	-.191	3.511	.000***	채택
H3-3	코로나위험 → 매력요인	-.339	7.452	.000***	채택
H3-4	코로나위험 → 힐링요인	-.175	3.419	.001**	채택
H3-5	신체적위험 → 코로나안전요인	-.125	2.578	.010*	채택
H3-6	신체적위험 → 문화요인	.021	.408	.683	
H3-7	신체적위험 → 매력요인	-.023	.546	.585	
H3-8	신체적위험 → 힐링요인	.007	.139	.889	
H3-9	경제적위험 → 코로나안전요인	.036	.982	.326	
H3-10	경제적위험 → 문화요인	.039	.970	.332	
H3-11	경제적위험 → 매력요인	.180	4.962	.000***	채택
H3-12	경제적위험 → 힐링요인	.026	.651	.515	

주: * p<.05, **p<.01, ***p<.001

가설 및 경로		경로계수	t-values	p-values	채택여부
H4-1	건강추구형 → 만족도	-.052	1.356	.175	
H4-2	활동추구형 → 만족도	.082	2.126	.034*	채택
H4-3	보수추구형 → 만족도	.083	2.771	.006**	채택
H4-4	실용추구형 → 만족도	.086	2.734	.006**	채택
H5-1	코로나위험 → 만족도	-.077	1.768	.077	
H5-2	신체적위험 → 만족도	-.004	.075	.940	
H5-3	경제적위험 → 만족도	-.170	6.087	.000***	채택
H6-1	코로나안전요인 → 만족도	.166	3.659	.000***	채택
H6-2	문화요인 → 만족도	.136	2.034	.042*	채택
H6-3	매력요인 → 만족도	.243	4.356	.000***	채택
H6-4	힐링요인 → 만족도	.254	4.776	.000***	채택

주: *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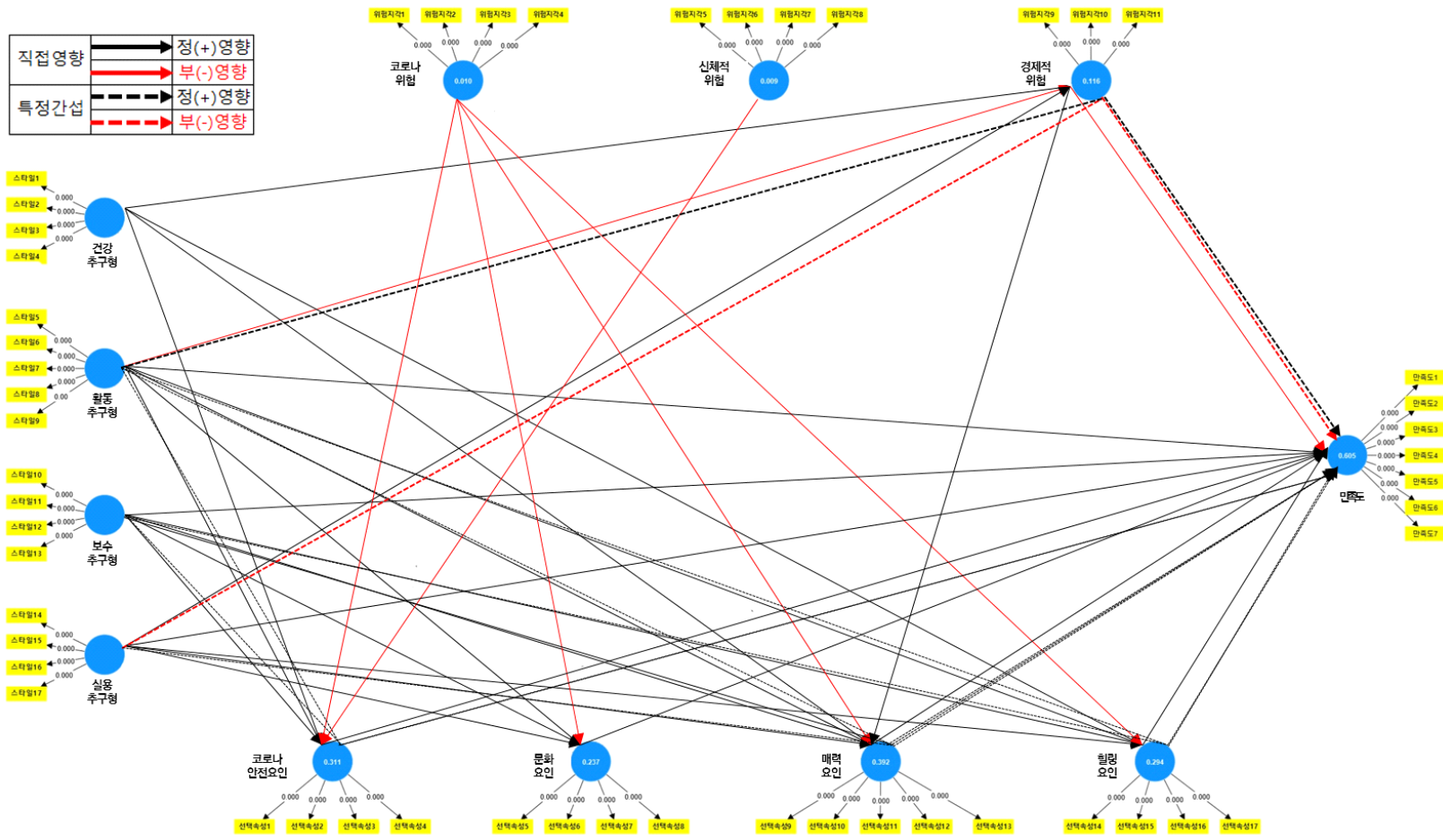
〈표 4-29〉 특정간섭효과(매개효과) 가설검증 결과 종합

가설 및 경로		경로계수	t-values	P-values	채택여부
H7-1	건강추구형 → 코로나위험 → 만족도	-.003	.702	.483	
H7-2	건강추구형 → 신체적위험 → 만족도	.002	.498	.619	
H7-3	건강추구형 → 경제적위험 → 만족도	'건강추구형→ 만족도 간 경로 기각'			
H7-4	활동추구형 → 코로나위험 → 만족도	.004	.772	.440	
H7-5	활동추구형 → 신체적위험 → 만족도	-.001	.429	.668	
H7-6	활동추구형 → 경제적위험 → 만족도	.024	2.443	.015*	채택
H7-7	보수추구형 → 코로나위험 → 만족도	-.003	.793	.428	
H7-8	보수추구형 → 신체적위험 → 만족도	-.002	.502	.616	
H7-9	보수추구형 → 경제적위험 → 만족도	-.005	.595	.552	
H7-10	실용추구형 → 코로나위험 → 만족도	-.004	.892	.372	
H7-11	실용추구형 → 신체적위험 → 만족도	.001	.399	.690	
H7-12	실용추구형 → 경제적위험 → 만족도	-.055	4.886	.000***	채택
H8-1	건강추구형 → 코로나안전요인 → 만족도	'건강추구형→ 만족도 간 경로 기각'			
H8-2	건강추구형 → 문화요인 → 만족도	.007	.858	.391	
H8-3	건강추구형 → 매력요인 → 만족도	.025	1.956	.051	
H8-4	건강추구형 → 힐링요인 → 만족도	'건강추구형→ 만족도 간 경로 기각'			
H8-5	활동추구형 → 코로나안전요인 → 만족도	.028	2.386	.017*	채택
H8-6	활동추구형 → 문화요인 → 만족도	.038	1.742	.082	

주: * p<.05, **p<.01, ***p<.001

가설 및 경로		경로계수	t-values	P-values	채택여부
H8-7	활동추구형 → 매력요인 → 만족도	.044	2.751	.006**	채택
H8-8	활동추구형 → 힐링요인 → 만족도	.071	3.603	.000***	채택
H8-9	보수추구형 → 코로나안전요인 → 만족도	.043	3.233	.001**	채택
H8-10	보수추구형 → 문화요인 → 만족도	.024	1.949	.051	
H8-11	보수추구형 → 매력요인 → 만족도	.055	3.708	.000***	채택
H8-12	보수추구형 → 힐링요인 → 만족도	.052	3.441	.001**	채택
H8-13	실용추구형 → 코로나안전요인 → 만족도	.011	1.333	.182	
H8-14	실용추구형 → 문화요인 → 만족도	.014	1.341	.180	
H8-15	실용추구형 → 매력요인 → 만족도	.031	2.272	.023*	채택
H8-16	실용추구형 → 힐링요인 → 만족도	.024	1.923	.055	

주: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9〉 전체 구조모형 분석결과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주를 관광목적지로 선택하여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제주 관광에 대한 위험지각과 제주를 선택한 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학술적 시사점과 더불어 향후 도래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제주의 관광정책과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2023년 2월22일부터 3월 4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로는 제주로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위험과 방역 조치 등의 상황으로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 조사업체 '엔트러스트 서베이'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주를 방문한 20세 이상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표본의 선정은 비확률적표본추출방법 중에서 가장 정교한 추출 방법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이근희, 2018) 할당표본추출방법(quota sampling)을 적용하였고 한국관광공사의 제주 방문객 지역별, 성별, 연령별 분포 비율(한국관광공사, 2023)을 적용하여 총 600명의 조사대상 표본을 선정하고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온라인 설문을 통하여 수집된 유효 표본 600부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SPSS 22.0과 PLS-SEM 프로그램인 Smart PLS 4.0을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과 관광 내용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SPSS 22.0을 통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항목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mart PLS 4.0을 통해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1단계 측정모델 적합성 분석을 위해 Smart PLS 4.0을 통해 각 측정항목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하였고, 2단계 구조모델 적합성 분석을 위해 결정계수(R^2 :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와 예측적 적합성(Q^2 : predictive relevance)

그리고 다중공선성(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확인하였다. 내적일관성 신뢰도와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어 측정모델 적합성에 문제가 없으며 또한, 구조모델 적합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마지막으로 구성개념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에 따른 검증 결과 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가설 H1를 검증한 결과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건강추구형과 실용추구형만 위험지각 요인 중 경제적위험에만 통계적으로 각각 $p < .05$ 와 $p < .001$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고 활동추구형은 경제적위험에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추구형과 활동추구형은 나머지 코로나위험과 신체적위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수추구형은 코로나위험과, 신체적위험, 경제적위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가설 H2를 검증한 결과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건강추구형이 선택속성 요인 중 문화적요인과 실용추구형이 코로나안전요인에 대해서만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고 이를 제외한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나머지 관광지 선택속성 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p < .05 \sim p < .001$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가설 H3을 검증한 결과 위험지각 요인 중 코로나위험은 선택속성 요인 코로나안전, 문화, 매력, 힐링요인 모두에 통계적으로 $p < .01 \sim p < .001$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신체적위험도 코로나안전요인에만 $p < .05$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위험은 매력요인에만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가설 H4를 검증한 결과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건강추구형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추구형은 통계적으로 $p < .05$, 보수추구형과 실용추구형은 $p < .01$ 수준에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가설 H5를 검증한 결과 위험지각 요인 중 경제적위험은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가설 H6을 검증한 결과 관광지 선택속성 요인 중 코로나안전, 매력, 힐링요인은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요인은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 번째 가설 H7를 검증한 결과 위험지각 요인 중 코로나위험, 신체적위험 모두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 간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위험은 건강추구형 및 보수추구

형과 만족도 간을 제외하고 활동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실용추구형과 만족도 간에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 번째 가설 H8를 검증한 결과 활동추구형과 만족도 간 문화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코로나안전, 매력, 힐링요인은 각각 통계적으로 $p < .05$, $p < .01$, $p < .001$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보수추구형과 만족도 간에서도 문화요인을 제외하고 코로나안전, 힐링요인은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매력요인은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실용추구형과 만족도 간에서 매력요인만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직접영향과 특정간접효과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직접영향에 대한 검증은 총 51개 가설 중 31개 가설이 채택되었으며, 특정간접효과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28개 가설 중 9개 가설이 채택되었다.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 학술적 시사점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주를 방문한 20세 이상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위험지각과 관광지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주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보건, 언론, 사회과학 관점에서 이루어진 점, 관광 관련 분야에서는 팬데믹 초기시점의 제주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점, 그 외 일부 탐색적 연구에 불과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와 제주 관광과 관련된 영향 관계를 보다 실증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데에 의미와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논문 검색 사이트 학술정보서비스(RISS)에서 ‘코로나’와 ‘제주관광’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RISS, 2023.4.24.) 코로나19와 제주관광산업의 대응전략(신동일, 2020), 코로나19 관광부문 영향과 이슈 관련 연구(김대관, 2020), 코로나19 전후 제주지역사회의 관광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고선영, 2021), 코로나19 유행 기간 제주 방문관광객 IPA 결과를 중심으로 한 연구(김영남·홍성화, 2020a), 제주 방문관광객 대상 코로나19 위험인식과 낙관적 편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김영남·홍성화, 2020b),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위기관리 전략에 대한 탐색적 연구(정승훈, 양성수, 2021) 등 10편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탐색적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제주 방문관광객 대상 실증연구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2월~3월 시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약 3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관광객의 인식, 태도 등 다양한 변화 등을 반영하기에 여러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의 인식, 태도 등 다양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측정도구 도출을 위해 최신의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라이프스타일 변화 중 건강에 대한 관심과 스트레스가 높아진 점, 위험지각과 선택속성과 관련한 감염 및 안전, 위생, 청결 등의 요인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요성과 관심도가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하여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건강추구형, 활동추구형, 보수추구형, 실용추구형으로 위험지각 요인은 코로나위험, 신체적위험, 경제적위험으로 도출하였고 관광지 선택속성 요인으로는 코로나안전요인, 문화요인, 매력요인, 힐링요인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약 3년이 경과한 2023년 2월까지 제주를 방문한 20세 이상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제주 관광의 영향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로서 그 의미와 차별성을 가지며 가설검증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프스타일과 위험지각 간의 영향 관계에서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건강추구형이 경제적위험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은 진징(2013) 연구에서 건강추구형이 금전적 위험지각에 유의적인 영향이 없는 결과와 차이가 나지만 여가활동형이 금전적위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이혜련·김윤민(2018) 연구에서 건강추구형이 위생 및 안전위험에 유의적인 영향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건강추구형이 위생 및 안전 등의 코로나위험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이 없다는 결과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라이프스타일과 관광지 선택속성 간의 영향 관계에서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활동추구형, 보수추구형이 자연적 매력물 다양성 등 매력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선행연구(유순호·채선영·안대회, 2020; 정충화, 2020; 영기·홍영호, 2011)와 일치하고 있고, 건강추구형, 활동추구형, 보수추구형이 청결성 등 코로나안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선행연구(정용주·황지윤·최상수, 2012; 유순호·채선영·안대회, 2020; 전찬수·임기태, 2009)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활동추구형, 보수추구형이 스트레스 해소 등 힐링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유순호·김경숙(2017)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며, 활동추구형과 실용추구형이 역사적 문화와 유물이 다양성 등 문화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선행연구(영기·홍영호, 2011; 김병직·양위주, 2020)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위험지각과 관광지 선택속성 간의 영향 관계에서 관광지 선택속성 중 코로나위험이 청결 등 코로나안전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선행연구(김철원, 2021; 윤해진·안희정; 2021)에서 또한, 신체적위험이 코로나안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김우정(2022)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신체적위험과 경제적위험 모두 역사적 문화와 유물이 다양성 등 문화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도 역시 김우정(2022) 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넷째,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에서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활동추구형이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라이프스타일과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박종찬, 2016; 진쟁·이진희, 2019; 정충화, 2020) 결과와 일치하고, 보수추구형이 만족도에 미치는 결과는 진쟁·이진희(2019)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또한, 이상미·이

정원(2021) 연구에서 건강추구형이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다섯째, 위험지각과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에서 위험지각 요인 중 경제적위험이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위험지각과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유창근·이혜린, 2014; 김철원, 2021) 결과와 차이가 나지만, 다른 선행연구(이초혜, 2002; 김현우·김영리·유지환, 2022)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여섯째, 관광지 선택속성과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에서 청결 등 코로나안전요인, 문화요인, 매력요인이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선택속성과 만족도 간의 선행연구(김영민, 2021; 정총화, 2020; 최동희, 2022) 결과와 일치하고 있고, 힐링요인이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심우석(2015)의 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통해 본 연구 응답자들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위험지각 요인 중 경제적위험을 제외한 코로나위험, 신체적위험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영향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23년 1월 30일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 조치와 이어 3월 20일 대중교통·대형 실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 해제 조치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로드맵 발표에서 감염병 등급 조정과 위기단계 하향 등 일상적 관리체계의 전환 추진(질병관리청, 2023) 내용으로 볼 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수준이 많이 안정화되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개인보건 의식 향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해 두려움이 많이 낮아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주도와 여행사, 호텔 등 관광 관련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전 시점의 기준으로 돌아가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도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안전하고 매력적인 곳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코로나19 위험지각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업계에서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자연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힐링(치유)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는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제주에서 생산되는 여러 음식을 소재로 치유와 음식이 결합된 치유관광 상품 개발도 필요해 보인다.

둘째, 연구의 가설검증을 통해 본 연구 응답자들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위험지각 중 경제적위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는 제주 대신 강원도를 선택한다(JIBS, 2022.10.25.)는 언론 기사 등과 제주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내용 중 비싼 물가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제주관광공사, 2023)이라는 조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비용 인식 문제는 향후 잠재관광객들이 자칫 강원도 등 다른 지역 또는 일본 등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고비용 인식 해결을 위해 지난 2008년 당시 민·관합동으로 추진했던 '제주 관광요금 거품빼기 운동' 같은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제주 관광에 대한 고비용 인식의 해결과 더불어 가성비 좋은 관광상품 개발도 시급해 보인다. 이에 제주도 여행이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가격은 싸면서도 만족도 높은

여행상품 개발에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가격도 중요하지만 보다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을 중시하는 ‘가심비’와 가격 대비 본인이 가치를 더 두는 곳에서 시간을 소비하는 ‘가심비’ 측면도 동시에 고려하여 잠재관광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더욱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내·외 연구자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관광 형태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며 언택트(비대면)관광, 온라인 축제, 스마트 관광 등 새로운 관광 형태가 생겨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관광지가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에 노출이 될 경우를 예상하면 관광지에 대해 사람마다 위험인식 정도가 다를 수 있기에 이를 분류하고, 밀집도 체크,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약과 방문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필요성도 제안해 본다.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주를 방문한 20세 이상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위험지각과 관광지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 분석된 결과를 통해 학술적 시사점과 향후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한 제주 관광정책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측정도구를 도출하여 PLS-SEM의 분석 방법과 절차에 따라 측정모델과 구조모델의 적합성 확인 후 연구모형의 경로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분석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약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강했을 당시보다 감염 위험성과 방역정책 등이 많이 완화된 시점에서 조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확대하지 못하고 제주지역 한곳으로 한정해서 진행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코로나19 감염위험 등 대면조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지만, 온라인 설문조사 시 조사기간, 조사자의 특성 등으로 편향된 표본이 추출될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할당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의 공간적 범위 및 표본선정의 확대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연구 등 좀 더 심화된 실증연구를 통해 제주의 관광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용석. (2021).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을 적용한 관광개발사업 모니터링 제도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강태순(Tae-Soon Kang), 오형민(Hyeong-Min Oh), 김종규(Jong-Kyu Kim), 정광영(Kwang-Young Jeong), 황순미(Soon-mi Hwang), & 김수민(Soo-Min Kim). (2017). 표본추출법을 이용한 연안주민의 재해대응능력 평가 및 특성 분석.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20(1), 55-61.
- 강하연. (2019). "남녀 대학생의 디저트카페 이용특성, 메뉴선택속성 및 만족도 관련 요인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 강혜숙. (2007). "항공권 유통경로에 대한 신뢰와 위험지각이 항공권 선택성향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고동우. (1998). "관광의 심리적 체험과 만족감의 관계." 국내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고선영. (2021). 코로나19 전후 제주 지역사회의 관광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7(2), 164-178.
- 고윤길. (2022).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이 관광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고한두. (2021). "관광지 선택속성이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 자기효능감, 관광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강릉시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 국내박사학위논문,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곽초. (2020). "중국 관광객의 사회적 지위가 지각된 가치, 지각된 위험, 관광만족도 및 관광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영산대학교 일반대학원.
- 곽행구(Haeng Goo Gwak), 김농오(Nong Oh Kim), & 김지인(Ji In Kim). (2008). 해양자원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관광연구저널, 22(2), 227-243.
- 구원일. (2022). 관광목적지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관광이미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관광연구, 24(4), 105-116.
- 권나은, & 현성협. (2022). 팬데믹 이후 항공기 기내식음료 서비스의 지각된 위험이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MICE관광연구, 22(1), 39-53.
- 권미영 (Mi Young Kwon). (2008).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이용객 선택속성연구 -울산지역 비즈니스

- 스호텔을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7(1), 253-268.
- 권해윤(Kwon Hae-Yoon). (2021). COVID-19 위협지역 인식유형이 관광지이미지, 위협지각 및 행동의도의 영향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분석. 호텔관광연구, 23(3), 18-33.
- 김경환. (2019).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한식당의 테이크아웃 푸드 선택속성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김경희(Kim Kyung-Hee),& 안지현(An Ji-Hyun). (2020). 농촌 치유관광의 회복경험이 관광만족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방문경험의 조절효과. 관광레저연구, 32(4), 5-25.
- 김기현,& 이진희. (2019). 중문관광단지 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관광지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호텔리조트연구, 18(3), 143-164.
- 김난영. (2012). 관광지 이미지, 관광자 만족, 관광지 충성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동북아관광연구, 8(1), 101-122.
- 김대관. (2005). 관광부문 위기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 한국관광정책, -(21), 62-72.
- 김대관. (2020). 코로나19 관광부문 영향과 이슈, 그리고 데이터 댐 구축. 제주관광학회 학술대회, 2020(09), 9-28.
- 김도윤. (2019).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김동일(Kim Dong-Il),& 윤유식(Yoon Yoo-Shik). (2012). 국내관광지의 접근가능성이 관광지 방문행동연기 및 국외관광 대체의사에 미치는 영향연구. 大韓經營學會誌, 25(1), 51-68.
- 김동준(Kim Dong-Joon),최현준(Choi Hyun-Jun),조환기(Cho Hwan-Ki),& 김광용(Kim Kwang-yong). (2020). 코로나팬데믹 이후 관광산업 발전방안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9(4), 129-144.
- 김문경. (2020). "소비가치가 시판김치 이용고객의 소비성향과 제품선택속성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가톨릭관동대학교.
- 김문순(Moon-Soon Kim),& 정복미(Bok-Mi Jung). (2021). 광주지역 중년여성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시대 식생활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6(4), 259-269.
- 김미영. (2021). "항공사 객실승무원 리더의 정치적 기술이 TMX와 LMX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민철(Min Cheol Kim),김형규(Hyung Kyu Kim),부창산(Chang San Boo),& 문성중(Sung Jong Moon). (2008). 중국관광객의 제주지역 선택 속성 분석. 호텔경영학연구, 17(4),

229-246.

- 김민호. (20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에 따른 서울시 상권 매출과 야간 인공조명 세기의 시계열 변화 패턴 분석. 국토지리학회지, 56(2), 125-136.
- 김병직, & 양위주. (2020).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해양관광목적지로서 섬 관광의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관광연구, 16(4), 183-198.
- 김선영(Sun Yung Kim), & 김형곤(Hyoung Gon Kim). (2009).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동기, 만족도, 충성도 차이. 觀光研究論叢, 21(1), 119-139.
- 김성연. (2018).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웨딩이벤트 소비자의 소비가치와 소비성향이 웨딩이벤트 선택속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김성태(Sung-Tae Kim), & 김진동(Jin-Dong Kim). (2020). 전염병 발생에 따른 관광위험지각,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의 구조적 관계 연구 : 연령의 조절효과. 관광연구저널, 34(12), 75-89.
- 김연희. (2013). "인터넷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인터넷 쇼핑의 위험지각." 국내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김영남 (Kim Young-nam), & 홍성화 (Hong Seong-hwa). (2020a). 뉴노멀(New Normal) 2.0 시대의 관광: 코로나19 유행 기간 제주 방문 관광객 IPA 결과를 중심으로. MICE관광연구, 20(2), 143-162.
- 김영남 (Kim Young-nam), & 홍성화 (Hong Seong-hwa). (2020b). 코로나 19 위험 인식과 낙관적 편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제주 방문 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4(8), 79-101.
- 김영민. (2021). 우도 해양도립공원 선택속성에 대한 만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관광진흥연구, 9(3), 177-194.
- 김영우. (2004). "관광동기 및 위험지각이 관광유형 선택과 관광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김우정. (2022). "관광동기와 국외 관광위험지각이 관광지 선택속성과 관광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김원인 (Won In Kim), & 김수경 (Soo Kyung Kim). (2009). 연구논문 : 여행사 전환유발 요인과 고객의 전환행동에 관한 연구. 觀光研究, 23(4), 357-373.
- 김은진, 유현경, 윤유식, & 오정미. (2016). MICE 개최지 방문위험지각 세분화에 따른 방문전환행동, 만족도 및 충성도 차이연구. 관광경영연구, 73(-), 89-107.
- 김장현·심경환·이철성. (2014). 『PLS 구조모델의 이해』. 경기도: 피앤씨미디어.

- 김재곤(Jae Gon Kim). (2018).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여행상품 선택속성이 관계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32(8), 21-36.
- 김재휘. (1999). 소비자행동 연구에서의 라이프스타일 어프로치. 社會科學研究, 12(-), 27-43.
- 김정서(Kim Jung-Seo), & 이결재(Lee Keol-Jae). (2021). 코로나 19 위험지각과 스마트관광 인식, 스마트관광 태도, 행동의도의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외식산업학회지, 17(1), 147-161.
- 김정희. (2005). "라이프스타일이 패키지여행상품 구매시 지각된 위험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김준호, & 최지은. (2010).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29(4), 305-332.
- 김지범. (2022).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이후의 한국의 사회동향: 2003-2021 한국종합사회조사. 조사연구, 23(1), 1-32.
- 김지영. (2022). "감염병 위험 상황에서 관광객의 위험지각태도(RPA)가 관광지 전환 행동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지윤. (2008). "라이프스타일과 와인 선택속성, 가치, 고객 만족 간의 관계." 국내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김진탁, 김계섭, & 공기열. (2002). 연구논문 : 개인가치, 라이프 스타일, 호텔 선택속성 및 만족간의 영향관계. 觀光研究, 17(2), 125-143.
- 김철원. (2021). 코로나19 위험지각이 호텔 서비스 선택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 . 관광진흥연구, 9(1), 83-98.
- 김충효. (2007).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여행상품선택 위험지각이 정보탐색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충효(Choong Hyo Kim), 서원석(Won Seok Seo), & 이순구(Soon Gu Lee). (2008).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여행상품 선택 시 위험지각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17(3), 137-156.
- 김향자, 엄서호 (Hang Ja Kim, & Seo Ho Um). (1997). 휴가목적지 선택결정 요인으로서 지각행동조절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1(1), 11-29.
- 김현(Kim Hyun), 박제온(Park Je-On), & 장호성(Chang Ho-Sung). (2019). 유럽방문 여행객의 라이프스타일, 관광지 선택속성, 관광행동간 영향 분석. 호텔경영학연구, 28(6), 49-63.
- 김현우(Hyun-Woo Kim), 김영리(Yeong-Ri Kim), & 윤지환(Ji-Hwan Yoon). (2022). 중국인 게스트하우스 방문객의 지각된 가치와 위험이 만족도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 저널, 36(1), 101-115.
- 김현정. (2019). 의료관광 의사결정과정 내 지각된 위험이 전반적인 위험과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국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觀光研究, 34(2), 201-216.
- 김현주, 전효재, 권태일, 최경은, 오훈성, 김형중, ... & 강현수. (2020). 코로나 19 의 관광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혜진. (2021). "전염병 위험지각이 관광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김효중 (Hyo Jung Kim), & 김시중 (Si Joong Kim). (2012). 대전 뿌리공원 관광지 선택속성이 관광객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지 이미지를 조절효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5(4), 735-751.
- 김훈. (2005). 지방 소도시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특성 : 대도시 소비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마케팅과학연구, 15(2), 203-225.
- 남승규. (2006).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7(3), 433-453.
- 남은경. (2020). "TPR과 TPB의 통합프레임워크를 활용한 북한관광의 위험지각에 따른 행동의도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남은경(Eun-Kyoung Nam), & 이승곤(Seung-Kon Lee). (2021). 북한관광의 위험지각에 따른 행동의도 연구 : 북한관광의 중요성 인식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5(6), 55-70.
- 노성환(Rho Seong-Hwan), & 이창기(Yi Chang-Gi). (2021).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의 위험지각이 관광지 숙박시설의 선택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관광연구, 23(1), 103-118.
- 노재현(Roh Jae-Hun). (2013). 스쿠버다이빙관광의 선택속성과 위험지각 및 재방문의도 간의 구조모형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2(4), 361-380.
- 노정희, & 전수현. (2016). 자연재해발생이 일본에 대한 위험인식 및 관광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진발생 전후의 차이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1(4), 99-113.
- 노해득. (2018). "관광경험이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 류인평, & 김영주. (2011). 관광 위험지각과 관광자 태도 및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觀光研究, 26(1), 149-168.
- 류재숙(Jae-Sook Ryu), & 김지은(Ji-Eun Kim). (2017). 울릉도방문객의 위험지각과 재방문과

- 의 관계에서 인지적이미지의 조절효과. 관광연구저널, 31(2), 237-250.
-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0). 코로나19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관련 조사. 리서치 보고서, 2020(4), 1-45.
- 문지효 (Jihyo Moon), & 이종원 (Jongwon Lee). (2020). 전염성 질병에 따른 여행 소비자의 여행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보호동기이론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98(-), 239-259.
- 문혜진. (2017).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한식기선택속성이 구매만족도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 민경애. (2020). "축제장 음식부스에 대한 위험지각 및 만족이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민양기(Min Yang Ki), & 이윤섭(Lee Yoon Sub). (2015). 관광객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어촌관광 선택속성 연구. 해양관광학연구, 8(2), 27-44.
- 민웅기(Woong-Ki Min), 김상태(Sang-Tae Kim), & 김남조(Nam-Jo Kim). (2017). 동아시아 문화권 관광객의 기후변화로 인한 한국관광지 위험지각 차이분석. 관광연구저널, 31(8), 5-19.
- 민창기(Min Chang-kee). (2017). 관광전공자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대한 수요 분석. 관광학연구, 41(10), 185-200.
- 박세준. (2016). "컨벤션 개최국의 위험지각, 이미지, 방문의도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국내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박은숙(Eun Suk Park), 김상호(Sang Ho Kim), & 이재섭(Jae Sub Lee). (2012). 연구논문 : FIT 관광객 동기유형별 호텔선택속성 차이연구. Tourism Research, 36(-), 231-248.
- 박정숙, & 이훈. (2017). 자연재해 위험지각이 관광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호동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 81(-), 203-209.
- 박정준, & 박진영. (1997). 연구논문 : 호텔선택에 있어서 지각된 위험에 관한 연구. 觀光研究, 8(-), 173-192.
- 박종찬. (2011).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른 해양관광지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13(4), 1-16.
- 박종찬. (2016).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전통시장 방문객 만족도 및 행동의도 차이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18(1), 307-323.
- 박지원. (2022). "관광지 만족도를 평가하는 관광지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 텍스트 마이닝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의 활용." 국내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박진영, 정성엽, & 윤세환. (2012). 항공사 선택속성의 IPA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에 관한 연구. 觀光研究, 27(5), 237-252.
- 박희자. (2009). "약선음식의 지각된 가치와 위협지각이 고객만족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강릉대학교.
- 백승현. (2007). "해양스포츠관광 선택 속성에 따른 시장세분화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소상록(Sang Rok So), & 이현재(Hyun Jae Lee). (2009).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의한 비주얼 머천다이징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웨딩을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8(2), 123-136.
- 소재민, & 심우석. (2022). 해수관광동기와 관광지 선택 속성 간 관계 연구: 관여도 조절효과 중심으로. 공존의 인간학, -(8), 265-300.
- 손애화. (2018). "중국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과 관광동기가 관광태도 및 관광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영산대학교.
- 손하나. (2014). "도보여행객의 여행동기, 선택속성 및 만족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 송수익(Soo Ik Song). (2015).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지역축제 선택속성이 고객유형별 차이와 고객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21(4), 271-283.
- 송운강(Woon-Gang Song), 류시영(Si-Young Ryu), & 박용민(Yong-Min Park). (2016). 생태관광지역의 이미지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30(5), 241-252.
- 신건권. (2018). (석박사학위 및 학술논문 작성 중심의) SmartPLS 3.0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신동주(Dong Ju Shin), & 손재영(Jae Young Son). (2008). 어촌관광 방문동기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2(3), 255-273.
- 신동일. (2020). 코로나 19와 제주관광산업의 대응전략. 제주관광학회 학술대회, 2020(09), 39-50.
- 신현호, & Sin Hyeon-Ho. (1999). 관광라이프스타일과 관광지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마케팅과학연구, 4(-), 1-24.
- 신흥철(Hong Chul Shin), & 김은영(Eun Young Kim). (2001).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방문객 선택속성연구. 호텔관광연구, 3(1), 115-133.
- 심성욱, & 박종민. (2004). 라이프스타일과 다양한 매체의 광고 효과 인식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 15(2), 7-33.
- 심우석. (2015). "관광자원 유형과 선택속성, 관광만족, 상품개발 선호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엄지영. (2022). 개인 가치가 관광지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Z세대 일본 관광객을 중심으로. 무역연구, 18(1), 343-359.
- 염수길(Yeum Soo-Kil), & 이재섭(Lee Jae-Sub). (2016). 객관적 지식수준 차이에 따른 도시관광 선택속성의 중요도와 성취도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8(7), 37-56.
- 영기(Young Ki Choi), & 홍영호(Young Ho Hong). (2011). 관광객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특수목적관광지 선택속성 연구. 社會科學論叢, 26(2), 117-145.
- 오민정. (2020). "확장된 계획행동이론(ETPB)을 적용한 직업가치가 직업선택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오동건. (2022). "코로나 시대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와인선택속성이 와인수요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오정미(Oh Jung Mi), 윤영혜(Yoon Yoo Shik), 윤유식(Yoon Yeong Hye), & 이혜련(Lee Hey Ryon). (2014). MICE 목적지 방문 지각위험에 따른 방문 전환행동 및 충성도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18(-), 405-417.
- 오종철, 이유선, & 김재홍. (2022). COVID-19 팬데믹 위험으로 인한 소비행동의 변화 연구. 벤처혁신연구, 5(2), 49-66.
- 왕결(Geol Wang), & 염진철(Jin Chul Yom). (2015). 중국 실버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이 관광지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觀光研究, 30(3), 465-482.
- 왕결(Wang Jie), & 조우재(Cho Wooje). (2021). 중국 실버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이 관광상품의 소비감정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觀光研究, 36(4), 23-40.
- 왕남(Nam Wang), 이가희(Gahee Lee), 유승동(Seungdong Yoo), & 윤덕인(Deokihn Yoon). (2015).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지각하는 위험이 한국방문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24(7), 185-202.
- 왕청비, & 설훈구. (2022). 소셜미디어 관광정보, 부산 관광지 선택속성, 이미지와방문의도에 관한 연구: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레저연구, 34(8), 25-46.
- 우은주(Eun-Ju Woo), & 이상탁(Sang-Tak Lee). (2022). 보호동기이론(PMT)과 건강신념모델(HBM)을 이용한 관광객 위기대응 행동 분석 : COVID-19 위기.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13(1), 301-315.

- 유다중. (2021). "크루즈관광의 위험커뮤니케이션이 위험지각과 관광이미지 및 관광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 유순호(Yu Soon-Ho), & 김경숙(Kim Kyung-Sook). (2017). 크루즈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 선택속성 및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계. 관광레저연구, 29(10), 131-149.
- 유순호(Yu Soon-Ho), 채선영(Chea Sun-Young), & 안대희(Ahn Dae-Hee). (2020). DMZ관광 선택속성 및 행동의도 연구: 관광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2(5), 31-52.
- 유창근, & 이혜린. (2014). 항공 승객들의 위험지각과 선택속성이 고객만족도와 재이용의도 간 관계 연구. 관광경영연구, 61(-), 317-339.
- 윤성준. (2021). "패널 모형을 이용한 국제관광 수요 결정요인 추정과 관광 위기 유형별 영향력 분석." 국내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윤성필. (2017). 여행 동기 유형에 따른 관광지 선택속성의 차이 분석: 대전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19(2), 18-36.
- 윤성필. (2022). 위험지각이 해외여행 관광지 전환의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 연구: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36(9), 35-48.
- 윤태환(Yoon Tae Hwan). (2006). 라이프스타일, 선택속성 그리고 고객만족과의 관계. 외식경영연구, 9(2), 233-252.
- 윤해진(Yoon Hae Jin), & 안희정(An Hee-Jung). (2021). 항공사 코로나-19 환경의 지각된 위험이 서비스 선택속성, 만족도 및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30(8), 195-211.
- 윤혜진. (2018). 베이비부머와 이후 세대들의 관광 활동과 행복감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73(4), 333-359.
- 유효진. (2022). "COVID-19 위험지각과 건강예방조치가 크루즈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미치는 영향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경민. (2021). "관광객의 감염병 인식이 지각된 위험, 지각된 가치, 관광 태도, 그리고 관광 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대학원.
- 이경숙, & 전보람. (2018). 관광지선택속성이 지각된 가치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방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경영연구, 86(-), 583-601.
- 이군희. (2018). 연구방법론의 이해. 서울: 북넷.
- 이동욱(Lee Dong-Wook). (2019). Scuba diving 리조트 이용고객의 지각된 라이프스타일과 선

- 택속성, 충성도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8(5), 463-475.
- 이민규(Min Kyu Lee), & 김영은(Young Eun Kim). (2009). 질병 관련 인터넷 정보 이용 효과 연구: 보호동기이론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4), 506-539.
- 이민재(Lee Min-Jae), 황윤섭(Hwang Yun-Seop), & 서원석(Seo Won-Seok). (2015). 관광객의 기후변화인식에 따른 관광위험, 관광만족 및 행동 의도 차이 검증을 통한 제주 관광 경쟁력 제고 방안. 觀光研究論叢, 27(4), 179-198.
- 이병관, 안완준, & 장병주. (2019). 해외골프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이 해외골프관광의 지각된 가치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50대 이상의 장·노년층 골프여행자를 대상으로-. 지역산업연구, 42(3), 231-254.
- 이상미(Lee Sang-Mi). (2021). 코로나19의 팬데믹에서 고객의 행동의도에 따른 레스토랑 선택속성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외식산업학회지, 17(3), 173-185.
- 이상미(Lee Sang-Mi), & 이정원(Lee Jung-won). (2021). 음식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이 음식관광 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리조트연구, 20(6), 119-133.
- 이상태. (2005). 라이프스타일과 호텔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論文集, 11(-), 1-16.
- 이서요, & 이태희. (2015). 개별여행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관광만족도,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의 차이 연구 - 방한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535-550.
- 이수진. (202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탐색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실시된 일본 내각부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6(3), 87-106.
- 이승엽, 김용일, & 남장현. (2022). 건강 라이프스타일이 만족, 재구매 의도,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 단백질 음료 소비자를 대상으로.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13(2), 169-182.
- 이암. (2022). "캠핑객의 캠핑장 선택속성, 캠핑관여도, 만족도 간의 관계 분석." 국내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원갑. (2008).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약선음식의 시장세분화전략." 국내박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 이원희, 김형중, 강지수. (2021). 코로나 19의 발생 이후 주요 방한 시장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윤섭. (2006). "관광자 가치, 라이프스타일, 동기가 관광지선택과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

-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이인희. (2016). "위험지각과 서비스품질이 항공사 선택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이의수. (2022). "관광목적지 지역주민의 장소애착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이정표(Lee Jung-Pyo), and 고민환(Ko Min-Hwan). (2021). "판소리 유튜브(영상) 속성이 가치-태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남치의 「범 내려온다」를 사례로." 관광레저연구 33 (5): 395-412.
- 이진의. (2020). "섬 관광에 대한 관광자의 위험지각이 여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진희(Jin Hee Lee). (2008).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른 제주해양관광(濟州海洋觀光)의 속성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2(4), 213-233.
- 이초혜. (2002). 관광자의 여행상품 지각위험과 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4(3), 141-155.
- 이충기. (2016). 관광조사통계분석 . 대왕사.
- 이현중. (2020).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세분시장별 리조트 이용객의 선택속성 차이분석. 관광연구저널, 34(9), 139-151.
- 이혜련(Hye-Ryeon Yi), & 김윤민(Youn-Min Kim). (2018).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이 식용곤충의 위험지각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24(4), 147-156.
- 이호배(李浩培), & 이호상(李浩相). (1999). 이동전화 이용 대학생의 라이프 스타일. 경영연구, 24(-), 287-313.
- 이홍규(Hong Kyu Lee), & 이동희(Dong Hee Lee). (2005). 방한 일본관광객의 관광동기에 따른 만족도 분석. 관광연구저널, 19(3), 327-337.
- 이희열. (2011). "지각된 의료관광 요인이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임명재. (2022). 관광위험지각이 관광 태도와 의도에 미치는 영향: COVID-19 상황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20(3), 459-468.
- 임화순(Hwa Soon Lim), & 고계성(Kye Sung Ko). (2013). 관광지 방문객의 방문동기가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연구저널, 27(2), 289-302.
- 임화순, 김구, & 김영민. (2011). 제주지역 해수욕장 유형에 따른 선택속성에 관한 비교연구. 제주관광학회 학술대회, 2011(1), 222-244.

- 임화순(Hwasoon Lim), & 남윤섭(Yoonseob Nam). (2018). 서비스 종사원의 제주 방언사용이 관광지 이미지 형성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3), 520-529.
- 장두영(Chang Do-Young), & 이충기(Lee Choong-Ki). (2020). COVID-19 위험인식과 건강의식이 보호동기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29(7), 191-208.
- 장모나. (2021). "지역사회 애착도와 관광영향 인식이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장양례. (2005). "노인여행자시장의 라이프스타일 세분화." 국내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전달영, & 정혜연. (1999). 카탈로그 쇼핑시 패션 라이프스타일과 위험지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流通研究, 4(1), 185-203.
- 전정원. (2008). "뉴실버 세대의 심리적 변수에 따른 외식소비 행동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 전찬수(Chan Soo Jun), & 임기태(Ki Tae Yim). (2009). 리조트 이용객의 라이프스타일이 선택 속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0(36), 277-288.
- 정균표. (2011). "노인소비자의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이 관광지 선택 속성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정규선. (2022). COVID-19의 심리적 영향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관광 유형선택, 관광지 선택, 관광 상품 구매 간의 인과 관계 연구 - 언택트(Untact) 조절효과 -. 호텔리조트연구, 21(5), 359-382.
- 정승훈(Chung Seung-Hoon), & 양성수(Yang Sung-Soo). (2021).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위기 관리전략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양관광학연구, 14(2), 97-116.
- 정오(Cheng Ao), 이지민(Lee Ji-Min), 정남호(Chung Nam-Ho), & 구철모(Koo Chul-Mo). (2018). 관광목적지에 대한 지각된 가치가 관광경험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27(1), 73-89.
- 정용복(Jung Yong-bok). (2020).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방문객의 선택속성이 관광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濟州島研究, 53(-), 159-185.
- 정용주(Yong Ju Jeong), 황지윤(Ji Yoon Hwang), & 최상수(Sang Su Choi). (2012). 일본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 개인가치에 따른 메뉴선택속성 연구 -부산지역 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51(-), 231-250.
- 정재훈(Jae Hoon Jung). (2015).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 군집별 패션명품브랜드에 대한 위험지각이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6(6), 577-593.

- 정준욱. (2010). "미래 해외골프회원권 구매자의 라이프스타일이 선택속성과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정지연. (2019). "일본관광지의 음식에 대한 위험지각, 음식이미지 및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국내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정지영(Jung Jiyoung), & 장태선(Jang Tae-Sun). (2020). 항공서비스관련전공 대학생의 대학 선택속성에 대한 고찰 : IPA기법을 적용하여. 호텔경영학연구, 29(4), 331-346.
- 정충화. (2020). 유학생 라이프스타일이 관광지선택속성과 행동의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ourism Research, 45(3), 465-491.
- 정혜련. (2011).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선택속성과 위험지각이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정희정, 구철모, & 정남호. (2020). 실현율을 이용한 시나리오 기반 스마트관광도시 관광객 수요에 측. 관광학연구, 44(7), 163-179.
- 제주관광공사(2022).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_____(2023).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 조성규(Cho Sung-Kyu), & 최규환(Choi Kyu-Hwan). (2016). 테마여행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국내테마여행상품선택속성 차이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8(2), 199-215.
- 조승아 (Cho Seung-a). (2021). 전염병에 대한 위험지각이 관광의향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 19 사례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46(1), 485-504.
- 조승아 (Cho Seung-a), & 김상운 (Kim Sang-woon). (2018). 관광지 위험지각에 대한 낙관적 편견이 관광지 전환의도 및 위험 감소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42(10), 175-190.
- 조용진, & 박정하. (2022). 해외여행의 위험지각과 방문의도 간에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MICE관광연구, 22(2), 133-155.
- 지영근. (2022). "국내관광 선택속성과 코로나19 위험지각, 방문의도의 구조적 관계." 국내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 진미안, & 김남조. (2022). COVID-19 시대에서 중국인 잠재관광객의 한국관광에 대한 위험지각 및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확장된 건강신념모델 적용 -. 觀光研究, 37(5), 217-241.
- 진쟁, & 이진희. (2019). 제주 방문 중국관광객 라이프스타일 유형별에 따른 면세 점선택속성과 만족도, 재방문의도에 관한 연구. 호텔리조트연구, 18(4), 173-190.
- 진정. (2013). "중국인 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위험지각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채서일. (1992). 체계적 분석의 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연구. 소비자학연구, 3(1), 46-63.
- 최동희. (2022). 시니어세대의 해양관광지 선택속성과 관광만족에 관한 연구: 관광유형의 조절효과. 해양관광학연구, 15(4), 27-40.
- 최상학. (2023). "초등학생의 가족여가활동, 관광동기, 관광경험 및 관광만족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최영진. (2021). "세계문화유산의 환경단서가 관광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 최용훈. (2008). "관광지선택속성이 관광자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 최원실(Won Sil Choi), 김현노(Hyun No Kim), & 김경량(Kyung Ryang Kim). (2017). 관광객의 위험지각이 농촌관광지 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농업경영정책연구, 44(2), 315-332.
- 최종남. (2020). "걷기여행동기, 선택속성, 만족도, 행동의도간의 영향관계연구-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내 걷기여행자를 중심으로." 국내박사학위논문, 강릉원주대학교.
- 하대용, & 민성기. (2003). 인터넷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정보탐색 및 구매결정에 관한 연구. 産業經營研究, 26(1), 275-300.
- 하정순. (2007). "실버타운 개발을 위한 선호속성 및 선택의도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한국관광공사(2010). 한국관광통계
_____ (2020). 한국관광통계
- 한국 갤럽 조사연구소. (2021). 직장인 코로나19 전후 변화.
- 한성호 (Sung Ho Han). (2012). 호텔레스토랑의 선택속성 연구들에 관한 연구방법론적 고찰 -호텔·외식 및 관광관련 국내학술지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6(7), 197-215.
- 한영권. (2006). "위험지각과 품질지각이 여행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한지숙(Ji Sook Han), & 김영국(Yeong Gug Kim). (2014). 일본에 대한 지각된 신체적 위험이 관광목적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무역연구, 10(6), 1265-1281.
- 허양례. (2011). "해양관광지 방문객의 가치, 라이프스타일, 동기와 매력속성 지각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허지현. (2007). "관광위험지각이 관광행동선호와 관광지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홍관식. (2013).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로컬 푸드의 위험 지각과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홍수장 (Soo Jang Hong), & 이태희 (Tea Hee Lee). (2013). 논문 : 힐링 트랜스포메이션 재화로서 산림치유 시설 선택요인 중요도 인식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1), 97-106.
- 황규원. (2008).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식공간연출 요소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 BUKHBAT MUNKHSARAN. (2020). 관광동기와 힐링관광자원 선택속성이 관광객 만족과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 Duan Zhiwei. (2020). "중국 문화유산관광지의 관광동기와 선택속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기타

국립국어원(2023). <https://www.korean.go.kr/>

동아사이언스(WHO 결국 팬데믹 선언…팬데믹이란 무엇인가?, 2020.3.12.)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5044>

매일경제(항공편 늘리고 관광요금 거품빼라, 2008.6.12.)

<https://www.mk.co.kr/news/society/4448527>

연합뉴스(WT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2020.3.12.)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2002151088?input=1195m\(W](https://www.yna.co.kr/view/AKR20200312002151088?input=1195m(W)

연합뉴스(코로나19 사망 감소 지속…WHO 총장 “비상경계 연내 해제”, 2023.4.7.)

<https://www.yna.co.kr/view/AKR20230407002200088?input=1195m>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홈페이지 관광통계(2023).

<http://www.visitjeju.or.kr/web/bbs/bbsList.do?bbsId=TOURSTAT>

질병관리청 홈페이지(2023). <https://www.kdca.go.kr/>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2023). <https://knto.or.kr/index>

JIBS(‘고비용’ 제주, 결국 소비자 외면 불렀다.. “제주 대신 강원”, 2020.10.25.).

<https://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26227>

■ 국외문헌

- Adler, A.(1969). by H. L. Ansbacher, *The Science of Living*. Anchor Book, Double day & Co., N.Y. 38-47.
- Assael, H. (1995).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action*.
- Baker, D. A., & Crompton, J. L. (2000). Quality,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3), 785-804.
- Bauer, R. A.(1960). Consumer behavior as risk taking. In: Hancock, R.(Ed.), *Dynamic/marketing for a changing world*.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Chicago, IL, 389-398.
- Brahmkshatriya, J., & Pandit, R. (2020). A Lifestyle Segmentation Approach towards Eco Tourism with the Use of AIO Approach. *Mukt Shabd Journal*, IX, 61-73.
- Brewer, N. T., Chapman, G. B., Gibbons, F. X., Gerrard, M., McCaul, K. D., & Weinstein, N. D. (2007).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perception and health behavior: The example of vaccination. *Health Psychology*, 26(2), 136 - 145.
- Chahal, H., & Devi, A. (2015). Destination attributes and destination image relationship in volatile tourist destination: role of perceived risk. *Metamorphosis*, 14(2), 1-19.
- Chamba, A. T., Asadobay -Guashpa, A. P., Jaramillo, A. S., Silva, J. L., & Ruiz, J. S. (2021). Evaluation of the tourist attractions of Canton Puyango, Province of Loja-Ecuador. *Espirales revista multidisciplinaria de investigación científica*, 5(4), 19-35.
- Champion, V. L., & Skinner, C. S. (2008). The health belief model.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4, 45-65.
- Chen, K. H., Chang, F. H., & Tung, K. X. (2014). Measuring wellness-related lifestyles for local tourists in Taiwan. *Tourism Analysis*, 19(3), 369-376.
- Chew, E. Y. T., & Jahari, S. A. (2014). Destination image as a mediator between perceived risks and revisit intention: A case of post-disaster Japan. *Tourism management*, 40, pp.382~393.
- Cohen, S. A. (2011). Lifestyle travellers: Backpacking as a way of life. *Annals of*

- Tourism Research, 38(4), 1535 - 1555.
- Coltman, M. M. (1981). *Introduction to Travel and Tourism: An International Approach*. Van Nostran Reinhold: New York.
- Danielle, D., & Purwanegara, M. S. (2022). THE INFLUENCE OF DESTINATION ATTRIBUTES AND TOURIST'S LIFESTYLE TOWARDS LOCAL TOURIST PREFERENCES IN CHOOSING DOMESTIC TOURIST DESTINATIONS IN INDONESIA.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y*, 4(3), 183-199.
- Das, S. S., & Tiwari, A. K. (2020). Understand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travel intention of Indian travelers during COVID-19 using a Bayesian approach. *Tourism Recreation Research*, 46, 1 - 17.
- Davidson, M. (2010). *Impact of Manipulated Perceived Efficacy and Self-Affirmation on Measures of Risk, Efficacy, and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 Duman, T., Erkaya, Y., & Topaloglu, O. (2020). Vacation interests and vacation type preferences in Austrian domestic tourism.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37(2), 217-245.
- Engel, J. F., Blackwell, R. D., & Miniard, P. W. (1990). *Consumer behavior* (6th ed.). Chicago, IL: The Dryden Press.
- Ertaş, M., & Kırlar-Can, B. (2022). Tourists' risk perception, travel behaviour and behavioural intention during the COVID-19. *Europ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32, 3205-3205.
- Feldman, S. D. & Thielbar, G. W. *Lifestyles : Diversity in American Society*, 2 and Ed, Littler Brown & Co, Boston. pp. 1~3, 1972.
- Floyd, M. F., Gibson, H., Pennington-Gray, L., & Thapa, B.(2004). The effect of risk perceptions on intentions to travel in the aftermath of september 11, 2001. *Journal of Travel and Tourism Marketing*, 15(2-3), 19-38.
- Fuchs, G., & Reichel, A. (2006). Tourist destination risk perception: The case of Israel. *Journal of Hospitality & Leisure Marketing*, 14(2), 83-108.
- Glaesser, D. (2006). *Crisis management in the tourism industry*. Routledge.
- Gnerre, M., Abati, D., Bina, M., Confalonieri, F., De Battisti, S., & Biassoni, F. (2022). Risk perception and travel satisfaction associated with the use of public

- transport in the time of COVID-19. The case of Turin, Italy. *Plos one*, 17(3), e0265245.
- Goodrich, J. N. (1997). Benefit bundle analysis: An empirical study international travelers. *Journal of Travel Research*, 16(2), 6-9.
- Hair Jr, J., Hult, F., GTM, R., & Sarstedt, M. (2017). *A primer on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ed.) Sage Publications, Thousand Oaks.
- Hair, Joe F., Ringle, C. M., & Sarstedt, M.(2011). PLS-SEM: Indeed a silver bullet.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19(2), 139 - 151.
- Han, S., Yoon, A., Kim, M. J., & Yoon, J. H. (2022). What influences tourist behaviors during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Focusing on theories of risk, coping, and resilience.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50, 355-365.
- Hossan, D., Aktar, A., & Zhang, Q. (2020). A Study on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as Emerging Tool in Action Research. *LC International Journal of STEM (ISSN: 2708-7123)*, 1(4), 130-146.
- Hotle, S., Murray-Tuite, P., & Singh, K. (2020). Influenza risk perception and travel-related health protection behavior in the US: Insights for the aftermath of the COVID-19 outbreak. *Transportation Research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5, 100127.
- Huang, J., Chuang, S., Lin, Y. (2008). Folk religion and tourist intention avoiding tsunami-affected destinations. *Annals Tourism Research*, 35 (4), 1074 - 1078.
- Huang, X., Dai, S., & Xu, H. (2020). Predicting tourists' health risk preventative behavior and travelling satisfaction in Tibet: Combin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health belief model.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33, 100589.
- Jafari, J., Baretje, R., Buhalis, D., Cohen, E., Collison, F., Dann, G. M., ... & Fletcher, J. (Eds.). (2000). *Encyclopedia of tourism*. Taylor & Francis.
- Jang, S. S., & Feng, R. (2007). Temporal destination revisit intention: The effects of novelty seeking and satisfaction. *Tourism management*, 28(2), 580-590.

- Jarvenpaa, S. L., Tractinsky, N., & Vitale, M. (2000). Consumer trust in an Internet store. *Informa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1, 45 - 71.
- Khozaei, F., Carbon, C. C., Hosseini Nia, M., & Kim, M. J. (2022). Preferences for Hotels with Biophilic Design Attributes in the Post-COVID-19 Era. *Buildings*, 12(4), 427.
- Kim, J. J., & Han, H. (2022). Saving the hotel industry: Strategic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hotel selection analysis, and customer re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102, 103163.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Knight, D. L. *An Introduction to Travel and Tourism*. McGraw-Hill Publishing Company, 1921.
- Kotler, P., Bowen, J., & Makens, J. (1996). *Marketing for Hospitality and Tourism*, Prentice-Hall Inc.
- Laws, E., & Prideaux, B. (2005). *Tourism crises: Management responses and theoretical insight*. Psychology Press.
- Lazer, W. Life style concepts and marketing, in *toward scientific Marketing*, Stephen Greyser, ed., Chicago: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Decemer, 1963.
- Lee, K. H., Packer, J., & Scott, N. (2015). Travel lifestyle preferences and destination activity choices of Slow Food members and non-members. *Tourism Management*, 46, 1-10.
- Liu, L., Zhou, Y., & Sun, X. (2023). The Impact of the Wellness Tourism Experience on Tourist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Tourist Satisfaction. *Sustainability*, 15(3), 1872.
- Luvsandavaajav, O., Narantuya, G., Dalaibaatar, E., & Raffay, Z. (2022). A Longitudinal Study of Destination Image, Tourist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 Reference: Oyunchimeg, L., Gantuya, N., Enkhjargal, D. & Raffay, Z. (2022). A Longitudinal Study of Destination Image, Tourist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 *Journal of Tourism and Services*, 24 (13), 128-149. 10.29036/jots.v13i24.341. *Journal of Tourism and Services*, 13(24), 128-149.

- Mansfeld, Y. (2006). The role of security information in tourism crisis management: the missing link. *Tourism, security & safety: From theory to practice*, 271-290.
- Mayo, E. (1975). Tourism and the National Parks: A Psychographic and Attitudinal Study. *Journal of Travel Research* 14(1), 14-21.
- Mehta, K., & Panse, C. (2022). Influence of Travellers' Lifestyle Choices on the Development of Eco-Tourism Sites at Popular Tourist Destinations in Asia. *Specialusis Ugdymas*, 1(43), 5395-5418.
- Meng, F., Tepanon, Y., & Uysal, M. (2008). Measuring tourist satisfaction by attribute and motivation: The case of a nature-based resort.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14(1), 41-56.
- Mitchell, V. W. (1999). Consumer perceived risk: conceptualisations and models.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 Nazneen, S., Hong, X., & Ud Din, N. (2020). COVID-19 crises and tourist travel risk perceptions. *SSRN Electronic Journal*.
- Neuburger, L., & Egger, R. (2020). Travel risk perception and travel behavior during the COVID-19 pandemic 2020: A case study of the DACH region. *Current Issues in Tourism*, 24, 1 - 14.
- Ocampo, L., & Yamagishi, K. (2022). Multiple criteria sorting of tourist sites for perceived COVID-19 exposure: the use of VIKORSORT. *Kybernetes*, 51(11), 3121-3152.
- Oliver, R. L. (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ecis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7(4), 460-469.
- Oliver, R. L. (1981).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satisfaction processes in retail settings. *Journal of retailing*.
- Oliver, R. L. (1997). *Satisfaction: A behavioral perspective on the consumer*. New York: McGraw-Hill.
- Pappas, N., & Farmaki, A. (2022). Attributes attitudes and chaotic travel intentions during COVID-19. *Current Issues in Tourism*, 25(24), 4014-4030.
- Parady, G., Taniguchi, A., & Takami, K. (2020). Travel behavior chang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Japan: Analyzing the effects of risk perception and

- social influence on going-out self-restriction. *Transportation Research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7, 100181.
- Parasakul, L. (2023).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Chinese Tourists' Perceived Risk in Thailand. *Suranaree Journal of Social Science*, 17(1).
- Plummer, J.(1974)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Lifestyle Segmentation', *Journal of Marketing*. 38, 33 - 7
- Quintal, V. A., Lee, J. A., & Soutar, G. N. (2010). Risk, uncertainty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tourism example. *Tourism management*, 31(6), 797-805.
- Radin, M. B., Vujičić, M. D., Todorović, N., Dragin, A. S., Stankov, U., & Mijatov, M. B. (2022). Modeling spa destination choice for leveraging hydrogeothermal potentials in Serbia. *Open Geosciences*, 14(1), 906-920.
- Rahman, M. K., Gazi, M. A. I., Bhuiyan, M. A., & Rahaman, M. A. (2021). Effect of Covid-19 pandemic on tourist travel risk and management perceptions. *Plos one*, 16(9), e0256486.
- Reichel, A., Fuchs, G., & Uriely, N. (2007). Perceived risk and the non-institutionalized tourist role: The case of Israeli student ex-backpackers. *Journal of Travel Research*, 46(2), 217-226.
- Rittichainuwat, B. N., & Chakraborty, G. (2009). Perceived travel risks regarding terrorism and disease: The case of Thailand. *Tourism management*, 30(3), 410-418.
- Roehl, W. S., & Fesenmaier, D. R. (1992). Risk perceptions and pleasure travel: An exploratory analysi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0(4), 17-26.
- Rogers, R. W. (1975), A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of fear appeals and attitude change1, "The journal of psychology", 91(1), 93-114.
- Roy, G., & Sharma, S. (2021). Analyzing one-day tour trends during COVID-19 disruption - applying push and pull theory and text mining approach. *Tourism Recreation Research*, 46(2), 288-303.
- Saidmamatov, O., Khodjaniyazov, E., Matyakubov, U., Ibadullaev, E., Bekjanov, D., Day, J., ... & Zhao, J. (2021). The impact of Central Asian tourists' risk perception on their travel intentio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Turyzm/Tourism, 31(2), 133-154.
- Sánchez-Cañizares, S. M., Cabeza-Ramírez, L. J., Muñoz-Fernández, G., & Fuentes-García, F. J. (2021). Impact of the perceived risk from Covid-19 on intention to travel. *Current Issues in Tourism*, 24(7), 970-984.
- Sarstedt, M., & Cheah, J. H.(2019).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SmartPLS: A software review. *Journal of Marketing Analytics*, 7(3), 196 - 202.
- Sarstedt, M., Ringle, C. M., & Hair, J. F.(2017).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Handbook of market research*, ed. C. Homburg, M. Klarmann, and A. Vomberg. Heidelberg: Springer.
- Senbeto, D. L., & Hon, A. H. (2020). The impacts of social and economic crises on tourist behavior and expenditure: An evolutionary approach. *Current Issues in Tourism*, 23(6), 740 - 755.
- Sjöberg, L., & Engelberg, E. (2005). Lifestyles, and risk perception consumer behavior.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15(2), 327-362.
- Silverberg, K. E., Backman, S. J., & Backman, K. F. (1996).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to the psychographics of nature-based travelers to the southeastern United Stat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5(2), 19 - 28.
- Slovic, Fischhoff, & Lichtenstein. (1982). Why Study Risk Perception?, *Risk Analysis*, 2(2), pp.83~93.
- Sobel, M. E. (1981). *Lifestyle and social structure: concepts, definitions, analyses*. New York: Academic Press.
- Sönmez, S. F., & Graefe, A. R. (1998). Influence of terrorism risk on foreign tourism decis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5(1), 112 - 144.
- Težak Damijanić, A. (2019). Wellness and healthy lifestyle in tourism settings. *Tourism Review*, 74(4), 978-989.
- UNWTO. (2020).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could fall by 20-30% in 2020.
- UNWTO. (2021). *International Tourism Highlights, 2020 Edition*.
- Um, S., & Crompton, J. L. (1990). Attitude determinants in tourism destination choi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17(3), 432-448.

- Vargas, E. P., de-Juan-Ripoll, C., Panadero, M. B., & Alcañiz, M. (2021). Lifestyle segmentation of tourists: the role of personality. *Heliyon*, 7(7), e07579.
- Wells, W. D. & Tigert, D. J. Activities, interests and opinions.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11(4), 1971.
- Wen, J., Kozak, M., Yang, S., & Liu, F. (2021). COVID-19: potential effects on Chinese citizens' lifestyle and travel. *Tourism Review*, 76(1), 74-87.
- Wind, Y., & Green, P. E.(1974). Some Conceptual, Measurement, and Analytical Problem son Life Style Research, in *Life Style and Psychographics*, W. D. Wells(Ed.), Chicago, IL :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97-126.
- Wu, L., & Shimizu, T. (2020). Analyzing dynamic change of tourism destination image under the occurrence of a natural disaster: evidence from Japan. *Current Issues in Tourism*, 23(16), 2042-2058.
- Yang, H., Zhao, Q., Zhang, Z., & Jia, W. (2022). Associations between Lifestyle Changes, Risk Perception and Anxiety during COVID-19 Lockdowns: A Case Study in Xi'an.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20), 13379.
- Zhang, Y., Yang, H., Cheng, P. and Luqman, A(2020). Predicting consumers' intention to consume poultry during an H7N9 emergency: an extens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model. *Human and Ecological Risk Assess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26(1). pp.190-211.
- Zins, A. (1993). *Lifestyles im Tourismus*. In *Strategisches Management im Tourismus* (pp. 95-131). Springer Vienna.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위험지각과 관광지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설문 내용은 오직 학문적 연구 목적만을 위해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일괄 처리하므로 익명성이 보장되며, 귀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초래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문항은 맞고 틀리는 정답이 없으므로 진솔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 02.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박사과정

연구자 : 김기현

지도교수 : 임화순

(darangshee@empas.com / 010-6609-4306)

I. 귀하의 제주 관광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V 표를 하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코로나19 팬데믹(2020년 3월)이후 제주를 몇 번 방문하셨습니다?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2. 귀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누구와 함께 제주를 방문하셨습니다?

- ① 혼자 ② 친구 ③ 연인 ④ 가족/친지 ⑤ 직장동료 ⑥ 모임 ⑦ 기타()

3. 귀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주 관광에 몇 명이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 ① 혼자 ② 2~3명 ③ 4~5명 ④ 6~9명 ⑤ 10명 이상

4. 귀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주 관광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 ① 인터넷/앱 ② 언론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③ 본인지식과 경험
④ 지인의 소개 ⑤ 여행사 ⑥ 항공사,호텔 ⑦기타()

5. 귀하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주 관광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1일 ② 1박 2일 ③ 2박 3일 ④ 3박 4일 ⑤ 4박 5일 이상

6. 귀하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주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휴양 및 관광 ② 회의 및 업무 ③ 레저스포츠 ④ 캠핑(차박,백패킹) ⑤ 신혼여행
⑥ 올레길 체험(한라산,오름탐방) ⑦ 친구/친지방문 ⑧ 한달살기 ⑨ 기타()

7. 귀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주에서 이용한 숙박시설은 무엇입니까?

- ① 호텔 ② 콘도/리조트 ③ 펜션 ④ 게스트하우스/호스텔 ⑤ 친척/친구집
⑥ 캠핑(차박) ⑦기타()

8. 귀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주까지 이용한 왕복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비행기 ② 배 ③ 비행기(올 때), 배(갈 때) ④ 배(올 때), 비행기(갈 때)

9. 귀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주 관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렌터카 ② 전세버스 ③ 대중교통(버스) ④ 대중교통(택시) ⑤ 자전거
⑥ 오토바이 ⑦ 본인 자가용 ⑧친구/지인 차량 ⑨ 기타()

10. 귀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는 몇 회입니까?

- ① 0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5회 이상

11. 귀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징적인 제주 관광의 특징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① 도시관광 ② 생태관광(자연) ③ 쇼핑관광 ④ 역사문화관광 ⑤ 음식관광
⑥ 모험·레포츠관광 ⑦ 해양관광 ⑧ MICE관광(기업회의,인센티브,전시 등)
⑨ 힐링(웰니스)관광(해양·산림·농업치유, 템플스테이,스파 등)
⑩ 관광시설관광(테마파크 등) ⑪ 기타()

**12. 귀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주 관광에서 1인당 1일 평균 지출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비행기, 배 이용료 제외)**

- ① 10만원 미만 ② 20만원 미만 ③ 30만원 미만 ④ 40만원 미만 ⑤ 50만원 미만
⑥ 50만원 이상 ⑦ 기타()

II. 귀하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V 표를 하기 바랍니다.

라 이 프 스 타 일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건강 추구형	1. 건강 관련 정보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건강 유지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건강식품, 자연식품, 유기농식품 등을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식생활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활동 추구형	5. 휴가 시 여행이나 레저활동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친구, 동창회, 직장 등 모임에 적극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새로운 모험을 하거나 사람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미술관, 전시관, 영화 감상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운동경기를 보는 것보다는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보수 추구형	10. 어르신들 앞에서 담배 피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사회적 관습에 맞추어 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새로운 변화보다 규칙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유행하는 스타일보다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실용 추구형	14. 여행할 때 미리 계획을 짜고 그에 따라 여행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여행할 때 관광지, 숙박 등 선택 시 실용적인 부분을 제일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여러 회사의 제품을 비교한 후에 구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주로 이벤트(가격 할인 등) 기간에 물건을 구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I. 귀하가 가지고 있는 제주 관광에 대한 위험인식(지각)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V 표를 하기 바랍니다.

위험인식(지각)		매우 그렇다 ←→ 전혀 아니다						
코로나 위험	1. 제주 관광지 시설(숙박, 식당 등)이 안전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제주의 의료시설 및 의료기술 수준이 높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제주 관광지의 먹거리 안전이 좋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여행 중 질병, 감염병 위험이 괜찮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신체적 위험	5. 제주 여행에 비행기, 선박 이용시 사고 위험이 괜찮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자연재해(지진, 태풍, 쓰나미 등) 발생 위험이 괜찮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이 괜찮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강도나 폭행 등 범죄 유발 위험이 괜찮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경제적 위험	9. 국내 다른 지역과 물가가 비슷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처음 계획 한 것과 비용이 비슷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부당한(바가지) 요금이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V. 귀하가 제주를 관광지로 결정한 관광지 선택속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V' 표를 하기 바랍니다.

관광지 선택속성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코로나 안전요인	1. 사회적으로 안전한 곳인가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안전시설이 풍부하고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인가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관광지 시설(숙박, 식당 등) 청결한가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관광지 방문객 밀집도 등 방역관리가 잘되나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화요인	5. 역사적인 문화와 유물이 풍부한 곳인가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역사 교육과 관광이 가능한 곳인가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다양한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인가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현지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인가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력요인	9. 경관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곳인가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계절과 기후의 쾌적성을 느낄 수 있나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자연적 매력물이 다양한 곳인가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다양한 살거리 등 쇼핑 장소가 있나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내가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인가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힐링요인	14. 치유(힐링)관광을 통해 쌓였던 긴장을 풀 수 있나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치유(힐링)관광 프로그램이 다양한가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치유(힐링)관광 자원이 풍부한가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치유(힐링)관광을 위한 신뢰감 있는 전문인력이 있나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V. 귀하의 제주 관광 만족도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V' 표를 하기 바랍니다.

만족도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만족도	1. 제주를 관광지로 선택한 나의 결정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제주 방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제주 관광은 내가 기대했던 수준과 비교할 때 비용이 적절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제주 관광은 다른 관광지에 비해 시설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코로나19 시기 제주 관광에 대한 안전성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제주 관광지의 홍보 및 정보제공이 잘 이루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제주 관광에 대한 좋은 점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얘기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VI. 귀하의 일반적인 인구통계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V' 표를 하기 바랍니다

-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여성 ② 남성
-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 재학/졸업 ③ 대학교 재학/졸업 ④ 대학원 재학/졸업(수료)
- 귀하 가족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200만원 미만 ② 200~300만원 미만 ③ 300~400만원 미만
④ 400~500만원 미만 ⑤ 500~600만원 미만 ⑥ 600만원 이상
-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① 서울시 ② 경기·인천권 ③ 충청권 ④ 경상권 ⑤ 전라권
⑥ 강원권 ⑦ 해외()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Abstract

The Effects of Risk Perceptions and Tourist 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 by Lifestyle Types on Satisfaction : Focusing on domestic tourists visiting Jeju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ince the declaration of the COVID-19 pandemic, the tourism industry has suffered severe damages, and people have experienced fear and depression related to COVID-19 infection, as well as symptoms of so-called “corona blues.” They have also undergone changes in consumption behavior and lifestyle to protect themselves from COVID-19. However, research on COVID-19 and Jeju tourism remains limited to exploratory studies, and the current government’s quarantine policies, such as adjusting the corona crisis level, have been greatly relaxed.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on changes in tourists’ perceptions during the pandemic and empirical studies to prepare for the post-COVID-19 peri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perceptions based on lifestyle types and tourist 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 and their impact on satisfaction among domestic tourists aged 20 and above who visited Jeju Isl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o this end, sub-factors were derived based on previous studies regarding the expected changes in lifestyle, risk perceptions, 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 and satisfaction. A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were developed to explain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Hypothesis 1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style and risk perceptions, Hypothesis 2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style and 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 Hypothesis 3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perceptions and 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 Hypothesis 4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style and satisfaction,

Hypothesis 5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perceptions and satisfaction, and Hypothesis 6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 and satisfaction.

Measurement tools for each variable were derived based on previous studies, considering specific situations such as fear and depression caused by COVID-19, stress, health, hygiene and cleanliness, and economic insecurit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a research survey company to target domestic tourists aged 20 and above who visited Jeju Isl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aking into account the risks of COVID-19 infection. A total of 600 respondents were selected as the sample for statistical analysis.

Using the collected sample of 600 valid responses from the online survey, the study conducted a two-step analysis: the first step involved measurement model analysis using SPSS 22.0 (frequency analysis), and the second step involved structural model analysis using Smart PLS 4.0 to test the hypothese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among the lifestyle types of Hypothesis 1, only the health-seeking, activity-seeking, and practical-seeking typ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economic risk among risk perceptions factors (Hypothesis 1). Among the lifestyle types, health-seeking typ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cultural factors, and practical-seeking typ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all 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 except for COVID-19 safety factors (Hypothesis 2). Among the risk perceptions factors, COVID-19 risk showed negative influence on COVID-19 safety, cultural, attractiveness, and healing factors, while physical risk showed negative influence only on COVID-19 safety factor, and economic risk showed positive influence only on attractiveness factor (Hypothesis 3). Except for the health-seeking type, all other lifestyle typ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satisfaction (Hypothesis 4). Only economic risk among the risk perceptions factors showed negative influence on satisfaction (Hypothesis 5). All 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

including COVID-19 safety, cultural, attractiveness, and healing facto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satisfaction (Hypothesis 6).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and distinctiveness in empirically examining the limita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and Jeju tourism, which were not adequately addressed in previous studies. Among the lifestyle types of the study participants, none of them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COVID-19 risk and physical risk, indicating that the level of COVID-19 crisis has stabilized. Considering the transition to a daily management system, such as government disease control regulations, stakeholders in Jeju Island and the tourism industry have suggested the need for active marketing strategies to attract tourists, as in the period before the COVID-19 pandemic. Additionally, excluding the activity-seeking lifestyle type, all other lifestyle typ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only with economic risk, highlighting that awareness efforts are needed to solve the high-cost problem of Jeju tourism.

This study was conducted approximately three years after the declaration of the COVID-19 pandemic, during a period when the risk of COVID-19 infec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preventive measures had significantly eased. However, as a crucial period approaches, which involves the end of the COVID-19 pandemic and preparations for the post-COVID-19 era, it is necessary to conduct more in-depth empirical research, such as expanding the spatial scope and sample selection and comparing the pre- and post-pandemic periods.

Keywords : Lifestyle, Risk perceptions, Tourist 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 Satisfaction, COVID-19